

# 평택의 전통예술

傳統藝人

| 글·사진 박성복 |





## 글·사진 박성복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우리나라 지역언론 1세대로 〈평택신문〉 편집부장, t-broad 기남방송 보도제작국장을 거쳐 평택문화원 사무국장과 평택 향토사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지금은 〈평택시사신문〉 사장으로 지역사 연구와 영상기록,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케이블TV 선거방송 시스템》《사진 속 평택의 자화상1》《율북리당제》가, 공저는 《소방홍보 비디오 촬영 및 편집》《평택시사》《평택시통합사》《평택민속지 상·하》《평택박물관 설립 연구》,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 《우리고장 평택》 등이 있다.

《평택 문학의 향기1》《평택항개항20년사》《평택의 토종1, 2》《소사벌》 등의 책에 사진을 실었다.

평생교육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다큐멘터리 사진가, Image Bank Korea 대표로 평택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앵글에 담아오고 있다





| 글·사진 박성복 |





## 발간사

우리지역의 오랜 역사와 선조의 삶을 돌아보고, 평택을 빛낸 역사인물을 되짚어 보는 일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연구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평택의 역사인물 발간사업은 지역사의 체계화 뿐 아니라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평택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줄 것입니다.

평택은 소리, 기악, 농악, 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예술이 활성화 되어있으며 그러한 영향은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전통예술의 고장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평택인물지4-평택의 전통예인》은 평택 전통예술의 뿌리와 전통예술의 뛰어난 명인들을 함께 살펴보아 한 흐름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풍부한 자료를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여기에 깊이 있는 고찰을 더해 한눈에 평택 지역의 전통예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많은 힘을 기울인 박성복 집필자를 비롯하여 평택문화원 임직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평택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평택문화원장 김 은 호

평택의 전통예인의 현황과 일대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평택의 전통예인』발간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심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예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평택시는 대단위 산업단지와 신도시의 조성, 평택항과 평택호 개발, 더불어 주한미군의 본격적인 이전 등 급격한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통문화의 수호자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예인에 대한 발굴과 이를 통한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평택의 전통예인』에는 전통예인의 현황과 계승, 지역사회 다양한 사료 등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택의 전통예인』이 충실히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우리시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평택시장 공재광



## 저자의 글

전통예술 성지로의 부활을 꿈꾸며 …

35년 전 평택군 백중놀이에 참석해 평택농악 판굿과 두레놀이를 구경했던 시절이 있었다. 마을 두레농악만 봐왔던 우물 안 개구리에게 그날 봤던 웃다리 평택농악은 경이롭기까지 했으며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평택농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언론에 종사하면서도 계속됐고 수많은 국내외 공연에 관람자로 참여하게 했다.

평택농악은 고사 굿의 소리와 상쇠를 비롯한 많은 치배의 기악연주, 치배와 무동의 무용, 상모잽이의 다양한 기예가 모아진 종합예술이다. 농작업 과정에서는 노동의 고단함을 여홍으로 풀어내고, 절과 관공서 걸립에서는 기부의 동력이 되며, 판굿이 펼쳐지는 마을에는 신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평택농악이었다.

평택농악에 대한 관심은 평택지역 전통예인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에너지가 되었다. 평택농악 윗대에 전국 5대 남사당의 하나인 ‘남사당 진위패’가 경복궁 중건 기념으로 흥선대원군 앞에서 공연해 도대방기(都大房旗)와 3색 어깨띠를 하사받았다는 사실은 평택의 전통예인(傳統藝人) 연구의 새로운 동기가 되었다.

해금 시나위 명인 지영희와 부인 성금연의 활약상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알면 알수록 양파껍질처럼 계속되는 우리 국악에 대한 지영희의 열정을 통해 평택인의 예술혼과 위대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악기 연주, 소리, 춤, 국악 교육, 지휘, 악기개량, 채보와 작곡, 영화음악, 국악관현악단 창단 등 쉼 없는 활동은 그를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특성은 평택을 농업과 어업이 발달하게 했고, 자연을 밑천으로 살아온 민초들에게는 풍년, 풍어, 무사안녕 등 기원(祈願)과 기복(祈福)의 문화를 만들어내 평택에서 자연스럽게 굿 음악이 융성하게 했다.

## 저자의 글

산과 강만 넘어서도 소리가 바뀌고 연주의 기교가 달라지듯 경기도도당굿 음악인 경기시나위는 여러 더듬(제·制)을 만들어냈다. 방용현의 동령제(東嶺制), 방돌근의 남양제(南陽制), 지영희의 안산제(安山制)는 평택사람들의 정서를 옮기며 닮아낸 예술혼의 산물이다. 평택이 경기시나위 대부분의 본류를 만들어낸 곳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택을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성지(聖地)’라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조선조 순조~철종 때인 19세기 전기 판소리 8대 명창으로 ‘적벽가’를 가장 잘 부른 모홍갑과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이며 ‘국창’으로 불린 이동백의 광대성은 평택농악 고사소리와 평택민요의 노동요·장례요로 이어져왔다.

최은창으로 시작해 이돌천·김용래 등 많은 농악인들이 전승해온 평택농악은 웃다리농악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민조의 농요, 이종구의 어업요, 박용철의 장례요는 평택의 소리이면

서 경기도 서남부지역 특성을 온전히 보존한 소리로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돼 후세에 이어져오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국보급 전통예인들의 삶을 찾아다니며 보람을 느껴온 흔적들을 하나로 모아 《평택인물지4-평택의 전통예인》을 펴내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다. 아직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전통예인들에게는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전통예인들을 통해 평택이 전통예인(傳統藝人)의 터전이었음을, 또 다시 전통예술의 부활을 꿈꾸는 성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평택인물지4-평택의 전통예인》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애써준 평택시와 평택문화원, 사료조사와 발간에 도움을 준 많은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책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2월  
舞鳳齋에서 저자 박 성 복

# 目次

목차

## I. 평택의 역사와 전통예술

### 1. 평택의 지리와 역사 014

1) 위치와 면적	014
2) 자연환경	016
3) 교통	018
4) 발굴유적	020
5) 역사	024

### 2. 전통예술 개관 027

### 3. 평택지역 전통예술의 생성과 발달 034

# 평택의 전통 예인

## III. 평택의 예인 藝人

### 1. 소리 044

1) 평택의 명창 ..... 044

(1) 모홍갑 (2) 이동백

2) 평택지역 민요의 유래와 전승 ..... 063

(1) 기원(祈願)·기복신앙(祈福信仰)과 평택 (2) 농요(農謡)

(3) 어업요(漁業謡) (4) 의식요(儀式謡) (5) 기타

3) 평택민요(平澤民謡) 보유자 ..... 073

(1) 이민조(李敏祖) (2) 이종구(李鐘九) (3) 박용철(朴容哲)

### 2. 기악 089

1) 경기도도당굿(京畿道都堂굿)과 경기시나위 ..... 089

(1) 경기도도당굿(京畿道都堂굿) (2) 경기시나위

2) 평택의 경기시나위 ..... 097

# 目次 목차

## II. 평택의 예인 藝人

### 2. 기악

- 3) 평택의 기악(器樂) 명인(名人) ..... 103  
(1) 방용현(方龍鉉) (2) 김부억쇠 (3) 지영희(池瑛熙)  
(4) 성금연(成錦鳶) (5) 방돌근(方戛根)
- 4) 평택의 세습무(世襲巫) 가문(家門) ..... 135  
(1) 지문일가(池門一家) (2) 방문일가(方門一家)

### 3. 농악 139

- 1) 사당패(寺黨牌)의 유래와 평택지역 남사당(男寺黨) ..... 139
- 2) 남사당 진위패(男寺黨 振威牌) 육성자와 명인 ..... 144  
(1) 유세기(柳世基) (2) 김덕일과 심선옥(沈善玉)
- 3) 남사당(男寺黨) 예능보유자 ..... 152  
(1) 송창선(宋昌善)

# 평택의 서예인

4) 평택지역 농악의 유래와 전승	158
(1) 웃다리지역을 대표하는 평택농악	(2) 걸립농악과 두레농악의 조화
(3)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4) 평택농악의 세계적 도약
(5)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 평택농악 예능보유자	184
(1) 최은창(崔殷昌)	(2) 이돌천(李芻川)
	(3) 김용래(金容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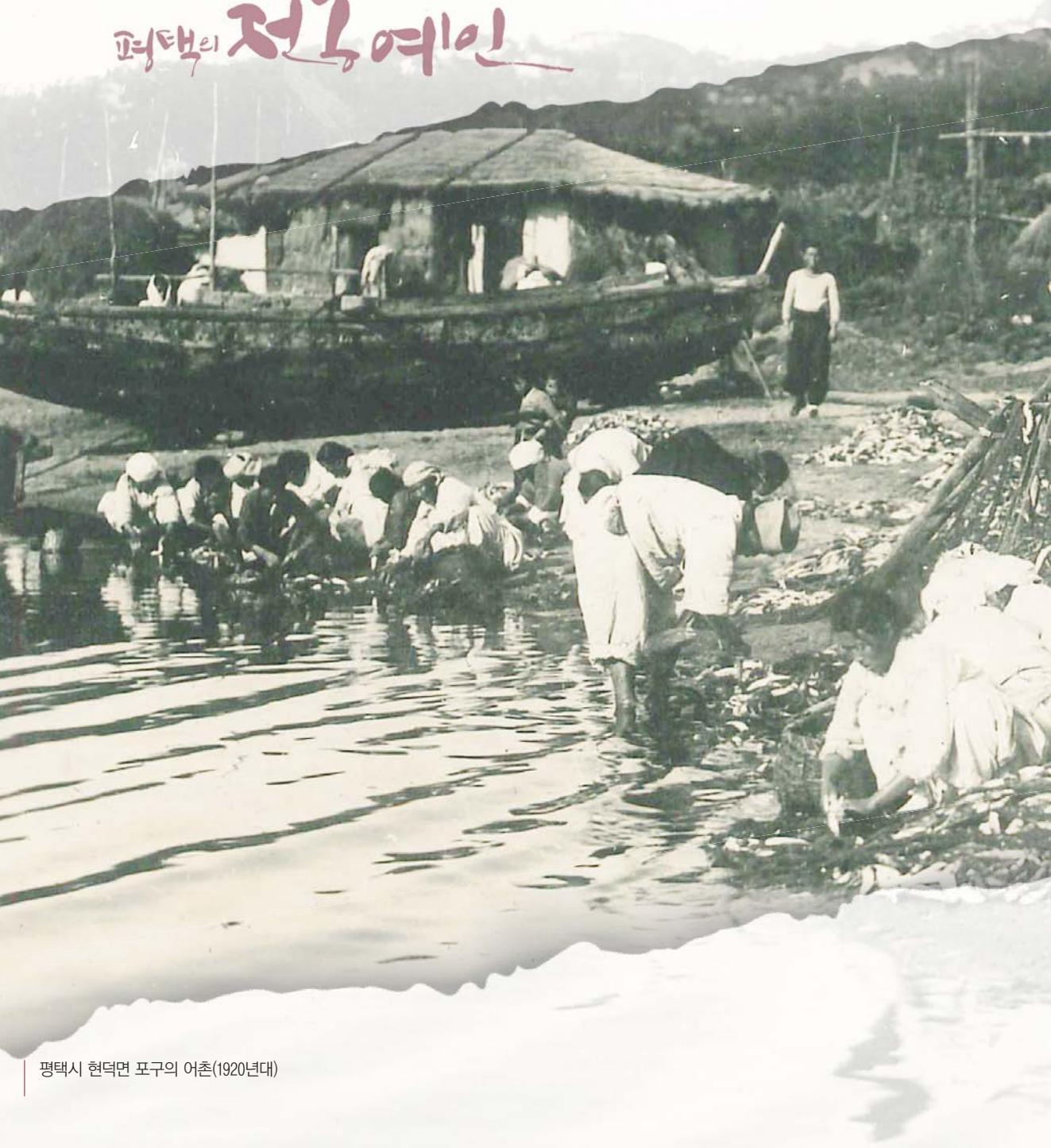
## III. 평택의 장인 匠人

### 1. 서각장 202

1) 서각장인	202
(1) 이규남	

색인 212

# 평택의 전통 예인



평택시 현덕면 포구의 어촌(1920년대)



## I. 평택의 역사와 전통예술

1. 평택의 지리와 역사
2. 전통예술 개관
3. 평택지역 전통예술의 생성과 발달

## I. 평택의 역사와 전통예술

### 1. 평택의 지리와 역사

#### 1) 위치와 면적

평택시는 한반도 지형으로 보면 중심부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남서부로 충청남도와 접경지에 자리 잡고 있다. 지리적으로 경도 상 동경 126° 46'~127°09', 위도 상 북위 36°54'~37°08'에 위치해 있으며, 동서간 직선거리는 33.40km, 남북간 직선거리는 32.92km이다.

평택시 전체 면적은 458,125,024.8m<sup>2</sup>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한다. 평택시 본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3개 행정조직의 운영 편리를 위해 나눠놓은 권역별 행정 읍·면·동은 4읍 5면 13동으로 전체 22개 읍·면·동이다. 평택시 본청이 관할하는 남부지역은 팽성읍,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이며, 송탄출장소가 관할하는 북부지역은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이다. 또 안중출장소가 관할하는 서부지역은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이다.

평택시 동단 끝 지점은 용이동 산1-5번지, 서단 끝 지점은 포승읍 원정리 1209번지, 남단 끝 지점은 현덕면 권리 956번지, 북단 끝 지점은 진위면 동천리 산 46-2번지이다.<sup>1)</sup>

---

1) 평택시, “평택시 소개 위치”, 『평택시 누리집』, 2016.



평택시 남부지역 시가지와 농경지

평택시의 동쪽으로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과 원곡면 그리고 용인시 남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과 아산시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에,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과 신평면에 위치해 있다. 또 북쪽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과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그리고 오산시 갈곶동과 고현동, 청호동, 원동, 두곡동, 탑동, 누읍동에 접해있다.

평택시 서북단 포승읍 원정리 남양호방조제부터 시작해 서남단 평택호방조제 까지 이어지는 해안선 길이는 평택항 개발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2014년 말 42.62km로 경기만과 접해있다.



평택시 북부에 자리 잡은 부락산

## 2) 자연환경

조선시대 간행된 『산경표(山徑表)』<sup>2)</sup>에 의하면 평택지역은 속리산에서 출발한 ‘한남금북정맥’이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지형은 대부분 평야와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산이 많지 않다. 평택지역은 한반도 특유의 노년기 최후 단계인 저산성 구릉들로 이루어져 높은 산지보다는 낮은 구릉이 많은 지역이다. 노년기 지형의 영향으로 인해 용인시 산악의 여맥으로 이어진 진위면 봉남리 무봉산(208.8m)을 비롯하여 가곡리, 견산리 일대의 구릉지가 산재하고, 동북으로는 광주산맥의 산줄기인 용인시의 산악과 화성시를 이어온 구릉지가 오산천을 끼고 서탄면 일대 마두리까지 산재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차령산맥에서 뻗어 나온 안성시 양성면 천덕산(355.5m)의 여맥으로 이루어진 도일동 덕암산(164.0m)을 비롯하여 주변에 팔용산(138.0m) 등 작은 산줄기를 형성하고 마산리, 독곡동, 서정동, 고덕면까지 구릉지가 이어지고 있다.

---

2) 신경준, 『산경표(山徑表)』, 조선팽문회, 1913.



팽성읍 석봉리 진위천과 안성천 두물머리

남쪽으로는 부용산과 덕동산, 자란산 등 30m 내외의 낮은 산이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평택시에서 가장 높은 무봉산(208.8m)과 덕암산(164.5m), 부락산(150.5m), 팔용산(122.0m) 등이 위치한다. 서남쪽에는 현덕면에 고등산(150.0m)과 마안산(101.0m)이, 서북쪽으로는 포승읍 대덕산(70.0m)과 오성면 오봉산(109.5m), 청북읍 무성산(105.0m), 명봉산(137.5m) 등이 있다.

평택은 국토의 서쪽 평야지대 마지막에 위치해있고 아산만과 남양만 등 광의적으로는 경기만과 이어지는 지형이기 때문에 하천이 매우 발달해 있다. 북동쪽으로는 용인시 이동면 서리 부아산에서 발원한 진위천이 유유히 흘러 진위면 하북리에서 오산천이, 서탄면 황구지리에서 황구지천이, 고덕면 궁리에서 서정천이 각각 합류해 흐른다.

동남쪽으로는 안성시 고삼면과 보개면에서 발원한 안성천에 안성시 공도면 중복리에서 입장천이, 평택시 유천동에서 성환천이, 신대동에서 통복천이 각각 합류한다. 고덕면 동고리와 오성면 창내리, 팽성읍 석봉리 두물머리에서 만난 진위천과 안성천은 평택호로 유입돼 서해로 흐른다.

북서쪽으로는 화성시 봉담읍 태봉산과 건달산 일원에서 발원해 팔탄면과 향남

읍, 장안면을 차례로 거쳐 흐르는 발안천이 청북읍 고잔리 평택시 접경지에서 만나 포승읍을 거쳐 남양호로 유입돼 서해로 흐른다.

평택의 하천은 구분에 따라 4개의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이 있다. 또한 18개 지방하천으로 안성천 수계인 신궁천, 통복천, 도일천, 장안천, 교포천, 대반천, 군계천, 둔포천이, 진위천 수계인 사후천, 산하천, 진위천, 지산천, 장등천, 두릉천, 관리천, 서정리천이, 진위천이나 안성천에 합류하지 않고 포승읍 방림리에서 신영리를 거쳐 서해바다로 바로 흐르는 방림천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하천이 평택호와 남양호로 유입돼 수자원이 풍부하다.

해안선은 만입이 많고 복잡했으나 평택호방조제와 남양호방조제 건설, 그리고 평택항 건설로 인하여 매우 단조로워졌다. 특히 평택항 개발로 인해 갯벌을 비롯한 많은 해양 자원이 사라지게 됐다.

평택시는 혐준한 산악지형이 거의 없고 서해연안과 가까우며 대부분 평야지대 이므로 기온은 대체로 높거나 낮지 않은 기온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서해안의 민물과 냉물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본다. 하절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되고 대륙내부에 저기압이 일어나므로 남풍과 동남풍이 많이 불고, 동절기에는 북부대륙성 고기압으로 덮이고 태평양성 저기압이 밀려 들어와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온다. 2014년 연평균 기온은  $13.8^{\circ}\text{C}$ 이고, 1월 평균 기온은  $-0.9^{\circ}\text{C}$ , 8월 평균 기온은  $24.2^{\circ}\text{C}$ , 연평균 강수량은 903.0mm이다.

### 3) 교통

평택은 과거 서울과 경기도를 거쳐 충청·호남·영남지방을 이어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길이면서 사람과 물산의 이동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교류의 중심 동맥 역할을 해왔던 6대로 중 삼남대로의 중요한 길목이자 경유지였다.

현재 평택시의 교통시설 가운데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옛 삼남대로를 따라 개통된 진위면 마산리 삼남길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등 5개의 고속 도로가 평택의 종단과 횡단으로 통과하고 있어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과 호남권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철도노선은 경부선철도와 수서~평택간고속철도, 경부선고속철도가 평택시를 관통하고 있다. 일반 철도와 SRT 수도권고속철도를 통해 전국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2006년 6월 경부선철도에 2복선 전철이 개통돼 진위역~송탄역~서정리역~지제역~평택역 등 평택시 관내 5개역에서도 전철을 이용해 인근 도시와의 단거리 이동이 편리해졌다.

일반도로는 신의주~목포 구간의 국도 1호선이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유천동을 남북으로, 국도 39호선은 청북읍 고령리~현덕면 권관리를 남북으로, 국도 38호선은 용이동~현덕면 권관리를 동서로, 국도 45호선은 청룡동~팽성읍 석근리를 남북으로, 국도 43호선은 오성면 양교리에서 팽성을 노양리를 남북으로 관통한다. 또 거미줄처럼 펼쳐진 지방도로는 평택시를 사통팔달 교통의 도시로 변모하게 만들었다.



고덕면 여염리·방죽리 일원의 토루 복원 모습

#### 4) 발굴 유적

평택시는 1980년대까지 개발사업이 많지 않아 구제 발굴 형식의 고고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안중택지개발사업, 청북택지개발사업,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평택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다.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조사 보고된 포승읍 희곡리 갱신세층에서 찍개, 밀개, 여러면석기, 굽개 등이 출토되었으며, 안중택지개발사업으로 안중읍 현화리유적에서 여러면석기가, 평택항 물류기지 건설시 포승읍 원정리유적에서 밀개, 굽개, 톱니날 등의 석영재 석기가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포승읍 석정리에서 몸돌과 여러면석기가, 현덕면 운정리와 안중읍 대반리 직산말에서 여러면석기와 망치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안중읍 송담리와 용성리 비파산성에서는 굽개가, 오성면 양교리



에서는 격지가 수습되어 구석기시대 유적의 분포 산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석기시대 환경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으로 평택 서부지역의 토탄층에 대한 꽃가루분석,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시 포승읍 희곡리와 내기리 토탄층의 꽃가루분석, 수종분석과 나이테분석, 씨앗분석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평택에서 발굴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포승읍 원정리유적 패총을 들 수 있다. 평택항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발굴된 이 유적은 해발 50m 내외의 구릉에 조개더미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야외노지와 ‘之’자형 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하여 비교적 많이 보고되었다. 1995년 안중현화백지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안중읍 현화리유적은 주거지 5기와

무문토기, 공렬문토기, 흥도, 석촉, 마제석부 등이 확인되었다. 현화리유적과 방사성탄소연대가 유사한 지제동유적에서는 주거지 7기와 수혈 1기가 조사되었으며, 구순각목문토기와 각종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평택~서안성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덕면 방축리 유적에서는 마제석검과 석촉,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가 조사되었으며, 청북읍 토진리와 칠괴동에서도 장방형, 원형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안중읍 대반리 직산말유적에서 무문토기편과 마제석부편이, 청북읍 백봉리와 후사리 무성산, 오성면 안화리, 진위면 견산리, 협덕면 기산리 등의 유적에서 무문토기편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평택시 일대에서 발견된 관방유적으로는 경기도기념물 제202호 청북읍 옥길리 평택무성산성지(平澤武城山城址)와 경기도기념물 제203호 안중읍 용성리 평택자미산성지(平澤茲美山城址), 경기도기념물 제204호 안중읍 용성리 평택비파산성지(平澤琵琶山城址), 경기도기념물 제205호 안중읍 용성리 평택용성리성지

(平澤龍城里城址), 경기도기념물 제206호 현덕면 덕목리 평택덕목리성지(平澤德塙里城址)가 있다.

무성산성은 무성산(武城山)의 해발 105.0m 정상부를 감싸고 축조된 테뫼식 토축산성이며, 자미산성은 해발 110.8m 자미산(茲美山)에 내성(內城)과 외성(外城), 부성(副城)으로 이루어진 삼중구조의 복합식 성곽이다. 비파산성은 해발 102.2m 비파산(琵琶山)의 북쪽 정상부와 남동쪽 하단부의 용성리 뒷골을 포함하여 축조된 포곡식 형태의 토축 평산성이며, 용성리성은 안중읍 용성3리에 축조된 토축 평지성(平地城), 덕목리성은 덕목리에 위치하고 있는 평지성(平地城)이다. 5개의 서부관방산성은 서해안을 통해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성되었다.

이외에도 지제동산성, 백봉리산성, 기산리산성, 봉남리산성, 견산리성지 등이 있다. 축성시기는 2~5세기로 추정되며, 산성에서는 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이 수습되었다.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서탄면 내천리유적과 안중읍 금곡리유적에서 조선시대 건물지와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칠원동에서 기와가마 4기가 확인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평택시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돼 학술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속속 발굴되고 있다.

국도 38호선 옆 소사동 아파트단지 개발현장에서는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유적으로 집터 81곳이 발굴됐다. 이 유적에서는 직사각형인 집터와 원형인 집터가 함께 발견돼 청동기시대 집터가 직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해가는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무문토기, 반달형돌칼, 돌도끼 등 청동기 유물도 대거 출토되었다.

2015년 6월 23일부터 발굴조사가 진행된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적 조사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환호취락유적이 발굴됐다. 환호취락(環濠聚落)은 주위에 호(濠)를 두른 취락으로 방어·배수·경계·의례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용죽지구유적은 제1호 환호를 중심으로 3개의 환호가 함께 위치

하고 있으며, 제1호 호환은 제례 또는 의례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평택용죽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유적에서 환호(環濠)가 확인됐다는 것은 평택지역의 제례·의례 음악의 기원과 방식을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곳에서는 청동기~원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주 거지 87기, 환호 3기, 가

마 3기, 구상유구 6기, 주혈군 1기 등을 비롯해 고려~조선시대 분묘 314기 등 모두 448기의 유구가 확인됐다.

또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조성부지 내에서도 제철로와 배재구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굴됐다. 진위면 가곡리와 갈곶리 진위일반산업단 1구역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16기, 분묘 57기, 수혈 28기, 가마 1기, 제철유구 1기 등 모두 103기의 유구가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제철로와 배재구 등 특수유구는 보존이 확정됐다.

안중읍 성해리 산 95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흥원곶 목장성으로 파악되는 하부 넓이 10m, 잔존 높이 2m 규모의 성토다짐 토루가 확인돼 보존을 추진하고 있다.

고덕면 여염리와 방축리 일원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조선시대 방어시설로 추정되는 흙으로 쌓은 벽인 토루(土壘)를 비롯해 많은 양의 매장문화재가 발굴됐다. 고덕국제화지구 내 3구역 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은 너비 2.8~8.2m, 외면 높이 0.8~1.8m, 길이 133m의 토루와



포승읍 원정리 명거니유적 발굴 토기편

청동기시대 주거지 11기 등 모두 410여기의 주거지가 발굴됐다. 조선시대 대규모 토루로는 조사 사례가 매우 희소할 뿐만 아니라, 토루 내의 단위 생활면이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해 원지형과 토루의 원형을 살려 현 위치에 복원이 완료됐다.

고덕산업단지와 국도 1호선 삼거리를 연결하는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는 지제동 산 760-1번지 일원에서 한성기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등 발굴지역 전역에서 모두 96기의 유구가 확인됐다. 이 유적에서는 타날문토기편, 경질무문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주거지, 수혈, 주공, 조선시대 백자, 경질 토기편, 구상유구,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발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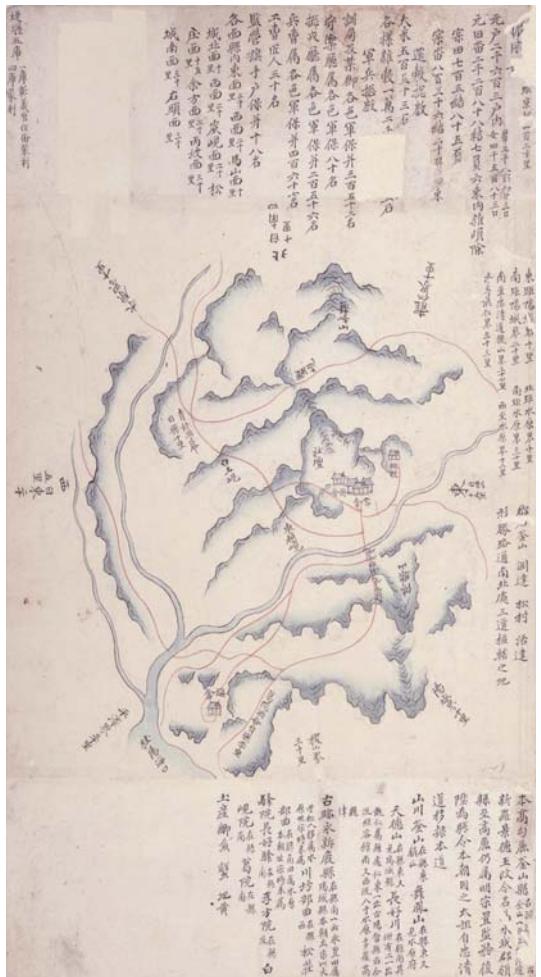
## 5) 역사

《史記》, 〈朝鮮傳〉에 황해도 이남을 진(辰)이라 불리던 기록으로 보아 삼한시대에 평택지역은 진의 영향권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삼한시대에는 양성 일대로 추정되는 신분활국, 직산 일대의 목지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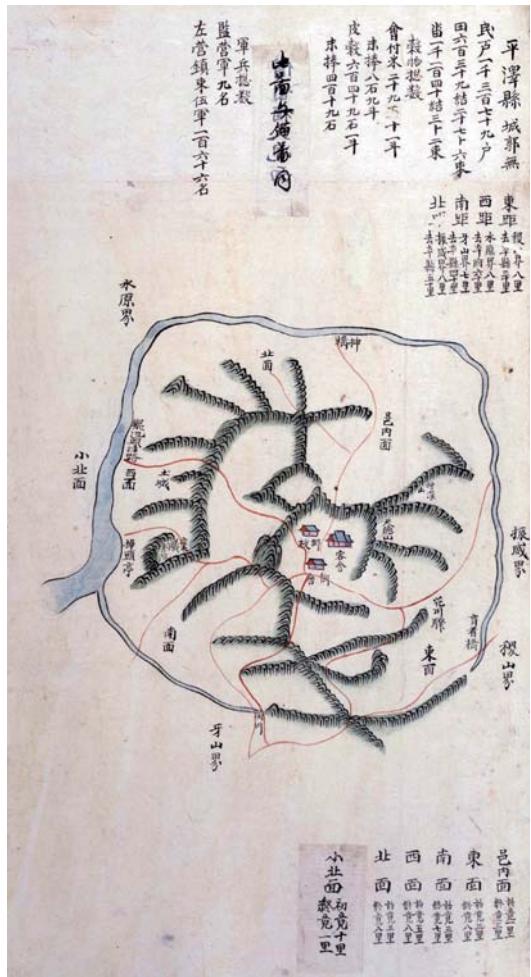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 들어와 북은 고구려, 남은 백제의 땅으로 고구려의 남진 정책과 이에 대항한 백제와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위현 조에 따르면 진위현은 백제 때 금산(金山), 송촌 활달, 연달부곡 등으로 부르다가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점령하면서 ‘부산현’ 또는 ‘부성현’으로 고쳐졌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안중읍 일대에 용성현, 현덕면 일대에는 광덕현이 설치되었다. 오늘날 팽성읍에 위치했던 평택현은 백제 때 하팔현으로 불렸다가 940년(고려 태조23년)에 ‘평택현’으로 개칭되었다.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백과사전』, 1991.



조선 후기 진위현지도(1750년)



조선 후기 평택현지도(1750년)

고려 건국 후 진위현, 평택현을 비롯한 여러 고을과 부곡, 장, 처와 같은 특수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다. 예컨대 진위면과 서탄면 일대의 진위현, 덕암산 남쪽에 서 안성천 사이의 영신현, 서평택지역 안중읍 일대의 용성현, 현덕면 일대의 광덕현, 팽성읍의 평택현과 경양현 그리고 송장부곡, 천장부곡, 백랑부곡, 포내미부곡, 육내미부곡, 신영장, 종덕장, 오타장, 금물춘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삼

국시대부터 고려 때에 존재했던 이들 고을은 인구가 적고 생산력이 낮아서 수주(水州)나 천안부(天安府)의 속현(屬縣)으로 조세(租稅)나 행정적 통제를 받았다. 평택지역의 고을들이 독자적 행정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고려 현종 때 감무(監務)를 파견하면서부터다.

주변고을의 영현으로 행정적 통제를 받았던 평택지역은 조선 건국 후 크고 작은 고을들이 통폐합되고 부곡, 장, 처 등 특수행정구역이 직촌화 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예컨대 조선 초에는 평택지역 일대가 충청도에 속했고, 이것이 안성천을 경계로 북쪽지역은 경기도, 남쪽은 충청도로 재편되었다. 또 삼남대로 변에 위치하여 사신접대의 부담이 커진 진위현은 남쪽의 영신현과 서쪽의 천장부곡, 오타장의 일부지역을 통합하면서 고을의 규모가 커졌고, 복잡했던 서평택지역은 수원도호부와 양성현, 직산현의 월경지 또는 두입지로 바뀌었다. 충청도에 속한 평택현은 변화가 없었지만 고려 후기 경양현이 설치되었던 팽성읍 노양리, 노성리, 본정리, 신대리 일대는 충청도 직산현 경양면으로 편입되어 갑오개혁 때까지 유지되었다.

진위현과 평택현은 1895년 전국을 23부로 나누어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 진위군과 평택군으로 명칭이 바뀌어 공주부(公州府)에 속하게 되었다가, 이듬해 13도제로 개편되면서 진위군은 경기도에, 평택군은 충청남도에, 서평택지역은 지속적인 통폐합 과정을 거쳐 경기도 수원군에 각각 속하게 되었다.

1913년 12월에 공포되고 1914년 3월 1일 시행한 조선총독부 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따라 평택군과 경기도 수원군에 속해 있던 고덕면 일부 지역,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그리고 충청도에 속했던 평택군은 경기도 진위군에 통폐합되었다.

1931년에는 진위군 청소재지였던 병남면을 평택면으로 개칭하였고, 1934년 4월에는 부용면과 서면을 통합하여 팽성면으로 하였으며, 1938년 9월에는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개칭했고 평택면이 평택읍으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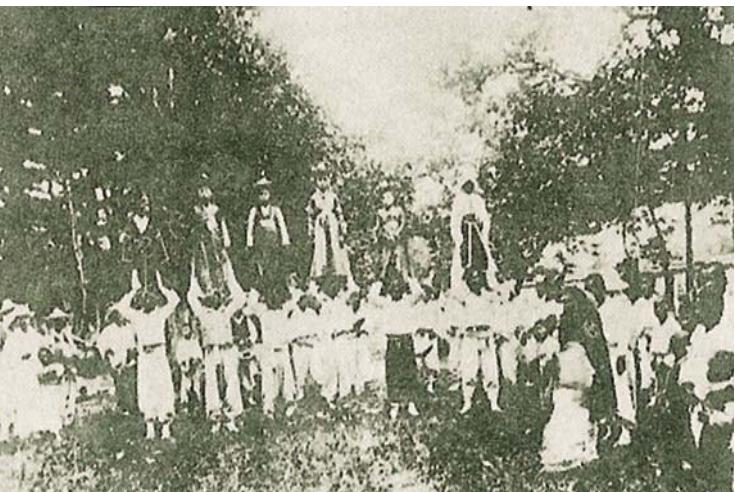
1962년 6월에 평택군 조례 제25호로 송탄면에 신장출장소를 신설했고, 1963

년 1월 1일 송탄면이 송탄읍으로 승격하면서 행정구역은 2읍 8면 399리로 편제되었다. 1979년 5월 팽성면이 팽성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1년 7월 1일에는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되어 평택군과 분리되었다. 1986년 1월 1일에는 평택군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됨에 따라 평택지역은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의 3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1995년 5월 10일 통합되었다. 1995년 3개 시·군 통합 시 행정 조직으로 비전동 구. 평택군청에 평택시청을, 서정동 구. 송탄시청에 송탄출장소를, 안중면 안중문화예술회관 내에 안중출장소를, 서정동 구. 송탄시의회에는 평택시의회를 두었다.

이후 대단위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2002년 11월 5일 안중면이 안중읍으로, 2006년 12월 29일 포승면이 포승읍으로, 2016년 7월 8일 청북면이 청북읍으로 각각 승격되면서 평택시는 4읍 5면 13동의 행정구역으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전통예술 개관

전통예술은 우리 조상들이 전통사회를 살아오면서 행했던 전통연희 활동을 말한다. 고려시대 중국에서 유입돼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는 궁중정재, 무속의례인 궂에서 연행되는 무극(巫劇), 불교의례음악과 춤인 범파(梵唄)나 작법무(作法舞), 그리고 남사당파 등 직업적 유랑예인집단들의 풍물이나 지신밟기, 두레, 걸립 등에서 연행되는 농악 등이 전통연희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연희자들에 의해 전승되었던 줄타기나 솟대타기, 땅재주 등의 종목들과 가면극, 판소



옛 평택농악

리, 창극, 꼭두각시놀이 등 연극적 양식의 종목들도 전통연희에 속한다.

전통연희를 하는 전문 연희자들은 연중 시기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백성들을 찾아다니거나 관중을 모아 공연을 했다. 경기도의 별산대놀이, 황해도의 해서탈춤, 경남의 야류와 오광대는 농어민이나 하급관속 등 비전문적인 사

람들이 배워 공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연희는 민속연희와 공연예술의 중간적 성격을 띠기도 했다. 반면 세시풍속의 하나인 줄다리기나 고싸움, 연날리기, 횃불싸움, 거북놀이, 장치기 등은 전통연희 보다는 민속연희 또는 민속놀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자생적인 전통연희들이 존재했다. 중국과 서역에서 다양한 연희들이 유입되었고 기존 연희종목들도 중국이나 서역의 수준 높은 연희자들에 의해 공연되면서 더욱 발전했다.

우리나라 삼국악은 이미 수나라 이전부터 중국에 전해졌고 그 수준도 상당했다. 고구려악은 중국 수나라의 칠부기와 구부기에 들어있고 백제악과 신라악은 칠부기 외의 외국악(外國樂)으로 존재했다.

고려시대에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온 팔관회(八關會), 연등회(燃燈會)를 비롯하여 수륙재(水陸齋), 우란분재(于蘭盆齋), 나례(讌禮), 수희(水戲), 왕의 행행(行幸)과 환궁(還宮), 궁중연희, 개선장군의 환영잔치 등에서 각종 연희를 연행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례, 중국 사신 영접행사, 문희연(聞喜宴), 수륙재, 우란분재,



평택호 풍어제

관아행사, 읍치제의(邑治祭儀)<sup>4)</sup>, 동제(洞祭)<sup>5)</sup>, 사대부가의 잔치 등에서 공연예술을 연행했다. 조선후기에는 국가적 행사인 나례, 중국 사신 영접행사, 궁정 중심의 각종 행사들이 크게 위축되거나 소멸된 반면 국가행사와 궁정행사에 동원되던 연희자들이 민간에 퍼져 공연활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의 공연문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선 기존의 연희들을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재창조한 본산대놀이 가면극, 판소리, 꼭두각시놀이 등 새로운 연극적 양식들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민간을 떠돌면서 공연예술을 연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당패, 남사당패, 광대패, 솟대쟁이패, 풍각쟁이패, 걸립패 등 다양한 명칭의 유랑 예인집단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평택지역도 이 시기 남사당패와 걸립패가 성행해 경기·충청지역에서 이름난 예인들이 참여하거나 거쳐 가는 길목이 됐다.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연희자들이 흥행을 위해 관중을 상대로 공연하던 전통연

4) 군·현 단위로 지내는 제사

5) 마을 단위로 지내는 제사

희는 종목별로 크게 곡예와 묘기, 환술(幻術), 각종 동물로 분장한 가면희, 동물재주, 가무희(歌舞戲), 악기연주, 인형극, 판소리와 창극, 종교의례 속의 연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곡예와 묘기 장면은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에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고, 이후 남북국시대(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문헌기록과 도상 자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환술은 광대가 입에서 불을 토해내거나, 칼로 신체를 찔렀는데도 다시 살아나거나, 스스로 자기 몸을 끈으로 묶은 후 풀어내는 등 사람의 눈속임을 하는 연희로 지금의 마술과 같다.

각종 동물로 분장한 가면희는 어룡(魚龍), 만연(曼衍), 공작희(孔雀戲), 표희(豹戲), 사자희, 호랑이희, 학춤 등이 있었다. 어룡과 만연은 중국 한나라 때 비롯된 본격적인 동물 흥내 내기 연희이다.

동물재주부리기는 금수어충희(禽獸魚蟲戲) 또는 동물희(動物戲)라 하여 각종 동물을 훈련시켜 묘기를 부리게 하는 연희가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물의 흥내를 내던 것이, 직접 동물을 훈련시켜 재주를 부리게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골계희는 그동안 학자에 따라 우희(優戲) · 소학지희(笑謔之戲) · 조희(調戲) · 화극(話劇) 등으로 불러왔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에는 대부분 우희(優戲) · 배우희(俳優戲) · 창우희(倡優戲)라고 되어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우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우희에는 임금을 풍간하는 내용, 부패한 관원을 풍자하는 시사적인 성격을 띤 내용, 동작이나 각종 동물소리를 흥내내는 연희, 난쟁이놀이를 하는 주유희(侏儒戲)가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궁중의 각종 잔치와 나례, 과거급제자 잔치인 문희연 등을 거행할 때나 서울의 길거리 등에서 우희가 공연되었다.

무희는 고구려의 호선무(胡旋舞)와 광수무(廣袖舞), 신라의 처용무와 황창무, 고려와 조선의 교방가무희, 조선조 말의 승무와 살풀이춤 등을 들 수 있다. 교방

6) 궁궐에 속한 악사와 기생들을 관장하는 기관

가무희는 고려시대에 송나라의 교방(敎坊)<sup>6)</sup> 가무희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고려와 조선의 궁중행사에서 공연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전승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서울 근교에 산대놀이라는 가면극이 애오개, 사직골, 노량진, 구파발 등에 있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최초의 창극은 1902년 가을, 고종의 즉위 40년을 경축하는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신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김창환이 전국의 남녀 명창을 불러들여 공연하려 했던 ‘춘향전’이라고 전해진다. 원각사가 해체된 후, 명창들은 협률사를 구성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창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무극(巫劇)은 흔히 무당굿놀이라고도 부르는데, 무녀(巫女) 또는 무부(巫夫)가 굿을 하는 가운데 행하는 연극을 가리킨다.

산악 또는 백희라고 불리는 연희들은 삼국시대에 중국과 서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가무백희 · 백희잡기 · 잡희 · 산대잡극 · 산대희라고 불리던 연희들도 바로 이 산악 · 백희이다. 전통연희 가운데 산악 · 백희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한국 · 중국 ·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했던 동아시아 공동의 공연예술 유산이다.



## 평택의 전통예인(傳統藝人) 분포도



그래피 디자인 / 기으저



### 유준홍(柳俊弘)

19세기 말~?

**출생** |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분야** | 남사당  
**활동** | 남사당 진위파 육성자

### 유세기(柳世基)

1893~1985년

**출생** |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분야** | 남사당, 시조  
**활동** | 『시조창법』 저자,  
초대 한국농악협회회장  
남사당 진위파 육성자

### 송창선(宋昌善)

1911~1986년

**출생** | 평택시 서정동  
**분야** | 남사당놀이 호적 명인  
**활동** | 경기 능계가락 대가  
평택지역 산대극계(山臺劇系) 복원  
남사당놀이 호적 예능보유자

### 방문일가(方門一家)

**활동** 근거지 |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  
**분야** | 국악기 연주가문

### 방용현(方龍鉉)

1863년~?

**출생** |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  
**분야** | 경기시나위 대금 명인  
**활동** | 대금 시나위 명인, 경기시나위 동령제 창시자

### 방돌근(方戛根)

1941~2001년

**출생** |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  
**분야** | 경기시나위 피리 명인  
**활동** | 피리 시나위 명인, 경기시나위 남양제 전승자

### 이동백(李東伯)

1866~1950년

**출생** | 충남 서천군(평택 칠원동에서 晚年)  
**분야** | 소리 명인  
**활동** | 판소리 근대 5명창, 판소리 중고제 마지막 계승자  
판소리 〈새타령〉의 대가

### 이규남(李圭男)

1950년~생존

**출생** | 충남 공주시(현재 평택 비전동 거주)  
**분야** | 서각장인(書刻匠人)  
**활동** | 서각 장인, 목계서각공방(木溪書刻工房) 운영, 서각장 보유자

### 최은창(崔殷昌)

1914~2002년

**출생** |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분야** | 평택농악 명인  
**활동** | 팽파리 · 범고 · 고사소리 명인, 민속극회 남사당 창단  
평택농악 상쇠 예능보유자

### 이돌천(李戛川)

1919~1994년

**출생** | 충남 천안시(평택 팽성읍에서 晚年)  
**분야** | 평택농악 명인  
**활동** | 범고 · 고사소리 명인, 천안시립농악단 단장  
평택농악 상법고 예능보유자

### 김용래(金容來)

1939년~생존

**출생** | 충남 천안시(현재 평택 팽성읍 평궁리 거주)  
**분야** | 평택농악 명인  
**활동** | 범고 · 무동놀이 명인, 평택농악보존회 회장  
평택농악 상쇠 · 무동놀이 · 범고 예능보유자

### 3. 평택지역 전통예술의 생성과 발달<sup>7)</sup>

한반도의 허리, 경기도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평택은 오래전부터 국보급 예인들을 수없이 많이 배출했던 곳이다. 평택은 동고서저(東高西低) 지역으로 동쪽에서부터 중심부까지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경작했다. 서쪽으로는 바닷가에 접해있어 고기잡이를 위한 풍년, 풍어, 무사안녕 등 기원(祈願)과 기복(祈福)의 문화가 발달했으며 이 때문에 무속음악인 굿음악이 흥했다.

이 같은 지리적 여건을 배경으로 평택에서는 소리와 기악, 춤, 풍물 등 많은 예인들이 배출됐다. 모홍갑, 지영희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만한 전통 예술인들을 배출한 고장이 평택이며, 남사당과 웃다리농악, 경기도도당굿을 주도해온 전통예술의 본류로 다른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준 고장이 바로 평택이다.

이처럼 소리와 기악, 전통 연희 등 다양한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약해온 ‘평택의 전통예인들’은 오늘의 평택을 있게 한 장본인이며 그들을 통해 평택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위현에서 태어난 모홍갑(1822~1890년)은 조선조 순조, 현종, 철종 삼대에 걸쳐 전국의 판소리를 풍미한 명창이다. 권삼득, 송홍록, 염계달, 고수관, 신만엽, 박유전, 김제철과 함께 19세기 전기 판소리 8대 명창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한 인물이다. 모홍갑의 소리는 흔히 ‘통상성이’라고하여 고음처리가 누구도 흥내 낼 수 없을 정도로 강산제와 춘향가, 적벽가에 능했다.

특히 명창을 아꼈던 현종으로부터 동지(同知)의 벼슬을 받은 모홍갑은 평양 모란정에서 덜미소리를 내자 10리(4Km)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하며 모홍갑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적벽가를 부르지 못했다고 하니 당시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7) 박성복, 「평택의 전통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으로 ‘국창’으로까지 불린 이동백(1866~1950년)은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말년에 10여 년간 평택 칠원동에서 살다 작고했다. 이동백은 판소리사에서는 ‘전무후무한 명창’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광대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소리꾼이었다. 만년 칠원동 인근 덕암산<sup>8)</sup>에 올라 소리를 한 후 “이제 소리를 알만하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온다.

이동백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김창환, 송만갑, 김창룡, 정정렬 등으로 이들 근대 5명창 중에서도 당대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명창이 바로 이동백이다. 그는 수려한 외모와 함께 타고난 천구성과 뛰어난 너름새로 20세기 전반 음악계 전체를 주도했다. 그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판소리 중고제의 마지막 창자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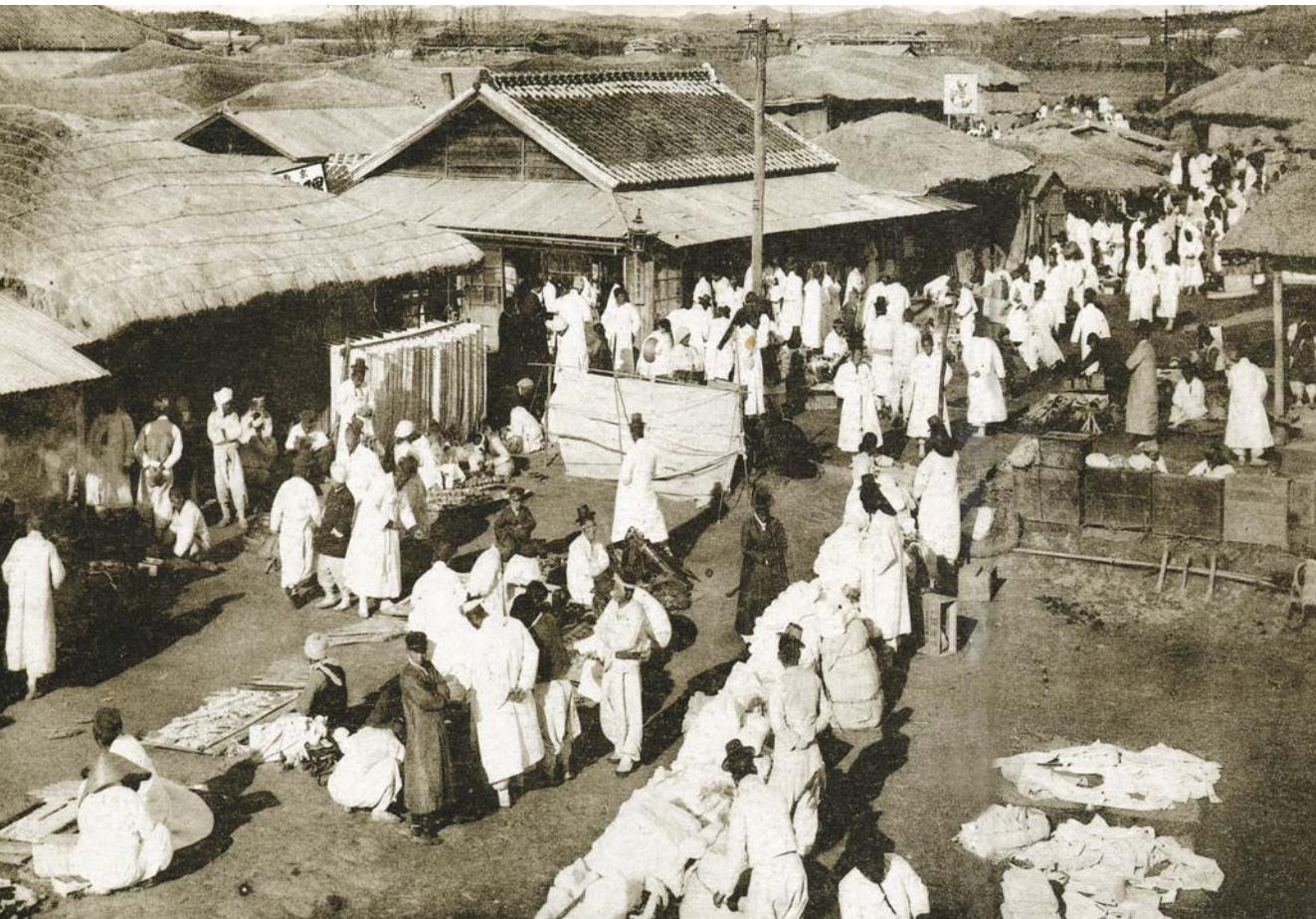
이동백은 1900년 고종의 어전에서 판소리를 불렀으며 고종은 그를 특히 사랑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직계를 내렸고, 어전에서 소리를 하게 했다. 그는 ‘심청가’와 ‘적벽가’, ‘새타령’을 특히 잘 불렀다. 1902년 서울로 올라온 이후 근 40년간을 활발하게 활동하던 이동백은 후진들을 위해 은퇴를 결심했다. 이후 평택 칠원동에서 지내며 웃다리농악을 재현하고 후학을 육성하다 8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이밖에도 평택의 예인 가운데 소리로 이름난 인물은 평택농악의 첫 예능보유자로 작고한 최은창과 이돌천, 현재 예능보유자인 김용래가 있는데 세 사람은 관아와 절, 다리, 집 등을 걸립할 때 기원하는 고사굿의 명인이다. 평택민요의 이민조는 농요, 작고한 이종구와 박용철은 각각 어업요와 장례요의 명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을 말하는 데 있어 종교음악 또는 무속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무속음악은 곧 축원, 기원을 뜻하는 음악으로 농경이나 어업이 산업의 전부였을 때 풍년과 풍어,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의 수단이기도 했다. 평택은

---

8) 칠원동 새말 일부 주민들은 덕암산이 아닌 ‘이산매산’이라고도 전한다.



1910년대 평택장

특히 농업과 어업이 발달해 항상 기원이 필요했으며 이 때문에 무속음악인 굽음악이 왕성했다. 이 같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지영희의 ‘지문일가’와 방용현의 ‘방문일가’를 비롯해 많은 기악가들이 활동해왔다.

해금산조와 피리 시나위의 명인으로 악기, 소리, 춤 등에 두루 능했던 지영희(1908~1979년)는 서해 바다에 접한 포승읍 내기리의 전통적 세습무(世襲巫) 집 안에서 태어났다. 지영희는 예인(藝人)으로서 연주, 교육, 지휘 등 민속음악 분

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며 경기 지방의 무속 가락을 근간으로 한 그의 음악은 ‘지영희류 해금산조’와 ‘경기 대풍류’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영희는 평생 동안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10세 때부터 승무, 겸무 등 여러 춤을 배우기 시작해 20세부터는 호적과 양금, 단소, 통소를 배웠다. 23세부터는 지용구에게서 해금, 풍류시나위를 전수받고, 양경원에게 피리 삼현육각과 시나위를 배웠다. 그리고 대금 시나위, 무악장단, 경기 서도 소리를 전수받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대가들에게 전수 받은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토대로 국악예술학교(현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초대 지휘자로 활동했다. 무엇보다도 지영희의 가장 큰 업적은 국악이 피아노와 국악오케스트라로 연주되고 오선보에 그려졌으며, 교실에서 아이들의 입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는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예능보유자로 지정됐으며, 그의 아내 성금연(成錦鳶)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의 예능보유자이다.

포승읍 서해 바닷가 마을에 지영희 가문의 전통음악 ‘지문일가’가 있었다면 평택 땅동 쪽 이충동에는 방용현을 중심으로 한 ‘방문일가’의 예술혼이 서려있다.



조선풍속 남사당 놀이패

이충동 동령마을 출신으로 이 마을에서 무속의 악사로 종사하던 방용현(1868~?년)은 당시 무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빼저린 한을 품고 서울로 이주해 대금 시나위에 열중했다.

방용현은 1933년경 만들어진 ‘조선음률협회’의 정회원으로 라디오 방송과 무대 공연에 출연하는가 하면 음반 취입을 하는 기회도 만들었고 굿청에 가서 대금을 연주하기도 했다. 서울 진출은 남들보다 늦은 감이 있으나 그의 피에 흐르는 예술적 혼은 후대에도 이어져 경기도도당굿의 마지막 시나위 연주자인 방돌근이 그의 손자이며, 증손녀의 딸도 한영숙류 춤을 전수해오고 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경기시나위의 맥을 이었던 방돌근(1941~2001년)은 동령제 시나위의 창시자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할아버지 방용현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경기시나위는 경기도도당굿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데 이는 경기도도당굿의 모든 반주 음악이 경기시나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사나위는 방돌근이 이끈 남양제와 방용현의 동령제, 지영희의 안산제, 그리고 광주제로 나뉜다. 현재 경기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남양제는 방돌근에 의해, 동령제는 방돌근의 할아버지인 방용현이 창시자로 전승돼 왔으며, 안산제는 지영희가 창시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다.

청북읍에서 태어난 김부억쇠(1900년대)는 대금 시나위의 명인으로 목구성이 우렁차고 굵을 하는 사설이 다른 이들보다도 풍부하여 높은 기량을 자랑했다. 그의 제자로는 경기도도당굿 마지막 선학습꾼으로 불리는 이용우(1899~1987년)가 있다.

웃다리풍물을 대표하는 농악이 바로 ‘평택농악’이지만 평택농악의 근원에 남사당이 있고 평택이 남사당패를 흥하게 한 단초가 됐던 고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출신 유준홍(柳俊弘)은 전국 5대 놀이패인 진위패를 육성했다. 또 그의 아들 유세기(柳世基, 1893~1985년)는 농악과 시조 등에 조예가 깊은 인물로 그가 풍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부친 유준홍의 영향 때문

이었다. 유세기의 부친 유준홍은 진위현 관아의 아전이면서 솔을 만들어 파는 솔전을 대대적으로 경영했다. 그는 전국에서 농악에 소질 있는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불러 모아 평소에 농악을 연마시켜서 조선 고종 4년(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되자 경복궁 건축 위안공연에 농악대를 이끌고 참여해 대원군으로부터 ‘진위군대도방권농지기’라는 농기[都大房旗]와 3색의 어깨띠를 하사받았다. 상쇠 김덕일에게는 ‘오위장(五衛將)’이란 벼슬을 내려주었는데 그만큼 당시 진위남사당은 웃다리풀물을 대표할만한 실력이 있었고, 전국에서도 유명한 존재였다.

국가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이 무동놀이 등 사당패의 연희성과 두레굿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남사당 진위패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초대 한국농악협회장을 지낸 유세기는 1957년 《원형 시조 창법》이란 책을 내 지금도 후학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서정동 출신인 송창선(1911~1984년)은 어려서부터 농악을 익혔고, 30세 때 호적의 대가 방태진(房泰珍)에게 배워 호적의 명인이 됐다. 1940년대 중반부터 호적잽이로 남사당패에서 연주해 1964년 남사당의 꼭두각시놀음이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될 때 남운용과 함께 예능보유자가 됐다. 그는 경기 능계가락을 비롯해 남도 시나위가락 등 각 지방의 호적가락에 능했으며, 제자로는 김재원(金在元)과 7살에 남사당에 입단해 그에게서 호적을 배운 사물놀이의 명인 김덕수 등이 있다.

사당패와 두레농악의 두 가지 특징을 조화롭게 갖춘 평택농악은 국창 이동백과



평택농악 판굿 당산벌립을 하는 최은창

초대 한국농악협회장 유세기, 농악인 최은창에 의해 재현됐다.

평택농악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최은창(1914~2002년)은 팽성읍 원정리에서 태어난 직후 평택농악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팽성읍 평궁리로 이주해 살았다. 어린 시절부터 특출하게 귀가 밝았던 그는 스스로 예능적 기질을 키워나갔다.

최은창은 마을 등기래패(두레패) 상쇠에게서 팽과리를 배웠으며 성인이 되면서 마을단위를 벗어나 촌걸립을 하는 전문연희패에 가담하게 되고, 절걸립패에도 몸을 담았다가 나중에는 독립하여 직접 절걸립 행중을 꾸려서 활동을 하였다. 그러면서 장고잽이와 비나리꾼, 쇠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활동하던 최은창은 1980년 평택군의 요청으로 농악 단을 꾸려 경기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1985년 평택농악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을 이끌었고 이후 20여년 가까이 평택농악을 체계화시키는데 공헌해왔다.

최은창과 함께 평택농악을 이끌어 온 이돌천(1919~1994년)은 천안에서 태어나 남운룡농악단, 민속극회 남사당의 법고수로 활동했다. 1980년 평택농악을 공식 결성할 때 합류해 상법고로 활동했으며, 이를 계기로 1985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법고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아 10여 년간 활동해왔다.

현재 평택농악의 유일한 예능보유자인 김용래(1941~년)는 고향인 천안의 시골 장터에서 벌어지는 난장을 보면서 자라 12세에 무동으로 농악에 입문했다. 집안의 4대 독자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농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그러다 평택농악의 명인 최은창을 만난 것을 계기로 농악에 깊숙이 빠지게 됐다. 당시 서울남사당에서 활동하던 최은창이 그를 불러들이면서 평택농악과 인연을 맺었으며, 16세부터는 이돌천으로부터 법고를, 최은창으로부터는 쇠가락을 배웠다. 평택농악에서 당대 최고의 법고잽이로 명성을 날렸으며, 평택농악의 사라진 무동놀이를 복원하는데도 앞장서 지금과 같은 원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

여했다. 2000년 7월 예능보유자로 지정 받았으며, 수많은 국내외 공연을 통해 평택농악을 세계화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2009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평택민요는 평택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논매는 소리 ‘농요’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어업요’, 상여 소리인 ‘장례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농요의 이민조(1935~년)는 25대째 포승읍 방림리에 거주하면서 10살 때부터 마을 풍물을 배우기 시작했고 평택농악과 남사당에 합류해 법고, 팽과리, 열두발 상모, 태평소 등을 고루 익혔다. 성년이 되어서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포승지역에 전해오는 지경 다지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받음 소리’로 시작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메기는 소리(선소리)’를 할 정도로 배우는 실력이 뛰어났다.

어업요의 이종구(1923~2014년)는 현덕면 신왕1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갯가소리를 배웠다. 장례요의 박용철(1929~2010년)은 포승읍 홍원2리에서 태어나 가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마을 어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민요를 따라 듣고 배웠으며, 집안과 마을 어른들로부터 상여 소리, 회단이 소리, 모내기 소리 등을 전수받았다.

평택은 질박한 서민의 정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을 껴안을 줄 알았고, 그들이 터를 잡아 생활하도록 배려할 줄 아는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는 고장이다. 이러한 토양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평택의 전통 예술이 뿌리내리고 번성하는 자양분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특히 평택농악은 2014년 11월 27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인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공동체문화의 콘텐츠가 됐다. 이를 계기로 평택은 전통예술의 뿌리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예술의 시발지로 세계 음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 평택의 전통 예술



웃다리 평택농악 두레굿 길놀이



## II. 평택의 예인 藝人

1. 소리
2. 기악(器樂)
3. 농악(農樂)

## II. 평택의 예인 藝人

### 1. 소리

#### 1) 평택의 명창(名唱)

##### (1) 모홍갑(牟興甲)

조선말 순조 때 소리의 임금이란 뜻으로 가왕(歌王)<sup>9)</sup>이라 일컬어진 송홍록, 적벽강 불 지르는 대목을 부르면 소리판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는 방만춘, 자룡(子龍)이 활 쏘는 대목을 부르면 신출귀몰한 솜씨를 보였다는 주덕기, 이런 천하를 주름잡던 명창들도 ‘적벽가’라면 그의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는 대단한 명창이 바로 모홍갑<sup>10)</sup>이다.

모홍갑은 순조~현종~철종 때 권삼득·송홍록·염계달 등과 함께 19세기 전기 8명창<sup>11)</sup>으로 이름을 떨쳤다.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지만 송홍록(宋興祿, 1801~1863년)보다 2~3살 어리다는 것<sup>12)</sup>으로 보아 1803년(순조 3년) 태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9) 모홍갑 명창이 전주 신청(神廳)에 후배들을 불러놓고 송홍록을 ‘가왕(歌王)’으로 추대하는 봉대식(奉戴式)을 거행했다.

10) 이보형, 「적벽가의 명창 모홍갑」, 『판소리연구』 제5권, 서광학술자료사, 1994.

11) 19세기 전기 8명창으로는 모홍갑, 권삼득, 송홍록, 염계달, 고수관, 신만엽, 박유전, 김제철 등을 일컫는다.

1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평양감사 환영연도(일명 평양도)〉에 등장하는 명창 모홍갑,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하지만 송홍록이 모홍갑, 신만엽, 김덕선 과거급제 행렬에 참여했다<sup>13)</sup>는 점으로 보아서는 송홍록보다 앞선 1776년(영조 52년)에서 1796년(정조 2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명창 모홍갑은 경기 진위(振威)와 죽산, 전북 김제와 전주 출생설이 있지만 진위 태생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sup>15)</sup> 만년(晚年)은 송홍록의 고향 인근인 전주 난

13) 전경욱,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송홍록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 명창으로 유명했으며, 1796년에 모홍갑(牟興甲), 신만엽(申萬葉)과 함께 김덕선의 신래(新來) 행렬에 쌍화동을 섰다. 이후 철종으로부터 통정대부(通政大夫) 벼슬을 제수 받았으며, 선배인 모홍갑은 그의 빼어난 기예에 탄복해 그를 ‘가왕(歌王)’이라 칭했다”

14) 이보형, 「적벽가의 명창 모홍갑」, 『판소리연구』 제5권, 서광학술자료사, 1994.

15)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출판부, 1940.

전면 귀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내다 80여 세까지 향수하였다.<sup>16)</sup> 모홍갑 명창이 경기도 출신이라는 것은 그의 유일한 더늠으로 전해지는 〈춘향가〉 중 이별가에서 ‘날 다려가오’하는 대목의 선율이 경기민요조인 경드름(京調)<sup>17)</sup>의 일종인 ‘강산제’라는 조(調)로 되어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sup>18)</sup>

소리 스승이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모홍갑은 ‘고동상성(鼓動上聲)’이라 하여 높은 소리를 잘 질러내 후세사람들이 ‘설상(雪上)에 진저리치듯’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가창에 있어 천부적인 재질을 타고 났으며, 성음이 월등하게 청미하였다고 한다.

모홍갑은 소리를 배우기 위해 12살에 입산해 10년 공부를 마치고 대성한 명창이다. 모홍갑이 가장 잘 부른 판소리는 ‘적벽가’였고 ‘적벽가’만은 어느 누구도 모홍갑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당대의 독보적 존재라고 평한다. 이 ‘적벽가’는 중국의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을 주로 엮은 것인데, ‘적벽가’는 서장, 도원결의, 삼고초려, 공명출려, 공명의 지혜, 동남풍 빌고, 적벽대전, 조조의 신세, 화용도, 관우의 관용 등 열 대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 2006년 우표로 발행된 〈평양감사 환영연도〉

그가 활약하던 19세기 전반에 이르면 양반층이 판소리의 주요 관객으로 등장하면서 양반들의 축하연은 물론이고 임금 앞에서 판소리를 부르는 일이 일반화되던 때였다. 1847년(현종 13년)에 그의 명성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당시 영의정 김좌근의 부름을 받고 현종 앞에서 ‘적벽가’중 ‘장판교 대

16)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사, 2012.

17) 모홍갑, 염계달, 고수관 등이 경기지역 민속음악어법을 판소리화한 악조를 말한다.

18) 이보형, 「적벽가의 명창 모홍갑」, 『판소리연구』 제5권, 서광학술자료사, 1994.

목’을 불렸다. 지금도 소리꾼들이 이 대목을 부를 때는 반드시 ‘모홍갑 더늠’이라고 밝힐 정도로 유명한데, 그의 완숙한 기량에 현종을 위시해 삼정승 육판서 이하 어전에 나열한 조신들은 지위와 체면을 잊어버리고 흥분하여 탄성을 울리면서 그의 판소리에 열광하였다고 한다.

현종은 그 기량을 높이 여겨 비록 이름뿐이긴 하지만 중추부에 속한 종이품 벼슬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의 벼슬을 제수 하였다. 이처럼 임금이 소리꾼을 총애해 벼슬을 제수 받은 어전명창은 모홍갑이 처음이었다.<sup>19)</sup> 이후 모홍갑은 공경대부들의 부름을 받아 명성을 쌓았고, 보수도 수만냥을 벌었다고 전한다.

특히 흥선대원군과 고종, 민비는 유난히 판소리를 좋아하여 궁중에서 밤새 판을 벌이기 일쑤였으며 모홍갑을 두보(杜甫)라 평한 신재효에게 벼슬을 내려주어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힘입어 판소리는 전국으로 퍼져 나가 19세기 중반 이후 위로는 임금, 아래로는 천민까지 폭넓게 즐기게 되었다.

판소리 마당은 고즈넉한 정자나 공터, 대갓집 마당, 대청이나 사랑방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대가 되었다. 판소리 공연은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의사가 소통되는 열린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임금부터 고관대작, 양반이나 천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소리꾼의 아니리와 고수의 추임새에 맞추어 나름의 추임새를 넣어 흥을 돋운다. 그래서 판소리는 위로는 임금, 아래로는 천민까지 모두 즐기는 우리의 소리인 것이다.

판소리의 음악 갈래가 형성되던 조선시대 숙종 무렵에는 춘향가(春香歌), 심청가(沈清歌), 수궁가(水宮歌), 흥보가(興甫歌), 적벽가(赤壁歌), 배비장타령(裴婢將打令), 변강쇠타령, 장끼타령, 옹고집타령, 무속이타령, 강릉매화타령(江陵梅花打令), 가짜신선타령 등 열두 마당이었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 소재의 판소리는 점차 불리지 않게 되었다. 대신 충, 효, 의리, 정절 등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수궁

---

19) 전경욱,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가, 흥보가 등의 판소리 다섯 마당이 보다 예술적으로 가다듬어진 완전한 형태의 예술 음악으로 정착되었다.

판소리 다섯 마당이 오늘날처럼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명창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판소리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남긴 영·정조 무렵의 우춘대(禹春大)와 하한담(河漢潭)을 비롯하여 순조~철종 때에 활약한 모홍갑(牟興甲), 권삼득(權三得), 송홍록(宋興祿), 염계달(廉季達), 박유전(朴裕全) 등의 여덟 명창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판소리 더듬<sup>20)</sup>을 개발하고 각기 고유한 창법으로 소리를 연마하여 판소리의 음악적 표현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다.

모홍갑은 현종 때 평양감사 김병학의 초청으로 평양 대동강가 연광정(練光亭)에서 소리를 할 당시 덤미소리를 질러내어 그 소리가 10리 밖까지 들렸다고 전해져 당시의 공연이 세간에서도 매우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판소리 연희 장면인 <평양감사 환영연도(일명 평양도)>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0폭 병풍 중에는 모홍갑이 평양감사의 초청으로 대동강 옆으로 흐르는 능라도 연회장에서 양반들에게 둘러싸여 소리하는 장면이 있다. 평양감사는 숲 속에 자리를 깔고 앉았으며, 그 좌우로 선비들이 들어앉거나 섰다. 한가운데서 당대 명창 모홍갑이 부채[선자·扇子]를 펴 들고 고수와 마주하여 창을 하고 있다. 그림 왼쪽에는 ‘명창 모홍갑(名唱 牟興甲)’이라는 기록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이를 ‘모홍갑 판소리도’라 부르기도 한다.<sup>21)</sup>

모홍갑은 ‘적벽가’와 ‘춘향가’를 잘 불렀고, 당시 ‘적벽가’로는 그를 당할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의 더듬[제·制]으로 전해지고 있는 ‘춘향가’의 ‘이별가’ 중 ‘날 데려 가오’하는 대목은 높은 소리를 계속 질러내는 그의 특징적인 고동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중에 판소리는 방안의 청중을 위해 부르는 ‘방안소리’로 바뀌게 되었지만, 모

20) 판소리 창자 개인이 사설과 음악 등을 새롭게 짜 넣은 소리 대목 혹은 특정 창자가 다른 창자들에 비해 월등히 잘 부르는 소리 대목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명 제(制)라고 한다.

21) 전경옥,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평양감사향연도 가운데 ‘월야선유도’

홍갑 명창이 활동하던 때만 해도 야외에서 우람하게 질러내는 ‘마당소리’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특히 그의 우람한 목소리는 장점이 되었던 것이다.

만년(晚年) 전주부(全州府)의 누정에서 있었던 명창 모홍갑과 그의 수행고수(隨行鼓手)였던 명창 주덕기(朱德基) 사이의 일화도 유명하다. 한때 송흥록(宋興祿)과 모홍갑의 고수였던 주덕기가 전주에 있는 다가정(多佳亭)에서 자신의 판소리 공연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청중들에게 모홍갑과 송흥록에 대해 “모홍갑은 부족쾌론(不足掛論)이요, 송흥록도 유부족양시(猶不足仰視)”라고 자찬하자, 이 소리를 청중 속에서 엿듣던 모홍갑이 “나는 부족론(不足論)이로되 송흥록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가이요 가왕(歌王)의 칭호까지 받은 명창이어늘 주덕기는 참으로 무례막심(無禮莫甚)하다”라고 꾸짖고 춘향가 중 이별가(離別歌)를 장쾌하게 부른 후 주덕기에게 한 번 방창(倣唱)하여 그 승점(勝點)을 표시하라고 했더니, 주덕기는 감히 모홍갑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크게 부끄러워하며 좌중 앞에 사죄했다고 한다.<sup>22)</sup> 19세기 전기 8명창 모홍갑의 수행고수에서 뒤늦게 명창의 반열에 오

22) 전경욱,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른 주덕기가 오만함을 딛고 일어선 것 또한 그의 음악적 바탕이 된 모홍갑과 그의 충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판소리 공연 때 북 반주를 하는 고수의 중요성은 “첫째가 고수이고, 둘째는 명창이다”라는 ‘일고수이명창 · 一鼓手二名唱’ 또는 “수컷이 고수이고, 암컷이 명창이다”라는 ‘옹고수자명창 · 雄鼓手雌名唱’이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고수는 단순히 판소리 창자의 북 반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노래 부르는 도중 적절한 곳에 추임새를 넣어줌으로써 창가를 격려해 주기도 할 뿐 아니라, 판소리 창자가 아니리를 구사할 때는 상대역을 맡아 수행하기도 한다. 모홍갑의 고수 주덕기, 송홍록의 고수이자 동생 송광록은 고수로 시작해 명창에 이른 인물이다.

이른 시기의 판소리 명창 중에서 모홍갑은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소리꾼 중의 한 사람이다.

모홍갑에 대한 기록은 송만재(宋晚載, 1788~1851년)의 〈관우희(觀優戲)〉에서 잘 나타난다. 〈관우희〉 제49수에는 모홍갑, 우춘대, 권삼득 등 판소리 명창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었는데 “한 곡조 뽑으면 술잔 앞에 천 필의 비단[一曲樽前千段錦], 권삼득, 모홍갑이 어릴 적부터 이름 날렸지[權三牟甲少年名]”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1826년(순조 26년) 신위가 지은 〈관극시〉는 칠언절구로 모두 12수인데 작자의 문집 《경수당전고》 권34에 수록되어 있다. ‘춘향가’를 연행하는 창자의 모습과 이것을 보는 관중들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단순히 연희모습을 표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작자 나름대로 소화시켜 치밀하게 구성한 특징이 있다. 제1수는 전체의 도입부로 본격적인 연희가 벌어지기 전 구경꾼들이 모이는 광경을 묘사했다. 제2수는 구경꾼 중 남녀간의 애틋한 정을, 제3수에서는 판소리를 시작하기 전 목을 풀기 위해 단가를 부르는 창자의 모습을, 제4수는 〈춘향가〉에 대한 당시 청중들의 반응을, 제5수는 당대 명창인 모홍갑(牟興甲), 고수관(高壽寬), 송홍록(宋興祿), 염계달(廉季達), 김용운(金龍雲)에 대해 묘사했다.

‘귀곡성(鬼哭聲)’을 잘 구사하기로 이름난 송홍록 명창은 안성판 ‘춘향가’에서 “당시 명창 누구런고. 모홍갑이 ‘적벽가’며 송홍록이 ‘귀곡성’과 주덕기 ‘심청가’를 한창 이리 노닐 적에”라는 구절로 당대의 ‘적벽가’ 최고 명창으로 모홍갑을 꼽았다.<sup>23)</sup>

윤달선의 《광한루악부(廣寒樓樂府)》,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 이건장의 《이관잡지》, 신재효의 《광대가》등에도 모홍갑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춘향가’나 ‘무숙이타령’등에도 모홍갑의 이름이 등장한다. 기록이 많아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홍갑이라는 명창이 당대에 명성을 떨쳤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18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판소리 가사를 정리한 신재효(申在孝, 1812~1884년)도 《광대가(廣大歌)》에서 “모동지 흥갑이는 관산만리(關山萬里) 초목추성(草木秋聲) 청천만리(青天萬里) 학(鶴) 울음 시중성인(詩中聖人) 두자미(杜子美)”라는 표현으로 모홍갑 명창을 청천만리에 울려 퍼지는 학 울음소리라며 두보(杜甫, 712~770년)의 아름다움에 비유했다. 학의 울음소리가 바로 고동상성(鼓動上聲)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목을 강산제(江山制)라고 하는데 박유전(朴裕全)의 강산제와 구별하기 위해 ‘동강산제 · 東江山制’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말년에 이가 빠져 소리를 입술로 조정하여 불렀다고 한다. 이것이 그의 독특한 ‘순음(脣音) 더듬’으로 후대의 주덕기(朱德基)에 의해서 방창(彷唱)되어 세상에 퍼졌다.

당시 세인들이 그의 소리를 ‘설상에 진저리친 듯’이라 평한 것도 그의 이러한 창법과 무관하지 않다. ‘설상에 진저리친 듯’이라는 표현은 ‘눈 위[설상 · 雪上]에서 몸서리치는 모양’ 또는 ‘혓바닥[설상 · 舌狀]이 몸서리치는 모양’으로 표현된다.

높은 소리를 계속 질러내는 ‘고동상성’ 또한 그의 특징적인 창법이다. 한번 내지를 덜미소리가 10리 밖까지 퍼졌다는 일화를 함께 고려할 때, 그가 매우 풍부

---

23) 전경욱,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14.

하고 웅장한 성량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덕기가 방창해 널리 전한 모홍갑의 이별가 더듬 ‘날 다려가오’는 특별히 동강산제(東江山制)라 명명되기도 한다. 본래 경기민요(京畿民謡)의 음악적 특징을 나타내는 경조(京調)의 한 갈래인 동강산제는 명창 모홍갑(牟興甲)의 소리제에 듈다.

이화중선(李花中仙, 1899~1943년)이 1936년에 녹음한 ‘춘향가’ 중 ‘이별가’ 축 음기 음반 음원[Taihei C8267-A 南道소리 八名唱制(上) 李花中仙 伴奏李化成]에도 이 대목이 ‘모홍갑의 더듬’이라는 설명으로 곡 앞에 삽입되어 있다. 이것이 그의 독특한 순음(脣音)<sup>24)</sup> 더듬으로 후대의 주덕기(朱德基)에 의해서 방창(倣唱)되어 세상에 퍼졌다.

모홍갑의 더듬은 춘향가 중 ‘이별가’인데, 이 곡조가 특이하여 강산조라고도 한다. 판소리 명창들에 의하여 노랫말과 소리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져 이루어진 판소리 대목이 바로 더듬 또는 제(制)이다.

여보 도련님, 여보 도련님 날 다려가오. 날 다려가오. 나를 어찌고 가려고  
하시오.

## (2) 이동백(李東伯)

20세기 판소리 근대 5명창 중 한 사람이며 ‘새타령’과 ‘백발가’에 능했던 중고제 판소리의 마지막 계승자인 이동백(1866~1950년)은 1866년 2월 3일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庇仁面)에서 출생했다. 본명은 이종기(李鍾琦), 아명은 동백(東伯)으로 그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인 1865년 10월 부친이 작고하고 편모슬하에서 궁핍

---

24) 소리를 입술로 조정하여 부르는 입술소리를 말한다.

하게 자라다 큰아버지에게서 양육되기도 하였다.

그의 가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그의 6촌 여동생이 무속인으로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서 행해져온 ‘은산별신굿’ 예능보유자인 이어린년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가계는 창우집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백 명창이 무속 음악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음악에 대한 조기학습이 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백은 여덟 살 무렵에 서당에 들어가 한문 공부를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글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났던 그는 13세 때 부인 박씨와 결혼 한 후 15세에 큰아버지 댁에서 나와 흘어머니를 모시고 지냈다. 어려운 살림에 흘어머니를 모시는 처지였으므로 소리를 향한 그의 집념이 불효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으나 결국 결심을 굳히고 15세에 소리 공부의 길로 들어섰다.

15세 때 최상준과 중고제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김성옥의 아들 김정근(金正根)을 찾아가 소리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김세종(金世宗)에게 5년간 공부하였다. 또한 서편제의 시조로 알려진 박유전의 제자인 이날치(1820~1892년)에게서도 소리 공부를 하였다. 20세 전후에는 서천군 종천면(鐘川面) 호리산<sup>25)</sup> 용구(龍口)에서 2년간 독공(獨工)하였고, 다시 진주 이곡사(里谷寺)에 들어가 3년간 공부하였다.



이동백(1866~1950년)

처음에는 집안사람도 모르게 조석을 떠먹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하니 처음에는 목이 쉬어 소리는 나오지 않고 혼자서 장단 치는 소리만 탁탁 들려오다가도 자정쯤 되면 목구멍에서 실낱같이 살아 나오는 소리가 어찌나 구성지고 슬펐던지 그 목청으로 춘향전 ‘이별가’나 심청이 ‘부친 이별하는 대목’

25) 현재는 희이산(327m)이라고 부른다.

에 이르면 내 소리에 내가 감동해서 울면서 소리를 했다. 지쳐 그대로 고꾸라지면 꿈속에 이날치, 김세종, 정춘풍 같은 명창이 나타나 그들이 먼저 한바탕 씩 소리를 하고 너도 이렇게 하라는 바람에 소스라쳐 잠을 깼다. 그리고 꿈에서 시기던 대로하면 꿈에서 들던 것과 영락없이 같이하게 되어 계속 반복하니 마음에 흡족해서 득음에 이를 수 있었다.<sup>26)</sup>



이동백 일대기 연재 기사(조선일보, 1939년)

이처럼 이동백은 중고제와 동편제, 서편제의 소리를 두루 섭렵하였다. 특히 중고제인 김정근의 소리를 가장 근본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를 중고제 명창으로 부른다.

집안의 반대로 어렵게 소리 공부를 한 이동백은 25살 무렵부터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일대에서 음악 활동을 하며 점차 명성을 얻게 되었다. 창원에 머물던 때인 1891년 창원부사 앞에서 ‘새타령’을 불렀는데 이로 인해 단번에 명성을 얻게 되었고, 경상도관찰사 이지용은 이동백의 천부적 소리를 인정하여 그의 후견인 노릇을 하였다.

이동백은 37살 경인 1902년에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원각사에서 소리하면서 서울 무대를 장악했는데, 김창환, 송만갑

26) 「이동백 일대기」, 『조선일보』, 1939. 3. 21.

등과 창극운동에 참여하였고, 이때 선배 명창 김창환의 주선으로 어전(御殿)에서 여러 차례 소리를 하였다. 이동백에 대한 고종의 총애는 대단했는데, 이동백의 소리를 듣기 위해 원각사의 소리 공연에 전화선을 대고 그의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고 한다. 이때 이동백은 고종에게서 당상관(堂上官) 벼슬인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제수 받게 된다.

고종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동백을 대궐로 불러 들였다. 고종과 관련한 일화도 남아있다. 고종 앞에서 소리를 하면서 ‘천리강산’을 길게 뽑아서 창을 하자 고종이 “너는 어째서 그다지 길게 창을 하느냐?”고 묻자 “천 리를 가려면 얼마나 길이 멀겠습니까?”하고 답하니, 고종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너는 진정한 명창이로구나!”했다고 한다.

1906년 일제에 의하여 원각사가 폐쇄된 후, 1908년 송만갑의 협률사에 참여하고 삼남(三南) 일대를 순회공연하면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게 된다. 1908년 9월에 이동백은 미국 빅타음반에서 SP음반으로 ‘적벽가’ 중 ‘조조가 비는데’와 ‘심청가’ 중 ‘심청이 자탄하는데’를 녹음하는데 이는 김창환, 김봉이 등과 함께 판소리 음반으로는 최초의 것이 된다.

1908년 첫 음반 녹음이후 일축조선소리방, NIPPONOPHONE, Victor, Columbia 등에서 수많은 음반을 녹음하였다. 특히 일축조선소리방에서의 ‘춘향가’ 녹음은 앞 대목부터 순차적으로 상당 부분이 녹음되었는데, 이들 녹음 자료에 의해 이동백의 춘향가 한바탕을 대략적으로나마 정리해 볼 수 있다.

또한 창극 음반도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의 세 바탕을 남겼는데. 1926년 일축조선소리방에서 김추월, 신금홍과 ‘춘향가’를, 1935년 Polydor에서 김창룡, 임소향과 ‘적벽가’를 녹음하였다.

1915년에는 경성구파배우조합(京城舊派俳優組合)이 설립되었는데 설립초기



부터 이동백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성구파배우조합은 극장에 대한 경험에 있었던 남녀 음악가들로 조직되었고, 이동백(李東伯), 김창환(金昌煥), 김인호(金仁浩), 김봉이(金奉伊)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창극을 중심으로 하는 남도 음악 결속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동백은 1915년 이후부터 이 집단의 선생 역을 맡으면서 나머지 구성원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었다. 이 무렵 전후로 서울의 연홍사, 장안사 두 극장 등에서 창극조가 매일 연행되었지만 영화와 신파극이 대중적 인기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창극조는 점차 무대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배우조합은 지속되지 못하였고, 여기에 속했던 음악가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1927년 경성방송국이 개국된 이후에는 방송 활동까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판소리 대중화에 앞장섰다. 이동백은 판소리 발전과 후진 양성에도 큰 뜻을 갖고 있었다. 이에 1934년에는 송만갑, 김창룡, 정정렬 등과 함께 ‘조선성악연구회’를 발족하게 된다. 평소부터도 판소리의 근본을 귀하게 생각했던 그는 이사장직도 역임하면서 이 연구회를 통해 판소리의 근본을 다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동백, 김창환, 송만갑, 김창룡, 정정렬 등으로 소위 근대 5명창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근대 5명창 중에서도 당대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명창이 바로 이동백이다. 이동백은 수려한 외모와 함께 타고난 천구성과 뛰어난 너름새로 20세기 전반 음악계 전체를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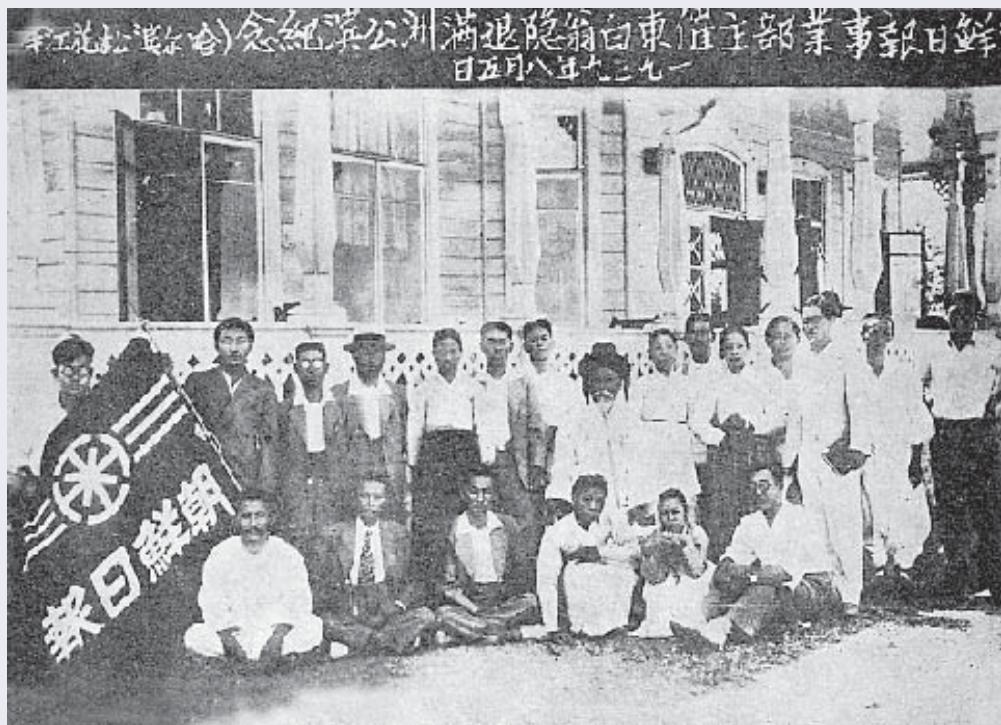
19세기에 판소리의 후원자로 이름 높았던 신재효는 광대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요건으로 “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 치례, 둘째는 사설 치례, 그 지차 득 음이오, 그 지차 너름새라.”라고 명시했다.

이동백은 이와 같은 광대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이였다. 사내다운 훈칠한 키에 건장한 몸집, 잘생긴 이목구비, 귀태가 넘치는 자태를 갖추었으며, 거기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음과 기품 있는 너름새를 갖춘 인물이었던 것이다.

박황의 『판소리 소사』에서는 이동백의 외모와 소리의 품새를 기렸다.



이동백 은퇴기념공연 기사(조선일보, 1939년 3월 15일)



이동백 은퇴기념만주공연 기념사진(1939년 8월 5일)

사내답게 후리후리한 키에 건장한 몸집, 흄이나 거친 데가 없이 미끈하게 빠진 이목구비, 늠름하고 대가 바르면서도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 점잖고 엄숙하면서 친밀감을 주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비한 매력, 어떤 옷을 입든지 몸에서 어울리고 멋과 귀태가 넘쳐흐르는 자태는 보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거기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 일컬을 만큼 선천적으로 타고난 맑고 아름다운 성음으로 구성, 발림, 너름새의 삼합이 조화되어 듣는 사람의 넋을 잊게 하는 것이다.

1902년 서울에 올라온 이후 근 40년간을 활발하게 활동하던 이동백은 후진들을 위해 은퇴를 결심하고 1939년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경성부민관에서 ‘은퇴 기념 연주회’를 가졌다. 이동백의 은퇴기념 연주회는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많은 명창들이 이동백의 은퇴 공연에 함께 출연하였다. 은퇴공연 때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두 달 동안이나 국내는 물론 만주, 연해주 일대까지 순회공연을 계속하였다.

1939년 은퇴 직후 평택시 칠원동 새말에 집을 장만하여 만년을 지냈다. 이동백이 평택에 정착한 이유는 만년에 얻은 부인이 평택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sup>27)</sup>

1940년 박록주 등의 후배 소리꾼들의 간청으로 다시 일선에 나와 활동하기도 했으나, 이전처럼 활발한 활동은 아니었다. 그는 평택 자택에서 머물다가 1950년 6월 6일 85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우리가 가진 국보적 존재로 성악계 국창의 유일한 1위를 차지하던 이동백옹(李東伯翁)이 80세<sup>28)</sup>라는 노령으로 지난 6일 평택군 송탄면(松炭面) 자택에서 영면하였다는 부고가 있었는데 이는 실로 우리 국악계의 최대의 손실로서 애통하여 마지않는 바인데 옹은 일찍이 전북 순창(淳昌) 김세종(金世鍾)

씨 문하생으로 공부하다가 그 후 입산하여 토굴(土窟)에 들어 3년 동안이나 국창을 독공하였다 하며 40세 때에는 국창(國唱)이 되어 구한국에서 통정대부(通政大夫)라는 벼슬까지 받았었고 해방 전 <조선일보> 주최의 은퇴 공연을 마지막으로 평택에서 정양하고 있었는데 옹은 해방 후 조선성악연구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국악원 명예회원이었다.<sup>29)</sup>

만년(晚年)인 74세에 평택으로 거처를 옮겨 여생을 보낸 이동백 명창의 묘는 그의 집에서 동쪽 원곡면 내가천리 두리봉에 묻혔다가 땃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족과 후배 국악인들에 의해 화장됐다. 하지만 이동백 집터와 그의 흔적들은 칠원동 새말에 올곧이 남아있다.

어릴 적 이동백 명창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그에 대한 회상을 전한다.



1939년 이동백 은퇴 공연 기념사진

새말 경기명창 최종원 씨 집에 매일같이 찾아온 분이 이동백 명창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다. 수염이 허옇고 커다란 안경집을 차고, 지팡이 짚

27) 일부 칠원동 새말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부인은 안성시 양성면 반제리 사람으로 새말에는 고모가 살았다고도 한다.

28) 「이동백옹 영면」, 『조선일보』, 1950. 6. 9. 보도에 80세 영면 내용은 85세의 오보로 보인다.

29) 「이동백옹 영면」, 『조선일보』, 1950. 6. 9.



이동백이 칠원동 새말에서 지냈던 집이 있던 터(오른쪽 중간 청색 지붕의 창고)



이동백이 처음 안장됐던 뒷자리

고, 동그란 안경 쓰고 와서 최종원 명창 초가집 사랑방 뒷마루에서 소리를 했다. 우리는 거기서 턱 받치고 이동백 명창이 소리하는 것을 구경을 했다. 수염이 허옇고 갓 쓰고 오시면 신선 같았다. 최종원 명창은 이동백 명창과 나이가 비슷했는데 소리할 때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장단을 맞췄다. 여름에는 모시 바지저고리와 두루마기 입고, 겨울에는 하얀 솜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 입고 다니셨다. 처음에는 대단한 명창인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정3품까지 한 이동백 명창이었다. 타계해서는 긴 만장 행렬 속에 마을 동쪽 두리봉에 모셨는데 나중에 묘 자리가 안 좋다고 해서 팠는데 물이 많이 나와서 부인의 친정 조카들이 화장한 후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sup>30)</sup>

이동백 명창은 10여 년간 평택 칠원동 새말에서 지내면서 평택지역 농악을 재현하고 후학을 육성하는데도 기여를 했다.<sup>31)</sup> 평택에서 보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칠원동 인근의 덕암산에 올라 소리를 한 후 “이제 소리를 알만하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sup>32)</sup>

이동백이 판소리 다섯 마당 중 가장 좋아했던 것은 ‘심청가’였다. 소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심청가’를 들은 후에 그 내용에 감동하였기 때문이다.<sup>33)</sup>

이동백의 음악이 후대로 전승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첫째가 그가 부르는 중고제가 당시 유행과 거리가 있는 고풍스런 소리였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의 즉흥적인 창법 때문에 제자들이 그의 소리를 따라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sup>34)</sup>

이동백은 탁월한 성대에 아름다운 울림, 넓은 음역, 풍부하고 화려한 음향으로

30) 임석호(남, 73세), 칠원동 새말 주민, 평택향토사연구소 최치선 상임위원 면담, 2015. 10. 22.

31) 평택문화원, 『소사별』 장간호, 1984.

32) 최동현, 『판소리 명창론』, 2005.

33) 「회고담」, 『조광』, 1987년 3월호

34) 「장안 과객의 ‘팔도명창가곡평’」, 『삼천리』, 1934년 7월호

보기 드문 기량을 가진 명창이었다. 당대 송만갑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명창으로 “성음(聲音)이 극히 미려(美麗) 하거니와 각양각색(各樣各色)의 목청은 들을 때마다 청신(清新)한 느낌을 준다.”고 후세에 기록하고 있다.<sup>35)</sup>

이동백은 20세기 전반을 살다간 판소리 명창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판소리의 흐름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사람이다.<sup>36)</sup> 오늘날 그의 소리 인생의 의의를 되새겨보면 가장 큰 업적이 중고제 명인으로 20세기 전반까지 중고제의 명맥을 이었다는 것이다. 비록 그 소리가 당시 유행에서 도태되었고 즉흥적인 측면이 많아 현재까지 전승되지 못하였지만 중고제는 20세기 전반까지 판소리 영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하나의 독립적인 유파였다. 동편제와 서편제 소리보다 고졸(古拙)한 옛 스타일을 많이 간직한 소리로 그 소리들을 통해 20세기 이전의 판소리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유성기 음반을 통한 그의 소리 유음은 판소리 연구의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의 소리 인생의 의의는 공연집단인 ‘경성구파배우조합’이나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20세기 전반 판소리의 공연 문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은 여러 근대 문물의 도입으로 판소리가 상업화, 대중화되던 시기였고, 공연 형태에 있어서는 1인 입장의 판소리에서 창극으로 그 연행 형태가 변화하던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이동백은 그의 명성에 걸맞게 여러 단체들에서 활동하면서 판소리의 변화를 주도하였고,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35)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출판부, 1940년

3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2003년 3월호



평택민요 농요 새참 나누기

## 2) 평택지역 민요(民謡)의 유래와 전승

### (1) 기원(祈願) · 기복신앙(祈福信仰)과 평택

평택은 동북부지역에 일부 산맥이 형성되어 있지만 서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산은 없고 대단위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농사를 주로 지었다. 바다와 접한 서해안지역은 대규모 방조제와 항만이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포구를 중심으로 어업이 발달했다.



평택민요 농요 모내기

민요는 논 · 밭일이나 땔감을 할 때 그리고 고기잡이 때 부르는 노동요를 비롯해 상여소리나 회다지소리로 불리는 장례요, 당목과 우물 · 장독 · 부엌에서 하는 고사소리인 세시의식요, 물레나 베틀작업과 힘든 시집살이에 대한 푸념이나 아 이를 재울 때 여성들이 부르는 부녀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나 장시에서의 각설 이타령 등 유희요로 구분된다.

평택의 민요는 조홍 · 권면 · 인생무상 · 풍년기원 · 충효 · 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요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풍년을 기원하며 부르던 모내기 소리와 논

매기 소리, 풍어를 기원하는 노 젓는 소리와 그물 당기는 소리가 많이 전해진다. 또한 해학·풍자·놀림·유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가는 노동요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낸다.

특히 논·밭이 많이 분포한 평택 동북부지역과 중부지역은 농요가, 바닷가에 접한 서남부지역은 어업요가 발달했다. 이와는 별도로 세시풍습과 관련한 고사 소리는 두레농악과 걸립농악을 하면서 연행됐는데 태평성대, 농사풀이, 살풀이 등을 주로 불렀다.

평택지방 민요의 흐름은 노동요와 의식요 등에서 받는 소리가 필수적이다. 평택지역의 특수한 후렴으로는 논매기 소리의 ‘얼카덩어리’와 ‘홍개 방개가 논다’, 만가 중 ‘어거리 넘차 너호아’와 지경소리의 ‘이혀라 지장호’, 장례요의 ‘어히혀라 달공’ 등이며 대체로 반복되는 형식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 (2) 농요(農謡)

농요의 가장목적은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동작의 창출과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농작(農作)에 있어서 일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표현되는 소리이다. 농요는 거의 공동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창출되었으며, 특히 선창자(先唱者)의 기능에 따라 많은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농요는 모심기 소리, 논매는 소리, 소모는 소리, 김매기 소리, 타작 소리, 나비질 소리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소리마다 각기 독특한 선율과 사설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풍년의 기원, 신세타령, 가정의 안녕 기원, 정요(情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7)</sup>

김을 매거나 초벌매기에서 만물매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어졌던 두레소리는 협

---

37) 서태정, 「민요」, 『평택민속지』 상, 평택문화원, 2009.

동심을 일깨우고 힘을 북돋우는 소리로 널리 불려왔다. 4월부터 6월 사이에 불리던 노래로 농부·용두레·새참 내는 아줌마·소리꾼과 풍물패 등의 노래가 있다.

봄철, 목청 좋은 선소리꾼이 독창으로 ‘모내는 소리’를 선창으로 메기면 여러 사람들이 합창으로 후렴구를 받는데 물을 댄 논에 모춤을 흘어놓으면 농민들이 풍물 장단에 맞춰 들어와 일렬로 늘어서서 모를 심고 북잡이는 논에 들어어서 왔다 갔다 하며 북을 치게 된다.

모심기가 끝나고 벼가 자라면 논을 매는데 이때도 두레가 이뤄져 풍물과 농기·영기 등을 만들어 행진곡 삼아 부르며 논으로 간다. 논에 이르면 쇠잡이 몇 사람이 풍물가락을 치는 가운데 농민들은 느린 굿거리장단에 맞춰 소리를 한다. 보름 후 호미로 초벌을 맬 때 새참 아주머니들이 막걸리나 부침개·밥 등을 논으로 나오면 새참 먹은 뒤 쉬는 잠깐 사이에 자진모리로 시작되는 비단타령을 부르며 놀이를 한다. 또 보름 후 두별매기를 할 때도 선소리와 후렴구 제창은 이어지며 잠깐 쉬는 시간에는 작대기로 상여놀이를 하면서 힘든 일을 잊는다.

이로부터 보름 후에 하는 세별매기 때는 느린 동작으로 두 패로 나뉘어 기러기 모양으로 원형을 만들고 휘모리장단에 맞춰 ‘영차 영차’하며 두 손을 번쩍 들어 끝내기 신호를 한 후 춤을 추며 논다.

평택은 대부분의 지형이 구릉지나 평야이기 때문에 밭농사보다 논농사의 비중이 커 힘든 농사일을 흥으로 이어가기 위한 두레가 매우 발달했다.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마을에 두레가 하나씩은 있었다. 두레는 주로 김매기에 필요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행해졌으며, 농사의 풍요와 관련이 있는 각종 제의와 민속놀이 등에도 쓰였다. 이렇게 성행하던 두레는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농기계의 발달과 제초제 등의 사용으로 사람의 힘으로 행했던 농작업들 대신 경제적 효율성을 선택하면서부터 급속하게 사라지게 됐다.

평택에서 행해져온 ‘모심는 소리’는 평택민요 농요 보유자인 포승읍 방림리 이민조, 지산동 최인집, 포승읍 홍원1리 염수영·이상록, 진위면 봉남리 오문목·정

정덕, 서정동 정태진, 오성면 속성2리 이철승, 고덕면 두릉리 정유석, 고덕면 당현리 천백식, 청북읍 현곡리 박용무, 고덕면 동청리 김연후·최기원·심재욱·정유석 등에 의해 1980~90년대 채보되어 평택 전 지역에서 전해 내려왔다.

‘논맴 소리’는 평택농악 예능보유자였던 팽성읍 평궁리 최은창, 평택민요 농요 보유자인 포승읍 방림리 이민조, 현덕면 인광1리 박금환, 진위면 봉남리 정정덕·오문목, 포승읍 홍원리 박용철·전상은, 청북읍 어소리 서병달, 청북읍 현곡리 박용무, 고덕면 동청리 김연후, 중앙동 현기천·장봉국, 송북동 김주옹·장창교 등에 의해 1980~90년대 채보되어 전해 내려왔다. 현재는 평택민요보존회에서 평택시 서부지역에서 연행됐던 농요를 전승해오고 있다.

### (3) 어업요(漁業謠)

평택 어업요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전승되는 거의 유일한 어업요이며, 1995년 까지 경기도에 속했던 강화나 용진지역 어로요와는 음악적으로 구별된다.

평택의 어업요는 경기만을 따라 서해 포구를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주로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에서 행해져왔다. 포승읍 만호리는 평택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구로 충남 당진과 바다를 끼고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 큰나루의 역할도 함께 했다.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권관리, 대안리, 신왕리, 팽성읍 노양리는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숭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숭어 막살이가 성행했으며 임금에게 진상할 정도로 숭어가 유명했던 곳이다. 지금은 평택호방조제와 남양호방조제, 평택항 건설로 포구가 대부분 사라졌다.

평택 어로요는 고기잡이배가 바다로 나가는 과정부터 닻을 내리고 감을 때, 고기 잡을 때, 포구에 도착해 잡아온 생선을 달거나 생선을 사려는 사람들과 흥정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해안에서 특히 많이 불리던 닻 감는 소리는 배를 정박하거나 내렸던 닻을 위



평택민요 어업요 그물 올리기

로 감아올릴 때 부르는 소리로 간만의 차가 심해 선착장에 배를 댈 수 없는 서해 안에서 갯벌에다 배를 정박시키거나 바다로 출항하면서 부르던 노래다. 메기는 소리는 대체로 사설 적이거나 가락이 제법 들어있지만 받는 소리는 힘을 모으기 위한 단조롭고 짧은 가락으로 이뤄져 있다.

배치기는 만선으로 귀향하거나 풍어놀이를 할 때 부르는 소리로 다른 어업요에 비해 유희적 성격이 강하다. 북·장구·징 등의 반주악기가 곁들여지고 춤까지 동원되는데 이는 놀이를 위한 소리이기 때문에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모



두 자연스러운 가락으로 흐르며 일반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어렵고 고도로 승화된 예술적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어업요 가운데 ‘닻감는 소리’와 ‘돛다는 소리’ ‘바다질 소리’는 포승읍 만호리와 현덕면 대안리, 신왕리 등에서 행해졌는데 최근까지 평택민요 어업요 보유자였던 현덕면 신왕1리 이종구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며, 현재는 평택민요보존회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평택민요 장례요 상여 나가기

#### (4) 의식요(儀式謠)

의식요는 사람의 일생에 따르는 관혼상제(冠婚喪祭)와 일 년 동안 절후에 따르는 세시의식(歲時儀式)을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로 그 기능이 의식의 수행과 직결된다. 성격에 따라 세시의식요, 장례의식요, 신앙의식요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세시의식요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생활하는 가운데 재앙을 극복하고 다복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안택 노래, 서우풀이, 풍신제 노래, 농신제 노래, 달맞

이 노래와 같은 가정 의식요와 지신밟기, 고사반, 걸궁 노래, 서낭숙 노래, 기우제 노래, 뱃고사 노래, 용왕제 노래 등과 같은 마을 의식요가 있다. 평택에는 집을 지을 때 터를 다지는 지경소리와 지신밟기에 해당하는 고사반 같은 마을 의식요가 남아있다.

장례의식요 중 상여 소리는 장례 때 망자를 상여에 싣고 장지까지 이동하며 부르던 노래로 선창자가 요령을 흔들며 민요가사를 선창하면 상여를 멘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다. 달구질 소리는 장례 때 망자를 땅에 묻고 달공질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로 묘를 축조한다는 점에서 노동 기능도 갖고 있으나 장례의 중요의식 중 하나로 망자의 무덤을 산자들이 함께 밟고 저승길을 축원하는 의식적 요소가 더 강하다. 메기는 사람이 북을 치며 노랫말을 선창하고 달공질하는 사람들은 연추대로 묘를 다지면서 합창으로 따라 부른다.

상여 소리는 평택민요 장례요 보유자였던 포승읍 홍원2리 박용철, 서정동 장봉국, 서탄면 금암2리 조제우 · 조원주, 회다지 소리는 포승읍 홍원2리 박용철, 서탄면 금암2리 조제우 · 조원주 등에 의해 1980~90년대 채보되어 이어져 내려왔다. 현재는 평택민요보존회에서 전승해오고 있다.

세시의식요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으로 해마다 농사력에 맞춰 행해지는 세시풍속을 행할 때 부르는 민요이다. 주로 지신밟기나 서낭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로 ‘지신밟기노래’, ‘고사요’가 있으며, 가정의 태평을 빌고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사 소리는 두레농악과 걸립농악의 특징이 함께 담긴 웃다리풍물의 대표인 평택농악에서 전승해오고 있다. 평택농악 고사꾼들은 춘걸립과 절걸립으로 통칭되는 걸립을 통해 고사소리를 이어왔다. 평택농악 보유자였던 팽성읍 평궁리 최은창은 고사소리 명인으로 이름을 알렸고, 작고한 이성호 · 이영옥, 현 평택농악 보유자인 팽성읍 평궁리 김용래가 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1980년대 평택농악에서 활동했던 현 평택민요 농요 보유자인 포승읍 방림리 이민조도 고사 소리를 잘한다.



1920년대 여성들의 생활상

## (5) 기타

여성들이 주로 불렀던 부녀요 중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시집살이 노래’로 할머니와 어머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고된 삶에 대한 한탄과 의지로 보편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갓 시집온 새색시의 사연을 담고 있는 시집살이 노래는 시집 식구들의 몰인정한 대우를 참거나 때로는 지혜로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아 구비문학 형식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평택의 민요에도 이러한 부녀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집살이요를 비롯해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한이 배어있는 물레타령이나 방아타령, 베틀노래, 자장가, 애 어르는 소리 등이 대표적으로 전해진다.

1980~90년대 평택지역에서 채록된 부녀요로는 시집살이 노래로 진위면 갈꽃리 김씨와 서정동 강순희, 물레 노래는 진위면 갈꽃리 김씨와 송북동 이씨, 베틀 노래는 송북동 이씨, 자장가는 송북동 이 씨가 부른 노래를 채록해 기록으로 남

겪져있다.

최근 들어 평택의 민요 가운데 농요, 어업요, 장례요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 전승단체인 평택민요보존회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평택 각 지역에서 창자들에 의해 전승되어온 농요, 어업요, 장례요는 2004년부터 이민조·이종구·박용철·어영애 등에 의해 기록과 채보 등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농요는 ‘평택 포승두레소리’라는 명칭으로 2007년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가장 먼저 전승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9년 3월 19일 평택민요는 단체종목 지정과 함께 3월 19일 ‘민요’에 이민조, 6월 29일에는 ‘어로요’에 이종구, ‘장례요’에 박용철이 각각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보유자로 지정됐다.

평택민요보존회는 이후 매년 상설공연과 정기발표공연, 특별공연, 초청공연을 통해 평택지역에서 전해오는 민요를 보존, 전승해오고 있다.

### 3) 평택민요(平澤民謡) 보유자

#### (1) 이민조(李敏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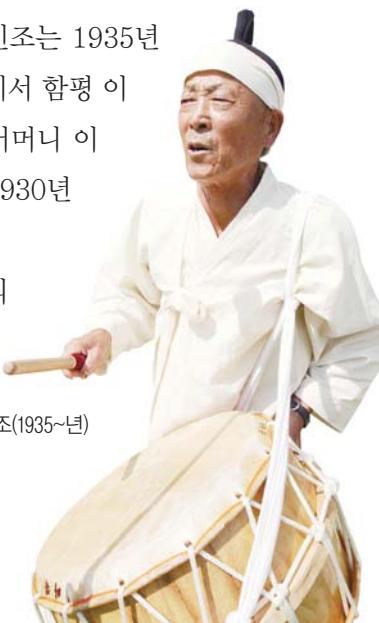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 농요(農謡)<sup>38)</sup> 보유자 이민조는 1935년 8월 11일 포승읍 포승남로 378-6(방림리 404-1번지) 하전촌에서 함평 이씨 대교공파 9대손으로 태어났다. 소작농인 아버지 이정서와 어머니 이순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조는 실제 출생년도보다 5년 빠른 1930년 태어난 것으로 호적에 올라있다.

방림리는 포승읍의 주산인 대덕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산의

---

38) 두레소리

| 이민조(1935~년)





포승읍 방림리 이민조 가옥(가운데 주황색 지붕)

능선이 화살[箭]처럼 생겼고, 고려시대 화살을 만들었던 마을이라고 하여 살치미라고 불린다. 살치미는 상전촌(上箭村)과 하전촌(下箭村)으로 나뉘는데 이민조가 나고 자란 하전촌은 원래 김해 김씨 집성촌이었지만 김씨들이 나간 후 함평 이씨가 입향하여 40여 가구가 넘어서는 동족들이 350여년을 이어오고 있다.

방 하나에 부엌 팔린 오두막에서 태어난 이민조는 네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작고하고 당시 남의 농사 열 댓 마지기와 품삯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굶기를 끊기로 밥 먹듯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길쌈 기술이 있었던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졌다. 목화를 직접 재배하기도 한 어머니는 명주실로 옷감을 짜는 기술이 인근에서 가장 좋았고 이웃에서 길쌈을 하다 영키면 항상 어머니를 찾을 정도로 길쌈 일에 있어서는 기술자 중의 기술자였다.

이민조가 농요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가난 때문에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남

의 집 농사일을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농사일과 마을 대소사에 참여해 집안 어른들인 이택서(李擇緒), 이민상(李民常), 이요현(李堯憲) 등으로부터 모심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 지경소리, 고사소리, 상여소리, 회단이 소리를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한다.

성인 품삯의 반을 받으며 처음 시작한 일이 지경다지기인데 집안 어른 이요현을 따라다니며 집 지을 터에 주춧돌을 세우기(정초 · 定礎) 위한 지경다지기를 하면서 소리를 처음 접하게 됐다. 낮에는 농사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횃불을 밭쳐놓고 하는 지경다지기는 지경 하나에 일곱 명 정도가 달려들었다. 이요현이 ‘메기는 소리[선소리]’를 했고 이민조는 지경꾼들과 함께 ‘받는 소리’를 했다.

이민조가 처음 ‘메기는 소리’를 한 것은 그의 소리 스승 이요현이 작고한 직후부터였다. 방림리 상전촌 이기범 가옥 안팎채를 한 번에 지을 때였다. 건축 규모가 커서 포승과 현덕에서 다섯 마을 지경꾼들이 참여했는데 이곳에서 마을을 대표해 선소리를 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섯 마을에서 지경다지기를 구경 온 인파가 까마귀 떼처럼 보일 정도였고, 어느 마을이 메기는 소리와 받음 소리를 더 잘하나 경쟁이 불었는데 처음으로 메기는 소리에 나선 이민조는 당당이 제 역할을 다해 이후 선소리꾼으로 이름을 알려나갔다.<sup>39)</sup>

이민조는 회심곡을 마을에 시주 나온 심복사 스님에게 배웠다. 마을 어른인 이택서가 시주 나온 심복사 스님에게 쌀 서 말을 준 후 스님의 고사소리를 붓글씨로 받아 적어 이민조에게 건네줘 외우게 했다. 회심곡은 아침에 받아서 저녁때 벌써 다 외워 불렀을 정도로 이민조는 기억력이 좋았으며 소리에 능했다. 이민조가 소리를 하고부터는 동네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까지 불려 다녔을 정도였고, 이웃 마을에 가서 북을 메고 모심는 소리를 하면 어찌나 홍겨운지 그 마을

---

39) 이민조(남, 81세),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 농요 보유자, 포승읍 방림리 거주, 평택향토사 연구소 박성복 연구위원 면담, 2016. 5. 26.



농요 보유자 이민조의 메기는 소리

사람들이 구경하며 함께 즐기느라 모내기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한다.

소리로 이름이 나기 시작하자 결립에 참여해달라는 주문도 들어왔다. 멀리 영종도와 덕적도까지 가서 갯벌에 말뚝을 박는 일에 참여해 소리를 하다가 정작 자신의 논 서마지기의 모내는 시기를 놓쳐 한걱정 속에 돌아와 보니 삼촌이 이미 모내기를 마쳤다는 일화도 있다.

이민조는 풍물에도 능했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풍물을 시작했다. 마을 선배 한영식이 상쇠로 앞에서 끌고 이민조가 그 뒤를 따랐다. 풍물을 시작해 실력이 붙은 이후로는 지금의 천주교 안중성당 자리에서 열린 안중시장번영회 주최 백중놀이에 참여해 당시 서부 4개면 마을에서 참가한 풍물패와 실력을 겨루기도 했다.

이민조의 부친 이정서는 마을 풍물패의 상쇠였다. 부친이 사망하자 상쇠를 도맡았던 이택서는 예닐곱 살인 이민조에게 “너희 부친이 상쇠를 했으니 너도 한번

쇠를 쳐보라”고 팽과리를 쥐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민조가 장성하면서부터는 다시 마을 풍물패의 상쇠를 물려받게 되었다.

이민조는 마을 단위 논매는 소리와 두레농악을 시작한 후 1970년대부터는 평택농악 단원으로 활동해 팽과리와 북, 범고, 열두발상모 등 다양한 악기를 구사했다. 이민조는 과거에 최은창, 이돌천, 이원보 등에게서 농악가락을 배웠으며, 당시 김기복, 황홍엽, 안창선, 김의수 등과 같이 평택농악패에서 활동했다.

1958년과 1959년에는 이승만 대통령 탄신 기념 전국농악경연대회에 평택농악의 이름을 걸고 출전했다. 당시 상쇠는 이원보였고, 평택농악 보유자였던 최은창이 장구를, 이민조가 범고잽이로 나서 수십만 명의 관중이 보는 가운데 공연을 해 두해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1980년에는 평택농악을 다시 창단한 최은창, 이돌천이 그해 여름 포승읍 방림리 이민조에게 찾아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평택농악 단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방림리, 홍원리에서 풍물을 제법 하는 몇몇을 모아 평택농악단에 합류했다. 이때 ‘경기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평택농악단은 전국에서 실력이 제일 좋았지만 텃세에 밀려 특별상에 만족해야만 했다. 이민조는 이후 서울 남사당과 안성 남사당에도 참여해 풍물놀이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민조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택 서부지역 농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승했으며, MBC 라디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에 출연해 두레소리와 열카뎅이 등을 녹음, 현재까지 M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송되고 있다.

1993년부터 3년간은 평택군을 대표해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두레놀이로 참여했다. 수원에서 열린 1993년 대회에서는 모범상을, 안양에서 열린 1994년 대회에서는 장려상을 탔고, 성남에서 열린 1995년 대회는 당일 강한 흙바람이 불어 이민조는 대회 참여를 포기해야 했다.

이후 12년만인 2007년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포승두레놀이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후 2009년 3월 9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

요 농요분야의 보유자로 지정돼 평택민요보존회 단원들과 함께 상설공연과 정기 발표공연, 특별공연, 초청공연을 진행해오고 있다.

평택민요 농요 보유자 이민조는 현재 모심는 소리(상사 소리)를 비롯해 논매는 소리(초벌매기-얼카덩어리), 비단타령, 논매는 소리(재벌매기-어화슬슬 대허리 야), 지게놀이(상여 소리), 논매는 소리(만물매기) 등을 평택민요보존회 회원들에



게 전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중읍 현화택지지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택지역의 논매는 소리를 비롯한 농요를 잊지 않도록 보존하고 있으며, 지금도 가사는 물론 가락까지도 명확하게 기억하며 논매는 소리를 잊고자 하는 평택민요 단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 (2) 이종구(李鐘九)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 어업요(漁業謠)<sup>40)</sup> 보유자 이종구는 1923년 3월 24일(음력) 서해 바다와 인접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어촌마을 현덕면 신왕1리 242-2번지에서 어부인 아버지 이도성과 어머니 김운열의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평택은 지리적으로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진위면~서탄면~청북읍~고덕면~오성면~팽성읍을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진위천과 군포시·의왕시에서 발원하여 수원시~화성시를 거쳐 서탄면에서 진위천에 합류하는 황구지천,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오산시를 거쳐 진위면에서 진위천에 합류하는 오산천, 안성시에서 발원하여 천안시를 지난 후 유천동~팽성읍~통복동~신대동~고덕면을 거쳐 서해로 흐르는 안성천 등 4대 하천이 있어 수자원이 매우 풍족한 지역이다.

평택 곳곳을 휘감아 도는 강물은 바닷물과 교차되면서 강다리, 숭어, 농어, 장어, 꽃게, 민물장어 등 풍부한 어종(魚種)을 보유해 어업이 발달했다. 특히 이종구가 나고 자란 현덕면 일대는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나루와 포구가 많았는데 신왕리 신왕나루와 대안리 구진나루, 권관리 계두진에는 성어기(盛漁期)마다 고깃배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이종구(1923~2014년)

신왕나루는 조선시대 기록에는 당포진 또는 당진포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후기까지 포구상업이 매우 발달한 나루였다. 19세기 말의 『수원부 선세혁파성책』에는 청어·조기·미역·미곡·대맥·조·소금·목화·창호지·우피·담배에 관한 조세를 당포진에서 거둬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왕리에는 한때 5톤급 중선 배만 10여 척, 작은 어선들은 30여 척 넘게 있었다. 중선들은 안강망이라는 어구를 사용해서 아산만 뿐 아니라 서해 연안을 오르내리며 고기를 잡았고, 작은 어선들은



좌측 위로 신왕나루가 보이는 현덕면 신왕1리 이종구 가옥(가운데 아래쪽 청색 지붕)

안성천 하구에서 투망이나 삼중망을 이용해서 승어와 강다리·농어·삼치·준치를 잡았다.<sup>41)</sup>

1960년대 현덕면 신왕1리 마두마을은 50여 호의 가구에 300여명의 주민이 거주했을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마을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평택호방조제가 중공되기 이전이어서 강물과 바닷물이 교차해 마두마을의 주업은 어업이었다. 때문에 신왕나루에는 10여척이 넘는 어선이 정박했으며 대부분 안강망 어선으로 배의 규모가 비교적 커 겨울에는 한강하구 인천 앞바다와 김포, 강화와 백령도 연안까지 조기잡이를 떠났다. 반면 평택과 화성, 당진 등 경기만 일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풍랑을 만난 어선들은 평택 현덕면 일대의 포구와 나루에 배를 정박해 태풍이 불때면 신왕나루에는 피항어선이 40~50여척을 넘을 때도 있었다.

현덕면 마두마을 어민들이 주로 잡은 어종은 봄·여름철에는 승어, 꽃게, 민물장어였으며, 가을철에는 가물치, 해파리, 강다리, 새우, 겨울철에는 동어, 사철 모두 잡힌 것은 망둥어였다.

40) 벗소리 또는 어로요(漁撈謠)라 부른다.

41) 김해규, 「평택사람들의 길 3, 나루·포구 그 위의 삶 15」, 『평택시사신문』, 2015. 5. 23.

이종구는 지금은 작고한 신왕리 이종석, 이영수, 김만봉과 생존에 있는 인원환, 이의근, 박노봉, 김순식, 김인택 등과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를 함께 나갔다. 당시에는 농경지가 별로 없어 바다에 나가 어획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희비가 교차했다. 그만큼 어업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종구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잡아온 물고기는 배 들어올 때에 맞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온 인근 안중시장 상인들이 사갔으며, 팔다 남은 물고기는 마을 사람들이 햇볕에 말렸기 때문에 마두마을은 언제나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다.<sup>42)</sup>

어부가 많은 마두마을은 풍어와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이 발달했다. 신왕리 서낭당 당목에서 매년 정월 서낭제를 지낸 후 이튿날 신왕나루에서 풍어제를 지냈다. 이때는 인근의 이름난 무속인들이 참여한 대규모 굿판이 벌어져 코흘리개 아이들까지 구경나온 정도로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 한 해 동안 고기잡이배의 만선과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어족자원이 풍부한 갯가에서 태어난 이종구는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갯가소리를 배웠고,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시기에는 농악을 배워서 북, 장구, 징, 팽과리 등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장한선, 류길선, 인원환, 이의근 등과 함께 중선배를 타고 서해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했다. 이때 마을 어른인 장한선의 노래를 자연스럽게 따라 듣고 갯가소리를 배웠다. 그리고 장성하면서부터 앞소리를 메기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농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동네 상쇠를 맡아 두레째를 이끌었다.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는 중선배인 안강망 어선을 주로 이용하였고, 7~8명이 한배를 타고 멀리는 연평도, 인천 앞바다까지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

42) 이경수(63, 남), 평택민요 어로요 보유자 이종구의 장남,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연구위원 면담, 2016. 11.



현덕면 신왕리 김천수 소유의 제2 유자망 한일호



어업요 바디질

도 있었다. 한번 출항을 하면 3~4개월을 바다에서 머물며 고기잡이를 하였고, 그 피로를 잊기 위해 자연히 갯가소리를 부르게 되었다.

갯가소리라고도 불리는 어로요는 닻 감는 소리, 큰 배 노젓는 소리, 바디질 소리, 돌 옮기는 소리, 그물 다는 소리, 그물 뽑는 소리, 아매·수해 올리는 소리 등으로 이루어졌고, 사공이 선창을 하면 나머지 어부들이 받는 소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어업요는 노동에서 오는 피곤함을 덜어주고 협동심을 고취하여 고기잡이의 능률을 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종구는 2009년 6월 29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 어업요 분야의 보유자로 지정돼 5년 동안 어업요 보존과 후진 양성을 위한 전승활동을 해오다 2014년 8월 10일 작고했다. 특히 2010년에는 지금까지 발굴·보존한 어로요를 올곧이 담아 <삶의 소리 흥의 소리 평택전통민요><sup>43)</sup> 음반을 제작했다. 이 음반에는 평택민요 농요 보유자 이민조, 장례요 보유자 박용철과 함께 분야별 평택 소리를 담아냈다.

큰 배 노젓는 소리, 수심 재는 소리와 닻 내리는 소리, 아매 수해 내리는 소리, 아매 수해 올리는 소리, 그물 뽑는 소리, 그물 다는 소리는 이종구 보유자가 메기는 소리를, 평택민요보존회 단원들이 받는 소리를 녹음했다.

출항 닻감는 소리는 인원환, 이의근 전수조교가 메기는 소리를 하고 평택민요 보존회 단원들이 받는 소리를 했으며 돌 옮기는 소리, 줄 사리는 소리, 고기 되는 소리(작은말), 고기 되는 소리(큰말)는 이종구 보유자가 메기는 소리를 하면 인원환 전수조교가 받는 소리를 하는 방식으로 녹음했다. 또 바디질 소리는 이의근이 메기는 소리를, 인원환이 받는 소리를 녹음했다. 이 원음 음반제작은 농요와 어로요, 장례요를 어려서부터 보고 익히고 제대로 기억해 이를 전승할 수 있는 보유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후대에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43) 이민조·이종구·박용철 등, 「삶의 소리 흥의 소리 평택전통민요」, (CD), 이즈레코드사, 2010년.

### (3) 박용철(朴容哲)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 장례요(葬禮謡)<sup>44)</sup> 보유자 박용철은 1929년 1월 15일 서해 바다를 끈 포승읍에서 비교적 내륙지역인 홍원2리 123-2번지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외지에 나가지 않고 고향을 지켜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포승읍 홍원2리 마장마을 어귀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집이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양식 때문에 상여소리가 거의 사라져 가는 실정이다.

박용철은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가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마을 어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민요를 따라 듣고 배웠다. 같은 마을 집안 할아버지인 박백운, 동네 어른인 백상봉 등으로부터 상여 소리, 회단이 소리, 모내기 소리, 애벌매기 소리인 얼카뎅이, 재벌매기 소리인 대허리, 만물매기 소리인 방개타령 등의 소리를 배웠다.

20세 때부터 포승읍 홍원리는 물론 인근 안중지역에서 초상이 나면 선소리꾼으로 뽑혀 다니며 긴상여 소리, 자진상여 소리, 회단이 소리를 불렀다. 박용철의 상여소리는 안중읍을 중심으로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오성면 등 평택시 서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소리로 음악적인 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평택지역 장례의식 절차는 영결식과 발인제를 마치면 상여꾼들이 상여에 망자를 싣고 장지로 떠나게 된다. 상여를 메는 사람들은 상여꾼과 상두꾼, 유대꾼, 역군, 담예꾼, 부역꾼 따위로 부르는데, 열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한다. 상



박용철(1929~2010년)

44) 상여소리라고도 부른다.



포승읍 흥원2리 박용철 가옥(가운데 위쪽 청색 지붕)

여 앞에서나 상여 위에서 상여꾼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소리꾼 또는 요령잡이라고 하는데, 요령이나 북을 치면서 상여소리의 앞소리를 메긴다. 박용철은 20세를 갓 넘긴 나이부터 요령잡이로 근동에 널리 알려졌다.

발인제를 마치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망자의 집 앞에서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집을 바라보고 서서 상여 앞을 낮추어 절을 세 번하는데 이때 상여 어르는 소리, 발인 소리를 부른다. 망자가 이승을 하직하는 슬픔, 유족과 친지와 나누는 인사말, 망자는 극락으로 잘 떠나라는 축문으로 되어 있다.

상여가 장지로 향하게 되면 중중모리 장단에 맞는 상여소리를 부른다. 박용철은 요령을 흔들거나 때로는 북을 쳐 한 장단이나 두 장단의 앞소리를 메기면 상여꾼들이 뒷소리를 받는다.

이때 상여소리는 이승을 하직하고 저승으로 떠나는 망자의 슬픔을 노래한다. 상여소리는 평지를 지나갈 때와 다리, 언덕, 좁은 길 등 환경이 좋지 않은 길을 지날 때 장단의 빠르기가 달라지며 혐한 길에서는 쉬어가는 경우도 있다.



상여 나가기(평택시 칠원동)



장례요 상여 나가기



장례요 달구질

상여가 장지에 이르면 망자가 든 관을 내려 무덤에 안장하는 하관이 이어진다. 이어 회를 섞은 흙으로 덮고 여러 일꾼들이 발로 밟거나 장대로 단단히 다지는 것을 달구질이라고 한다. 달구질을 할 때는 달구꾼들이 회닫이소리를 부른다.

박용철의 회닫이소리는 중중모리 장단이나 늦은 자진모리장단으로 진행되는데 선소리꾼이 북을 치며 한 장단의 앞소리를 메기면 달구꾼들은 같은 장단의 뒷소리로 ‘어허 달공’하고 받는다. 달구소리는 장지가 명당이라는 덕담인 경우가 많으며, 달구소리 후반에는 빠른 장단으로 된 잣은 달구소리를 불러 달구질을 마무리 한다.

박용철은 장례요와 농요 이외에도 죄은창으로부터 농악을 배워 팽과리, 북, 범고, 열두발상모 등 평택농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악기를 구사하여 같은 마을 사는 평택농악 태평소 명인 황홍협과 포승읍 방림리 거주 이민조 등과 농악패 활동을 함께 해 왔다. 2009년 6월 29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 장례요 분야의 보유자로 지정돼 활동해오다 다음해인 2010년 8월 24일 작고했다. 박용철의 장례식에는 평택민요보존회원들이 참여해 그가 수없이 불러왔던 상여 소리와 회닫이 소리를 부르며 마지막 가는 명인을 추모했다.

박용철은 작고하기 몇 달 전 장례요를 원음으로 녹음한 <삶의 소리 흥의 소리 평택전통민요><sup>45)</sup> 음반을 제작했다. 이 음반에는 평택민요 농요 보유자 이민조, 어업요 보유자 이종구와 함께 분야별 평택의 소리를 담아냈다. 장례요 음반에는 긴 상여소리, 자진 상여소리, 회닫이 소리를 박용철 보유자가 메기는 소리를 하고 평택민요보존회 단원들이 받는 소리를 녹음했다.

---

45) 이민조 · 이종구 · 박용철 등, 「삶의 소리 흥의 소리 평택전통민요」CD], 아즈레코드사, 2010년.

## 2. 기악(器樂)

### 1) 경기도도당굿(京畿道都堂굿)과 경기시나위

#### (1) 경기도도당굿(京畿道都堂굿)

굿은 기원의 범위에 따라 나라굿, 마을굿, 집굿으로 구분한다. 나라굿은 나라를 위해 행해진 굿이며, 마을굿은 마을의 무사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수복강녕을 비는데 도당굿, 성황제, 대동굿, 부군당굿 등이 있다. 집굿은 집안의 재수와 우환을 빌거나 물리칠 때 하는 굿으로 재수굿, 병굿, 진오귀굿 등이 있다.

여러 지방의 굿 가운데 경기도 도당굿은 마을굿 형식을 띠고 있으며, 세습무<sup>46)</sup>가 자신들의 연주 기량을 발휘하고 독창적인 사설을 주도해 부르는 것이 다른 지역의 마을굿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도당굿의 화랑이<sup>47)</sup>는 타악은 물론 삼현육각의 선율악기와 조화를 이루는 음악형식을 갖는다.<sup>48)</sup>

경기도의 굿은 주로 정월과 10월에 마을의 안녕(安寧)과 가내(家內)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기원한다. 생업(生業) 형태로는 풍농(豐農)이나 풍어(豐漁)를 기원하며 대동(大同)이 모두 참여하는 무사안녕(無事安寧)의 도당굿이 있다.



평택농악 당산굿

46) 무업(巫業)을 배우거나 대물림하는 형태.

47) 신라의 화랑(花郎)에서 유래된 용어로 세습무권에서 무악을 집안대대로 세습하는 남성악사.

48) 김현선, 『경기도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 집문당, 1995.

이규경(李奎景)의 《五州衍文 長錢散稿》에 보면 ‘我東鄉俗多虎豹之患，夜不能出，小釀錢備牲醴，祭山君於本里鎮山，巫覡粉若鼓之以妥之，名曰都堂祭(아동향 속다호표지환, 야불능출, 소ѧ전비생례, 제산군어본리진산, 무격분약고지이타지, 명활도당제)’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나라에는 호랑이나 범에 의한 피해가 많아 밤에는 집 밖으로 출입을 하기 어려웠다. 백성들이 돈을 모아 제물을 마련하여 동리의 진산(鎮山)에 있는 신당(神堂)에서 제(祭)를 올렸는데 무격들이 분으로 단장하고 북을 두드렸는데 이를 도당제라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굿의식을 주관하는 무당을 한강이북지방에서는 만신, 한강이남지방에서는 단골이라고 부른다. 한강이북지방에서 부르는 만신은 신 내림으로 무당을 하는 강신무(降神巫)인 경우가 많고, 한강이남지방에서 부르는 단골은 무업을 배우거나 대물림하는 세습무(世襲巫)인데 평택지역도 세습무가 많은 편이며 강신무도 혼재한다.

경기도의 굿은 한강이남지역의 전통 경기도굿과 한강이북지역의 한양굿이나 황해도굿이 절충된 형태가 있다. 또 인천과 강화지역의 경기도굿과 이북굿이 절충된 형태, 평택과 안성지역의 경기도굿과 충청도 앉은굿이 절충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무속음악은 연주형태에 따라서 두 갈래로 구분되는데 무당이 노래 부르는 것은 무가이고, 굿판에서 무당을 위해 반주하는 것은 무악이라고 한다. 무속음악은 넓게는 무당의 굿음악이나 판수의 독경(讀經)소리, 걸립패(乞粒牌)나 초라니패의 고사(告祀)소리 등이 토속신앙과 관련된 모든 음악이 포함되는 것이고, 좁게는 무당의 굿음악만을 가리키는데 근래의 무속음악은 주로 무당의 굿음악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굿음악에 쓰이는 악기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택을 포함한 한강이남지역에서는 피리, 해금, 대금<sup>49)</sup>, 장구, 징 등이며, 무가(巫歌)의 장단은 도살풀이, 가

49) 절대라고도 부른다.

래조, 삼공잽이, 굿거리, 중모리, 중중모리, 덩덕궁이를 주로 연주한다.

무무(巫舞)의 반주음악은 무가의 반주음악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 한강이남지역은 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진쇠장단, 반설음, 올림채, 부정놀이 등을 연주한다.

1990년 10월 10일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된 경기도도당굿은 서울을 비롯한 한강 이북지방과 수원·인천 등지에서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목적으로 매년 또는 2년이나 그 이상의 해를 걸러 정월 초나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말한다. 경기도도당굿은 경기도 일대의 한강 이남지역에 전해져 오는 마을굿으로,

지금은 부천의 장말에서만 완전한 형태의 경기도도당굿을 볼 수 있다. 경기도도당굿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마을 동산의 소나무 숲속에 300년이 넘은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신 당가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를 통해 대대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굿은 오전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끝나며, 집안의 대를 이어 기능을 연마하고 음악과 무용에 뛰어난 세습무당이 진행한다. 세습무당인 화랭이들은 남자무



비전동 자란동신제

당으로 줄을 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재주놀이를 하면서 굿을 축제분위기로 이끈다. 예전에는 기생들의 소리와 춤이 곁들여졌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도당굿은 굿을 하기 전날 당주(堂主)의 집에서 벌이는 ‘당주굿’으로 시작한다. 다음에는 당주집에서 굿당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길거리에서 부정을 가시는 ‘거리부정’을 하고, 굿당에 도착해 주변의 잡귀잡신에게 시루를 먹이는 ‘안반고수레’, 굿을 벌일 장소를 정화하는 ‘부정굿’, 신대를 꺾어 든 마을의 대잡이에게 신이 내리면 당가리 앞으로 가 도당신을 모시고 굿청으로 되돌아 오는 ‘도당모시기’, 마을의 장승과 공동우물 그리고 원하는 집을 돌며 마을과 집안의 평안을 비는 ‘돌돌이’, 굿당에서 군웅마나님께 대취타연주를 올리는 ‘장문잡기’,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굿을 잘 받으셨는지를 시루가 쉽게 들어 올려지는 것으로 확인하는 ‘시루말’, 제석청배와 바라춤을 추는 ‘제석굿’, 군웅조상과 도당조상, 본향조상을 모셔서 집안의 평안과 자손번창을 축원하는 ‘본향굿’, 화랭이들이 한 사람씩 나와 춤과 묘기를 보이는 ‘터벌림’, 손님인 마마신을 위한 ‘손굿’, 굿꾼과 무녀의 쌍군웅춤인 ‘군웅굿’, 날이 밝아 도당신을 당가리로 다시 좌정시키고 돌아오는 ‘도당보내기’, 고깔과 장삼 차림의 굿꾼이 놀며 마을 축원과 중수비를 풀어주는 ‘중굿’, 굿에 따르든 잡귀들을 풀어 먹여 보내는 ‘뒷전’으로 굿이 끝난다.

경기도도당굿은 다른 지방의 도당굿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무당인 화랭이들이 굿을 하며, 음악과 장단도 판소리기법을 따르고 있어 예술성이 뛰어나고 전통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sup>50)</sup>

경기도도당굿은 뛰어난 장단과 춤사위, 그리고 다양한 무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신무 계열의 경기도굿이 경기도 민요조의 창법을 갖고 있다면 도당굿은 경기도 판소리인 경제소리와 유사한 판배개창이라는 독특한 성음으로 무가를 부른다. 때문에 경기도도당굿은 뛰어난 음악성과 예술성, 역사성, 향토성을 복합적으로 지닌 굿으로 명성이 높다.

50)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해설」, 『문화재청 누리집』, 2016.



비전동 자란동신제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평택지역에서는 마을마다 산제나 당제, 풍어제가 성행했다. 평택의 마을에서 연행된 도당굿은 비전동 삼각산 도당제를 비롯해 비전동 덕동산 도당, 비전동 자란동신제, 비전동 재랭이 당제, 합정동 조개터 당제, 소사동 소사마을 당제, 용이동 현촌마을 당제, 죽백동 방아다리 당제, 동삭동 상서재 당제, 지제동 당제, 팽성읍 추팔리 산신제, 팽성읍 함정리 서원말 당제, 팽성읍 근내리 서낭제, 팽성읍 본정1리 새나리 당제, 팽성읍 송화3리 큰말 당제, 안중읍 금곡4리 숲말 산신제, 안중읍 용성3리 설창마을 당제, 청북읍 율북리 당제, 청북읍 협곡3리 광승 당제, 청북읍 백봉1리 원백봉 당제, 청북읍 삼계2리 원삼계 당제, 진위면 청호리 당제, 진위면 갈곶리 당제, 진위면 마산리 오룡마을 정제, 진위면 가곡리 당제, 진위면 봉남리 성황제, 진위면 견산1리 벌미마을 당제, 서탄면 금암2리 안말 당제, 서탄면 금각1리 쇠뿌리 당제, 서탄면 사리당제, 고덕면 당현리 당산제, 고덕면 해창3~4리 원해창 신촌 당제, 고덕면 두릉2리 계루지 당제, 오성면 안화1리 우다네 당제, 오성면 숙성리 대조두 당제, 포

승읍 만호리 당제, 포승읍 원정리 당제, 현덕면 신왕1리 마두마을 풍어제, 현덕면 신왕2리 신왕리 산신제, 현덕면 대안1리 작은박골 당제와 우물제, 현덕면 대안4리 구진개 산신제, 세교동 잔다리 서낭제, 세교동 은실마을 당제, 비전2동 당재마을 당제, 합정동 배미마을 당제, 합정동 통미마을 당제, 칠원동 원칠원 산신제, 칠원동 수촌마을 용신제, 서정동 서두물 정제, 죽백2동 안말 당제, 도일동 상리 산신제, 서정동 갈평마을 당제, 이충동 동령마을 정제, 장당동 광천마을 너브내 당제, 모곡동 모곡마을 당제, 서정동 지장절 당제, 도일동 하리마을 여의실 서낭제 등 있다.

이들 도당굿은 2000년 이후 도시개발로 대부분 연행되지 않고 있으며 진위면 마산리 오룡마을 정제와 이충동 동령마을 정제, 도일동 상리 산신제, 청북읍 율북리 당제, 현덕면 평택호 풍어제를 비롯한 몇몇 마을 당제만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 (2) 경기시나위

무속음악(巫俗音樂)은 우리나라 전통 민속신앙으로 내려오는 종교의식의 굿이나 놀이 형태의 굿 절차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와 반주를 맡은 이들의 반주음악과 효과음악, 독립적인 기악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굿은 보통 본무당과 보조무당(조무·助巫) 그리고 흔히 재비로 불리는 반주를 맡은 악사들에 의하여 진행된다.

무당의 굿음악은 무당이 굿판에서 부르는 무가(巫歌)와 춤 출 때의 반주음악인 무악(舞樂)으로 구분된다. 경기도의 굿음악은 한강이남지역과 한강이북지역 굿음악으로 갈리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음악에서 산조(散調)가 기악독주곡 형태의 음악이라면, 시나위<sup>51)</sup>는 ‘육자배기<sup>52)</sup>토리<sup>53)</sup>’로 된 허튼가락<sup>54)</sup>의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기악합주곡 형태의 음



평택호 풍어제 정박 어선

악이다. 즉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피리, 대금 등의 악기들이 일정한 장단의 틀 안에서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연주하는 음악이지만 조화가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시나위 무악권(巫樂圈)은 경기도 남부, 충청도 서부, 전라도, 경상도 서남부 지방의 무가(巫歌) 반주음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무의식(巫儀式)에서는 무당이 무가(巫歌)를 부를 때 피리, 대금, 해금으로 반주를 한다. 연주자들은 전적으로 즉흥성에 의한 자유로운 연주를 하는데 무당이 춤을 출 때도 반주악기들이 춤에 맞추어 시나위를 연주한다.

- 
- 51) 심방곡(心方曲)이라고도 한다.
  - 52) 남도지방의 통속민요를 말한다.
  - 53) 민요(民謡)나 무악(巫樂)이 지방에 따라 독특하게 구별되는 노래 투이다.
  - 54) 민속음악에 속하는 기악독주곡 형태의 하나로 산조라고 부른다.



평택호 풍어제 배 띄우기

경기도의 시나위는 산과 강, 바다 등 지형적 여건과 계승자의 예능적 기량에 의해 새로운 연주가 파생되고 제자나 연주자들의 계승으로 여러 제(制)로 분파된다.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경기도 시나위의 제(制)는 남양제, 안산제, 광주제, 동령제 등으로 나뉜다.

경기도의 시나위는 크게 방돌근이 이끈 남양제(南陽制)와 그의 할아버지인 방용현의 동령제(東嶺制), 지영희의 안산제(安山制), 이충선의 광주제(廣州制)로 나뉜다. 현재 경기도에서 전승되어오고 있는 남양제는 방돌근에 의해 그의 제자들이 이어오고 있다. 남양제(南陽制)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을 근거지로 집단 거주하면서 경기도도당굿을 전승시켜 온 세습무가(世襲巫家)인 남양 장씨들에 의해 창시되어 150여 년간 전승되어 온 시나위다. 이는 창시자 장만용으로부터 장점복, 장홍봉으로 전수되었다가 조암면 거주 문상근에게로, 다시 장유순에게 전승되어 방돌근에게 이어지게 됐다. 동령제(東嶺制)는 방돌근의 할아버지인 방용현이 창시자로 이충동 동령마을에서 전승되어 왔다. 안산제(安山制)는 평택 출신으로 해금시나위 명인 지영희가 창시했으며, 현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졸업생들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sup>55)</sup>

55) 하주성, 『경기도의 굿』, 경기문화재단, 1999.

경기시나위는 경기도도당굿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데 이는 경기도도당굿의 모든 반주 음악이 경기시나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경기시나위는 전라도 시나위와는 음악적 특징이 다른데 경기시나위는 맛이 담백하고 잔재주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많은 흥과 한을 곁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결코 가볍지가 않다고 하여 경기시나위가 경기도의 정서를 가장 함축성 있게 나타낸 율제라고 평가한다. 전라도 시나위를 아무리 잘 연주하는 악사도 경기시나위를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시나위는 마음 깊음이 없으면 음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시나위는 문화재청이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했다. 당시 경기시나위의 대가였던 지영희(池瑛熙)가 예능보유자로, 최경만, 홍옥미, 최태현, 함석주가 전수교육조교로 각각 지정됐으나 지영희의 하와이 이민 이후 시나위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에서 폐지돼 아직까지도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2) 평택의 경기시나위

경기도의 4대 시나위라 할 수 있는 동령제, 안산제, 남양제, 광주제 가운데 광주제를 제외한 남양제, 동령제, 안산제는 평택의 전통음악인들을 통해 전승되고 지켜져 왔다. 이는 한강이남지역의 경기도도당굿과 경기시나위를 대부분 평택에서 계승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시나위 동령제(東嶺制)는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에서 태어난 시나위 명인 방용현(方龍鉉)의 율제(策制)로 방용현은 다른 연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호흡이나 기량이 매우 뛰어났는데 이 같은 기량이나 호흡의 장점을 살려 연주를 즉흥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대금 시나위 명인 방용현은 포승읍 출신인 지영희처럼 무업을 대물림한 평택 지역의 대표적 세습무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금과 해금 명인 방용현은 마을 악사에



고덕면 서천사 삼재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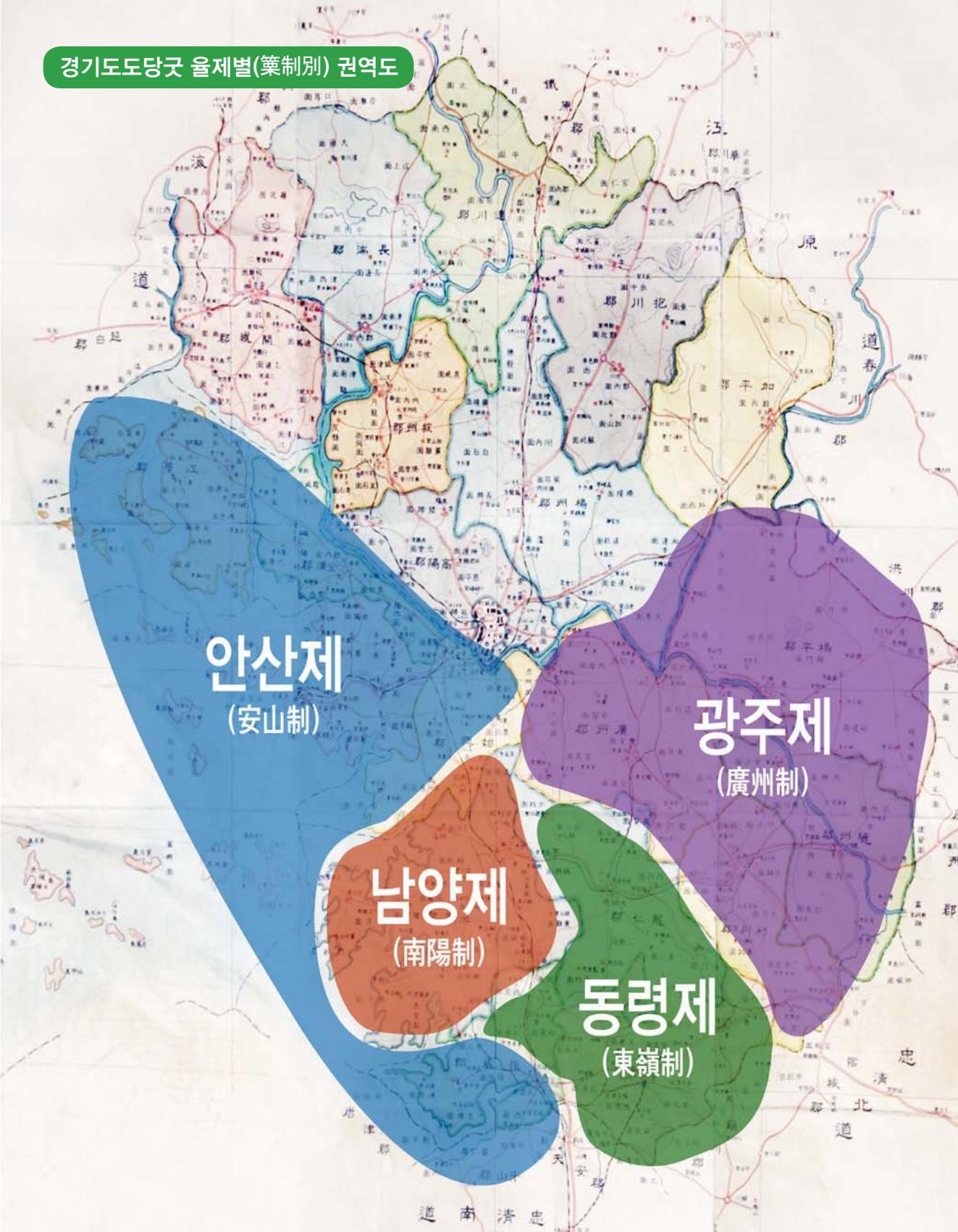
서부터 시작해 서울 왕십리로 이주해 대금과 해금 학습에 모든 것을 걸었다. 처음에는 굿판에서 악사로 활약했으나 조선음률협회 정회원으로 점차 연주의 완숙도가 높아감에 따라 각종 연주회와 방송 녹화, 해외공연에 초청돼 경륜을 쌓아가면서 시나위 대가로 활약했다.

그만의 즉흥적 가락과 기교가 특징인 경기시나위 동령제(東嶺制)는 김원식, 이충선, 김광식에게 전승되었다. 방용현의 수제자 김광식의 대금 음악은 《대금 교본》에 악보로 수록되었는데 이는 시나위 명인인 평택 출신 지영희가 채보해 1969년 국악예술학교<sup>56)</sup>에서 편찬한 것이다.

수제자인 이충선은 이후 경기시나위 광주제를 창시해낸 인물이기 때문에 광주제 또한 일정부분 방용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방용현은 또 같은 평택 출신인 해금 시나위 명인 지영희에게도 대금 산조와 풍류를 가르쳤다. 동령제는 방용현이 제자 김광채(金光彩)에게 전수했으나 지금은 그 맥이 끊어졌다.

56) 현재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경기도도당구 율제별(策制別) 권역도



안산제

(安山制)

광주제

(廣州制)

남양제

(南陽制)

동령제

(東嶺制)

대금 시나위 명인 방용현의 핏속에 흐르는 예술적 혼은 후대에도 이어졌다. 경기도도당굿의 마지막 시나위 연주자이자 남양제 전승자인 방돌근(방인근)이 그의 손자이며, 증손녀의 딸도 한영숙류 춤을 전수해 활동하고 있다.

경기시나위 안산제(安山制)는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서 태어난 시나위 명인 지영희(池瑛熙)의 율제(篥制)로 해금산조는 대금산조의 선율을 많이 본받았고 섭세하고 굴곡이 많으며, 경기민요처럼 가볍고 경쾌하면서 중증모리 부분에서는 장단 사이로 드나드는 가락의 놀음새와 잉어질의 익살스러운 연주법이 특색 있다. 피리 연주는 더듬치기, 혀치기, 목튀김 같은 특수 주법을 구사해 다른 연주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만의 특징을 갖고 있다.<sup>57)</sup>

지영희의 피리시나위는 ‘푸살’(4/10박, 4/15박) 장단이나 굿거리(12/8) 장단과 비슷한 2소박 6박의 경기도당굿 섭채 장단(6/4) 형태의 가락으로 짜여 있으며, 국악예술학교 졸업생들에게 전승되어 많이 연주되고 있다. 지영희의 경기시나위는 남도시나위 특징인 G(굵게 떠는 음), Eb→D(꺾어서 떠는 음), C(본청 : 뻗다가 가늘게 떠는 음) 음을 기본으로 하며, 남도시나위에선 나타나지 않는 굵게 떠는 음 G음의 위쪽 지공음인 Bb→A음을 꺾어서 굵게 떠는 것이 경기시나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영희의 경기시나위 가락은 박범훈류 피리산조 중증모리 가락에 첨부되어 있으며 가락의 짜임새가 상당히 세련되어 있어서 현재 독주곡으로 많이 연주되고 있다. 또한 지영희류 해금산조 역시 연주자들에 의해서 가장 활발하게 연주되는 독주곡이다.

해금 시나위 명인 지영희는 할머니 전석준을 비롯해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등이 무업(巫業)을 생계로 하는 세습무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경기도도당굿과 경기시나위를 접하며 살았다. 1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속음악을 학습한 지영희는 활동영역을 평택이 아닌 서울로 옮겨가 조항련, 정태신,

57) 송선원 지영희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연구위원 면담, 2016. 11.

지용구, 양경원, 김계선, 방용현, 최군선, 오덕환, 박춘재, 한성준 등 당대에 내로라하는 명인들에게 전통음악과 무용을 전수받아 다양한 장르의 예술분야를 섭렵하게 된다.

조선음악무용연구소와 한성준음악무용단, 최승희무용단, 대한국악원, 지영희고전음악연구소 활동을 통해 음악세계를 넓혀간 지영희는 민속음악과 무속음악의 채보, 작곡, 교육, 관현악연주로 활동 영역을 확대했다. 경기시나위 안산제는 현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최경만, 박범훈, 김영재, 최태현, 이철주, 김방현, 장덕화, 김덕수 등으로 이어져 활발히 전승되어 오고 있다.

경기시나위 남양제(南陽制)는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에서 태어난 시나위 명인 방돌근(方豆根)의 율제(簞制)로 방돌근의 피리시나위 특징은 지영희 시나위와 선율진행이 비슷하나 가끔씩 목튀김(피리서<sup>58)</sup>로 연주하며 목을 튀기는 소리)을 하면서 연주하는 것이며, 일정한 가락으로 짜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연주한 것이다.<sup>59)</sup> 남양제는 옛 수원군 남양면<sup>60)</sup> 출신 장만용이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세습무가(世襲巫家)인 그는 아들 장점학(장점복)과 손자 장유순에게 대대로 예능적 재능을 전해줬고, 이후 경기도도당굿 전수조교였던 방돌근에게 전수됐다.

대금 시나위 명인 방돌근(方豆根)은 세습무가(世襲巫家)로 할아버지가 바로 경기시나위 동령제(東嶺制) 창시자인 방용현(方龍鉉)이다. 동령마을 방씨 집안은 명이 짧아 천한 이름과 천한 직업을 가져야 장수한다는 믿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직업인 화랭이를 선택하게 된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원으로 올라가 경기시나위 남양제 대가로 경기재인청 출신 장유순에게 피리시나위를 학습해 남양제 시나위를 물려받은 후 경기재인청 도대방 가문인 오산시 거주 이용우에게 경기무악 장단과 도당굿 장단을 전수받았다. 굿판에 들어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경기시나위와 인연을 맺어가면서도 보

58) 피리의 발음원이 되는 얇은 진동판

59) 송선원 지영희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연구위원 면담, 2016. 11.

60) 현재는 화성시 남양읍으로 행정구역이 변화했다.

다 넓은 세상에 시나위를 알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경기도도당굿 녹음과 방송활동으로 이어졌으며,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강사로 활동하면서 김현주, 안재숙, 김현숙, 김홍수, 승경숙, 목진호, 장영근 등에게 경기도도당굿 장단의 정통을 잊게 했다.

경기시나위 광주제(廣州制)는 경기도 광주시 중대면 몽촌<sup>61)</sup>에서 태어난 시나위 명인 이충선(李忠善)의 율제(築制)로 이충선은 박종기의 대금산조를 참고해 남도시나위 가락과 뼈꾸기, 소쩍새 등 각종 새소리의 봉장취 가락을 많이 삽입하여 대금산조를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대금산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좀 더 변화 있고 짜임새 있는 산조로 발전 되지는 않았으며 요즘에는 거의 연주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sup>62)</sup>

피리 시나위 명인 이충선(李忠善)은 경기시나위 동령제(東嶺制) 창시자 방용현(方龍鉉)에게 23살 때 대금 삼현과 시나위를 배웠고, 양경원(梁慶源)에게 피리 삼현과 시나위를, 서울에 올라가 악사로 있으면서 정악악사 이재규에게 피리 출 풍류 전바탕을 배웠다. 이후 정악악사 민완식(閔完植)에게 양금 풍류 전바탕을, 지영희의 부인 성금연(成錦鳶)과 심상건(沈相健)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웠으며,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송파산대놀이 피리부문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이충선은 한주한의 대금산조를 인용하여 단국대 명예교수인 서한범에게 피리로 가르쳤는데 서한범이 악보로 정리하여 후학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충선의 경기시나위 광주제는 그의 스승인 평택 출신 방용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이충선의 광주제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sup>63)</sup>에서 전승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4대 시나위인 동령제, 안산제, 남양제, 광주제는 평택의 전통예인들

61) 1963년 1월 11일 당시 광주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편입된 몽촌토성 일원을 말한다.

62) 송선원 지영희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연구위원 면담, 2016. 11.

63) 현재 국립국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됐다.

에 의해 창시되거나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은 주요 전승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령제를 창시한 방용현은 안산제의 지영희와 광주제의 이충선을 학습 시켰으며, 그의 손자인 남양제 방돌근은 어려서부터 음악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방용현 이야말로 4대 경기시나위 육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통음악계의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경기시나위 안산제는 지영희가, 남양제는 방돌근이 중심이 돼 고유한 특성을 지닌 제(制)를 형성함에 따라 오늘에까지 이어져 많은 국악인들이 즐겨 연주하거나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이처럼 한강이남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도당굿 음악인 경기시나위를 평택의 전통음악인들이 주도해왔다는 것은 평택의 지리적 특성인 산과 평야, 강과 바다를 배경으로 역사 문화적 토양이 조화를 이루며, 민초의 질박한 삶이 대대손손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평택의 기악(器樂) 명인(名人)

#### (1) 방용현(方龍鉉)

경기도시나위 대금 명인 방용현은 1863년 지금의 이충례포츠공원과 접한 이충동 동령마을 세습무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방화준이라는 이름으로 도 불렸다.

방용현이 태어난 평택시 이충동 동령(東嶺)마을은 송탄지역 중심부에 자리 잡은 부락산(負樂山, 150.5m) 남쪽 능선에 자리 잡았으며,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 사이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택 동령마을성터[平澤 東嶺城址]’가 있다. 또 동령마을은 마을 입구를 ‘성물백이(성문 밖)’, 송탄고등학교를 넘어가는 고개



방용현  
(1863~?)



이충동 동령마을 방용현 집터(2012년)



이충동 동령마을 방용현 집터(2016년)

를 ‘성현(城峴, 성 고개)’이라 부르며, 주변 지형으로 봤을 때 역사학계에서는 치소(治所)와 읍성(邑城)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령마을은 특히 용왕제와 줄다리기 등의 전통을 400여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 동령마을 용왕제는 마을 안 논에 있는 우물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매년 음력 정월 첫 용날(辰日)에 진행하며, 줄다리기는 매년 음력 대보름에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연날리기와 농악놀이, 달집태우기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해오고 있다.

방용현은 이처럼 전통이 잘 보존되어온 동령마을에서 태어나 방화준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으며, 이 마을에서 무속 악사로 종사했다. 당시는 무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어디 가면 세끼 밥 한 그릇 못 먹으랴’는 생각으로 빼저린 한을 품고 서울 왕십리로 이주해 대금 시나위에 열중하였다.

방용현은 절대라고도 불리는 대금(大竽) 시나위 연주와 해금 연주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대금은 시나위 외에도 정악대금(正樂大竽)으로 문묘제례악과 대취타(大吹打)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악(正樂)과 민속악에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악기이다. 당시 다수의 국악인들이 한 가지 악기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다뤘던 것처럼 방용현은 대금은 물론 해금도 자유자재로 연주해 해금 명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방용현은 이충선과 지영희에게 대금과 해금을 사사하였다. 방용현에게 사사받은 시나위는 나중에 한주환, 박종기의 대금산조를 바탕으로 이충선류 피리, 대금산조와 지영희류 피리시나위, 해금산조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금산조는 젓대시나위로 흔히 불리는데 박종기에 의해서 창시되었고, 그의 산조는 한주환을 거쳐서 한범수에게 전승되었다. 방용현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 젓대시나위로 유명하였고 그의 산조는 김원식에게 전승되었다. 경상도 지방의 강백천은 독특한 대금산조를 만들었고, 방용현의 제자 이충선과 김광식도 가야금산조를 모방하여 대금산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방용현의 주특기인 대금은 가로로 불게 되어 있는 횡적류(橫笛類)의 관악기로 다른 횡적류와는 다르게 입에 대는 취공부분을 연주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놓고 불고, 취공과 지공(遲攻), 지공과 지공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긴 편이어서 완성도 있는 연주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방용현은 1927년 5월 27일 경성여자미술학교 교우회 주최로 열린 조선정악 대회(朝鮮正樂大會)에 김형준, 이성환, 지용구 등과 함께 출연하여 행진할 때 연주하는 풍류인 행악(行樂)을 독주했다. 1930년 9월 15일에는 팔도명창대회에서 김기풍, 김만송, 김명수, 심상건, 지용구 등과 함께 풍류 공연에 출연했다. 1933년 8월 12일 조선악협회(朝鮮樂協會) 주최 ‘조선악 감상의 밤’ 때에는 명창 이동백, 해금산조의 명인 지용구 등과 함께 출연해 당대 최고의 소리와 연주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男女名唱網羅  
音律協會創立

선의 가곡(歌曲)과 음률(音律)을 개선하며 도발달 시키자  
국적으로 조선우물협회(朝  
普律協會)가 설립되었다. 주창  
이들은 조선가곡계의 유수한 명  
승만갑(宋萬甲)과 동백(李東  
璧) 등 남녀 수십여 명이며 그 외  
제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리고  
(李基世) 조학진(曹學珍) 케씨  
참가했다. 이 십오일 오후 네 시  
내국일관에서 그 창립총회를  
최하는 동시에 알에 와가 군  
원을 선거하고 명창의 연주가  
는 후 동아 흡시경에 폐회하였다.

조선음률협회 창립 기사(동아일보, 1930년 9월 27일 보도)

방용현은 1930년 만들어진 ‘조선음률협회’에 정회원이 되어서 라디오 방송과 무대 공연에 출연하는가 하면 음반 취입을 하는 기회도 만들었다. 또 굿청에 가서 대금을 연주하기도 하였고, 특히 일본 공연에서는 이동안 일행과 호흡을 맞춰 공연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습무 집안들끼리라서 서로 의기투합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나갔다.

1933년 8월 20일 조선음악학원(朝鮮音樂學院) 설립을 위해 진행한 ‘전통악과 무용의 밤’에는 최수성, 지용구와 함께 출연했으며, 1938년 5월 2일 전조선향토연예대회에서는 최수성, 김덕진, 지용구 등과 함께 신선음악(神仙音樂)을 연주했다. 방용현이 고재덕, 김주호와 함께 취입한 ‘진아리랑’, ‘성화타령’, ‘수심가’ 등은 SP시대 유명 레코드사였던 독일 폴리돌음반에서 발매했다.

1933년부터 1941년까지는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하여 검무의 무용곡, 무용풍악, 방아타령을 포함한 수십 곡의 민요와 ‘별우조타령(別羽調打令)’, ‘보령(報念)’, ‘보허자(步虛子)’, ‘본풍류(本風流)’ 등 수십 곡을 방송하였다.

106 • II 평택의 예인 藝人

방용현은 고향인 평택 등지의 굿청에서 대금을 불며 생계를 꾸려나가느라 서울 진출은 남들보다 늦은 편이었으나 예능적 재능이 매우 뛰어나 경기도도당굿 동령 제 시나위의 창시자가 되었다. 시나위는 여러 국악기의 각각 다른 소리와 즉흥적인 가락이 어우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떠는 소리와 흘러내리거나 꺾는 소리와 같은 높은 기량의 연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애절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다.

경기도도당굿 굿음악 명인들은 제각기 자신만의 음악 장르를 구축해나갔는데 방용현의 경우 우리나라 전통 굿음악의 즉흥적 기악합주곡인 시나위가운데 대금 시나위의 명인이기도 하고 그만의 즉흥적 가락과 기교가 특징인 경기도도당굿 시나위 동령제(東嶺制)를 만들어내 후학들에게 전수했다.

대금 시나위 명인 방용현의 피에서 흐르는 예술적 혼은 후대에도 이어졌는데 경기도도당굿의 마지막 시나위 연주자인 방돌근(방인근)은 그의 손자이며, 증손녀의 딸도 한영숙류 춤을 전수했다. 또 그의 제자로는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1935년 광무좌단장(光舞座團長)을 역임하고, 대한국악원 이사, 국악예술학교 교사,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활동한 대금 연주의 대가 김광식(金光植, 1911~1972년)이 있으며 또한 같은 광주 출신으로 빅타레코드사 전속악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장고, 대금, 피리 예능보유자였던 대금과 피리 연주의 명인 이충선(李忠善, 1901~1990년)이 있다. 이충선은 평택 출신인 지영희의 아내 성금연에게서 가야금산조를 배우기도 했으며, 1973년 신세계레코드사가 제작한 LP음반인 이은주, 묵계월이 취입한 <한국민요특선집>에서 해금 지영희, 가야금 성금연과 함께 피리를 맡아 반주했다.

방용현은 절대시나위로 불리는 대금산조로 유명하였고 그의 제자 이충선과 김광식도 가야금산조를 모방하여 대금산조를 만들었으며, 또 방용현은 같은 평택 출신으로 해금 시나위 명인 지영희에게도 대금 산조와 풍류를 가르쳐 지영희가 우리나라 국악의 대표적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부억쇠의 제자 이용우

오산시청 동쪽에 자리 잡은 오산시 부산동 화성재인청에서 1899년 태어났으며, 11대에 걸쳐 무업(巫業)을 대물림한 전통적인 세습무가(世襲巫家) 출신의 화랭이다.

8살 때부터 계모인 박금초에게 판소리를 배운 이용우는 10대에 화성재인청 출신인 부친 이종하가 이끄는 창극단을 따라 전국을 유랑할 당시 이동백과 송만갑 명창의 영향을 받기도 했으며, 한때 평택시 송탄에 거주하기도 했다.

이용우는 경기도에서 세습적으로 국악을 한 집안의 후손답게 음악에 재주가 빼어나서 경기도도당굿 가운데 가장 큰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군웅굿<sup>64)</sup>이나 손님

## (2) 김부억쇠

경기시나위 대금 명인 김부억쇠는 1800년대 말 평택시 청북읍에서 태어나 1920년대 초까지 활동한 무속음악인으로 본명은 미상이며 예명은 김부억쇠이다. 경기도도당굿 마지막 선학습꾼으로 불리는 이용우(李龍雨, 1899~1987년)의 대금 스승인 김부억쇠는 이용우에게 풍류 한 바탕과 삼현, 시나위를 가르쳤다. 김부억쇠가 이용우에게 사사할 당시 나이 차이가 할아버지뻘 되는 것으로 알려져 김부억쇠가 이용우보다 50살 이상 나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부억쇠의 제자인 이용우는 현재의

64) 군옹(軍雄)은 무당이 섬기는 신(神)의 하나인 무신(武神)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액을 막아 주는 신이다. 경기지방에서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는데 마을의 평안과 수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굿, 뒷전 등을 맡았다. 목구성이 우렁차고 굿을 하는 사설이 다른 이들보다도 풍부하여 높은 기량을 자랑하였는데 이는 스승인 김부억쇠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김부억쇠의 행적이 잘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 이용우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용우는 2000년 <경기 무악(京畿 巫樂)>이라는 음반을 내놓았다. 대금독주, 피리독주, 창, 집안굿 등이 담긴 이 음반은 김부억쇠에게 학습한 경기도도당굿 명인 이용우를 비롯해 이충선, 지갑성, 임선문, 전태용 등이 1974년 12월 18일 YMCA 강당에서 함께 출연했을 때 경기도 무속음악을 연주한 곡들을 모아 2000년 발매한 것이다.

음반은 모두 4매의 SD로 구성됐으며 대금독주, 굿거리, 자진굿거리, 당악, 긴 염불, 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 길군악, 가래조, 도살풀이, 도살풀모리, 휘모리 발뼈드래, 심방곡, 시나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김부억쇠의 제자 이용우는 평택시 이충동 출신으로 후에 경기도도당굿 전수교육조교였던 방돌근(方夏根)에게 대금시나위 장단과 가락을 가르쳤다.

김부억쇠의 아들은 1960년대 여성창극단 결성이 한창일 당시 창극단에서 대금 반주자로 활동했던 김기준으로 만년에는 고향인 평택시 청북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 (3) 지영희(池瑛熙)

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예능보유자였던 지영희는 1909년 9월 27일 포승읍 내기리에서 아버지 지용득(池龍得)과 어머니 김기덕(金基德) 사이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지천만(地千萬)이었지만 마을에서는 어려서부터



지영희(1909~1980년)



지영희가 태어난 포승읍 내기리 안터마을(왼쪽 중간)

지한식(地漢植)으로 불렸고, 영희는 그의 아호(雅號)이다.

지영희가 11살 되던 해인 1918년 그의 가족은 포승읍 내기리 안터에서 이웃 마을인 만호리 원터로 이사하였다. 포승읍 내기리와 만호리는 경기만에 가까이 있어 무속신앙이 발달했고 충청도 내포지방의 소장수들과 곡물을 실은 배와 어선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지영희 가문은 포승읍 일대에서 무업(巫業)으로 생계를 이었갔다. 지문일가(地門一家)의 세습무(世襲巫) 전통은 할머니 전석준에서 어머니 김기덕, 작은어머니와 여동생 지옥희로 이어졌다. 지영희의 스승이었던 지용구와 음악적 스승이자 동지였던 지갑성, 경기민요 명창 지연화도 지문일가(地門一家)의 명인들이다.

어린 지영희는 한문과 근대교육을 받으면서 가문 대대로 이어오는 무속음악을 자연스럽게 내려 받았다. 11세에 만호리로 이주한 뒤로는 경기도도당굿의 명인들로부터 다양한 기예를 익혔다. 지영희에게 처음 기예를 가르친 인물은 이석은이다. 지영희는 11살의 나이에 이석은에게 승무, 검무, 굽거리를 배웠다. 22세

에는 조항련에게 호적을 배웠고, 23세에는 정태신에게 양금을 배웠다. 또 24세에는 지용구에게 해금을 배우고, 양경원에게는 피리를 배웠다.

그 뒤에도 김계선에게 풍류대금을, 평택 이충동 출신으로 경기시나위 동령제 창시자인 방용현에게 민간풍류대금을, 최군선에게는 농악을, 오덕환에게 무용 장고 12채를, 박춘재에게는 경기서도민요를 배우는 등 배움의 열정을 이어갔다. 지영희의 배움의 열정은 민속과 무속을 아우르는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하였다. 그의 뛰어난 연주실력도 배움의 열정 없이는 이를 수 없는 경지였다.

지영희는 우리 국악뿐만 아니라 창작분야의 작곡에서도 1세대에 해당하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춰나갔다. 지영희는 ‘종합예술인’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해금과 피리를 비롯해 못 다루는 악기가 없이 모두 다루었고, 관현악 편곡과 지휘, 무용까지 모든 예술분야를 겸비했다. 이처럼 모든 장르의 예술분야를 섭렵한 예술가는 다시 탄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sup>65)</sup>

지영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4살 때부터 몇 차례 가출하였다. 가출 후 그는 굿판에서 악사를 했고 벌어들인 돈은 꼬박 모아두었다가 몇 년 뒤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영희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안 형편도 안정되자 새로운 음악의 도전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 배움을 통해 얻어진 지영희의 출중한 기예는 각 마을 두레째에서 영입 경쟁이 벌어져 마을사람들이 지영희의 집으로 와서 농사일을 대신 해주거나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구애(求愛)를 보냈다.

하지만 지영희는 고향에서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부모가 그랬듯 평생 천대받는 무속인으로 살기보다 인정받는 음악가이기를 원해 1937년 서울로 올라와 당대 최고의 고수이며 무용가였던 한성준의 조선음악무용연구소에 들어가 한성준과 최승희무용단의 악사로 활동하며 민속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악 위기 극복을 위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

65) 박범훈 중앙대학교 총장(면담 당시),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 김해규 연구위원 면담, 2010. 8.



한성준(1875~1941년)

이전까지는 무속의 반주악기로만 머물렀던 해금과 피리를 독주악기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이곳에서였다. 이 시기 조선 음악무용연구소의 한성준 음악무용단원으로 일본에 가서 음악무용 발표공연을 하고 음반을 취입했으며, 최승희무용단에서 관악무용곡을 편곡해 국내외 순회공연에서 연주하며 각 지방의 민속음악과 중국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지영희의 음악세계를 넓히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지영희는 1945년 평생 음악적 동반자로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

였던 성금연과 혼인을 한다. 성금연은 가야금산조의 창작과 판소리, 가야금 병창, 아쟁, 해금, 단소 등 다양한 연주에서 능했던 명인으로 당대 최고 명인들끼리의 결합은 음악적으로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발휘했다. 두 사람의 삶은 연주를 할 때나 작곡을 할 때도 서로 들어주고 의견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였다.

일제로부터 해방 후 위기를 맞은 우리 국악계는 국악을 재건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이 급선무였다. 해방직후 지영희가 국악건설본부 창설에 참여하고 대한국악원 창립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서구문화가 밀려오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 국악재건을 하기 위한 일념 때문이었다. 지영희는 1946년 민요 60곡을 레코드 취입하였고 서울방송국 전속국악사로도 활동하였다. 1947년에는 대한국악원에서 주최했던 국극 선화공주 공연에 12인조 악단을 조직하여 서양 오페라처럼 무대 전면에 세운 뒤 처음으로 지휘하면서 국악관현악단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1948년에는 음악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53년 대한국악원 산하에 ‘지영희고전음악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악과 고전무용을 가르치는 등 국악의 재건과 국악현대화를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지영희와 부인 성금연

지영희가 가장 잘 다룬 악기는 해금과 피리다. 하지만 태평소나 장구에도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지영희류 해금연주는 무속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금 산조에서 장단 사이로 드나드는 가락의 놀음새와 잉어질의 코믹한 연주법은 지영희류 해금연주의 특징이다. 다른 연주자들과 달리 무용반주, 민요반주, 기악반주, 독주와 같이 모든 분야에 해금연주를 하였던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영희는 피리연주에서 더듬치기, 혀치기, 목튀김 같은 특수주법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의 연주는 가락구성도 다양하고 섬세하여 무용가들이 매우 좋아하였다. 그 바탕에는 지영희 스스로 무용을 학습해 무용가들의 마음을 잘 읽어 연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경기시나위 안산제(安山制)는 지영희(池瑛熙)의 율제(篥制)로 해금산조는 대금 산조의 선율을 많이 본받았고 섬세하고 굴곡이 많다. 경기도 민요처럼 가볍고 경



성금연, 지영희, 김소희, 김윤덕(사진 왼쪽부터)

쾌하면서 중중머리 부분에서는 장단 사이로 드나드는 가락의 놀음새와 잉어질의 익살스러운 연주법이 특색 있다. 피리 연주는 더듬치기, 혀치기, 목튀김 같은 특수주법을 구사한다.

지영희의 음악세계는 전통의 충실했던 계승에만 있지 않다. 그의 위대함은 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데 있었다. 지영희는 그동안 반주악기로만 머물었던 해금, 피리, 태평소와 같은 악기를 독주악기로 발전시켰다. 악기로 독주를 하려면 그에 맞는 음악이 필요했다. 지영희류의 해금산조, 피리산조, 시나위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였다. 특히 즉흥성이 강조되는 경기시나위는 지영희에게서 크게 발전하였다.

지영희의 국악현대화 작업은 민속음악, 무속음악의 채보, 작곡, 교육, 관현악 연주로 이어졌다. 그동안 민속음악, 무속음악은 구음으로 전해졌을 뿐 오선보에 기록되지 못했다. 위기상황에서 오선보에 기록되지 않고 대중의 외면을 받는 음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미신타파

를 외치면서 국악의 뿌리였던 무속 음악, 민속음악은 미신의 범주에 들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영희는 국악교육과 연주를 위해서도 가락을 오선보에 기록하고 편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여겨 전국을 돌아다니며 채보활동에 온힘을 쏟았다.

지영희는 굿 음악을 중심으로 채보를 많이 했지만 민요도 빠트리지 않았다. 각 도별 민요는 물론 특히 호남지방 민요 채보와 편곡을 했고 이 때 단거리 이동 수단은 자전거였다. 그는 작곡을 배우기 위해 ‘가고파’를 작곡한 서양음악 작곡가 김동진과 작곡가 김희조를 모셔다 부인 성금 연과 함께 작곡 개인레슨을 받기도 했다.<sup>66)</sup>

지영희가 공을 들인 국악 채보와 작곡은 기존의 장르와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국악관현악단으로 승화됐다. 국악기로도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다양한 서양음악도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그가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국악관현악단이었다. 지영희는 1947년 국극 ‘선화공주’를 공연할 때 12인조 악단을 무대 전면에 내세워 연주했으며, 1962년 ‘악성추모제’에 국악예술학교<sup>67)</sup> 50여 명의 학생들로 관



지영희가 채보한 무속장단 육필 악보

66) 김영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면담 당시),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 김해구 연구위원 면담, 2010. 8.

67) 개교 당시 사립이었던 국악예술학교는 2008년 국립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명도 전통예술중 · 고등학교로 변경됐다.



악기 개량에 나선 지영희

력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관현악단은 기존의 국악기로는 음역을 폭넓게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지영희는 악기 개량 작업을 시작했다. 국악예술학교 한편에 악기제작소를 만들고 악기 제작자를 상주시켜 새롭게 연구한 악기 도면을 내밀며 국악기 제작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비파나 공후 같은 고대악기들을 개량해서 기존 국악기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음역대를 표현해 내곤 했다.<sup>68)</sup>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악관현악단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민속예술제’에 한국대표로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1963년에는 국악예술학교 부설 학생국악관현악단을 조직하고 창작곡 ‘신아위’를 지휘하였다. 학생국악관현악단을 모태로 1965년에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을 조직한 지영희는 제1대 악장에 취임하였고, 이듬해부터는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지영희의 국악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음반작업과 방송활동

현악단을 조직하여 초연(初演)하였다. 관현악단이 처음으로 연주한 ‘청하지곡’은 그의 창작 관현악곡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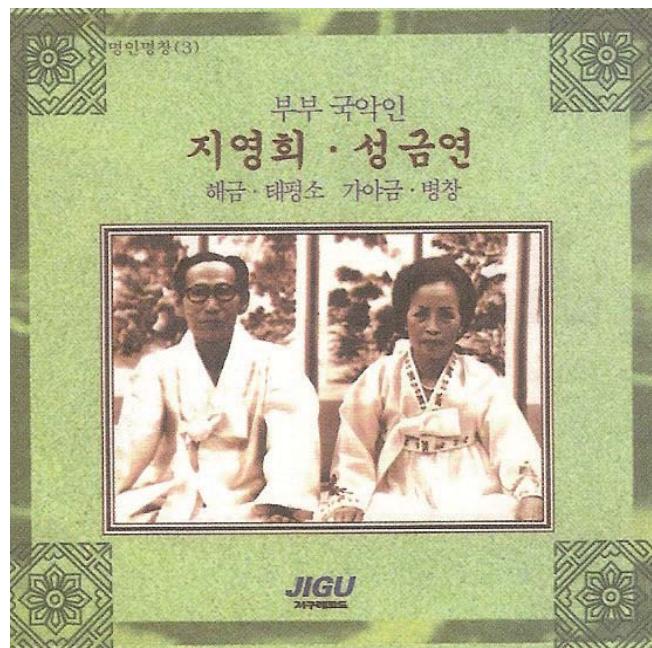
관현악에서 국악기가 낼 수 없는 베이스음을 얻기 위해 악기개량도 시도하였다. 지금도 국악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후, 비파, 대해금 같은 다양한 악기들은 지영희의 피나는 고뇌와 노

68) 최태현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장(면담 당시),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 김해규 연구위원 면담, 2010. 8.

그리고 영화음악 작업이다. 지영희가 처음으로 음반을 취입한 것은 서울로 상경하던 1937년 빅터레코드사의 민요와 대풍류다. 그 뒤로 한성준 조선음악무용연구소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빅터레코드를 취입하고 국악방송을 하였으며, 해방 후 고려레코드사에서 민요 60여 곡을 녹음하였다. 1947년에는 서울방송국의 전속국악사로 활동하였으며, 한국전쟁이 끝나던 해 서울 중앙방송국 국악전속 민요연구회에 입회하였다. 1956년에는 서양악기로 국악민요를 연주하여 80여 곡을 녹음하였으며, 킹스타 레코드사에서 고전음악 100곡을 취입하여 해외 판매를 시도하였다.

2003년 발매한 <해금시나위와 산조>에는 해금 시나위 명인 지영희와 해금 산조 명인 한범수가 대금산조 등의 여타 산조 가락을 이용하여 구성한 해금산조를 실어 우리나라 해금산조의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가슴을 저리게 하는 해금의 음색이 경기남부와 남도지역에서 전승되는 육자배기조 선율의 슬픈 느낌을 더해 준다. 해금으로 연주하는 시나위는 주로 경기와 남도지역의 무속음악에서 사용하는 반주음악으로 도살풀이, 모리, 살풀이 등의 장단에 맞추어 연주한다.

이 음반에는 지영희가 연주한 시나위-무장단의 즉흥연주, 시나위-도살풀이, 시나위-모리, 시나위-살풀이, 산조-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와 한범수가 연주한 산조-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가 수록되어 있다.



부부 국악인 지영희·성금연 연주 음반

지영희는 1950~1960년대에 영화음악에도 참여해 신상옥 감독의 사극영화 대부분의 배경음악을 맡았다. 그 가운데 ‘벙어리 삼룡’, ‘월하의 공동묘지’, ‘장희빈’은 지영희가 배경음악을 녹음한 대표적인 영화다.

무속음악인으로 천대받던 자신이 음악인으로 우뚝 선 것처럼 우리의 전통음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영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국악교육이었다. 1960년에 개교한 국악예술학교는 박현봉, 박귀희, 김소희 등 당대 최고의 국악인들과 뜻을 같이해 설립했으며, 지영희는 실기지도를 책임지는 예술부장으로 월급도 없이 가난한 학생들을 불러 모아 국악을 가르쳤다.<sup>69)</sup>

지영희의 교수법은 기본을 매우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피리연주에서도 반드시 폐활량 키우기 훈련을 먼저 한 뒤에 연주법을 익히도록 했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좀 더 성숙된 연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특히 제자들이 중·고등학교에서만 국악을 전공할 것이 아니라 대학과대학원에 진학해 졸업한 후 교수나 전문연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70)</sup> 그 결과 수많은 전문연주자와 국악교육자를 배출했다. 지영희류 피리 산조를 계승한 최경만, 박범훈, 이종대, 박승률, 김광복, 송선원, 한상일, 김재영, 해금을 계승한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신상철, 박정실, 홍옥미, 백정순, 대금의 이철주, 김방현, 최상화, 장구와 피리의 장덕화, 김덕수, 김용배, 최종실, 남기문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국내 많은 대학과 국악단 등에서 후학을 육성함은 물론 연주에서도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지영희는 “가락은 몸으로 전수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자신의 육성과 가락을 테이프에 녹음하여 제자들에게 전수한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유일무이한 일대 사건이었다.

민속 기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산조는 작곡자와 연주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에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집대성하여 가락을 짠 뒤 본인의 이름을 붙여 연주했다. 지영희는 자신만의 연주 세계를 구축해 지금도 많은 후배 국악인들이 그의 산조를 받아들이고 있다. 연주하지 못하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여러 악기에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지영희

두루 능통했던 지영희의 신명과 열정으로 가득 찬던 삶의 자취는 ‘지영희류 해금 산조’와 ‘경기 대풍류’등의 진수를 만들어 냈다.

해금산조는 20세기 초반에 지용구 해금 명인에 의하여 창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후에 지영희, 한범수 명인 등이 해금산조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현재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연주되고 있는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대금산조의 선율을 많이 본받았고, 섬세하고 굴곡이 많으며 경기도 민요처럼 가볍고 경쾌하면서 중증머리 부분에서는 익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범수류는 부드럽고 유연한 진행을 보이며, 가야금 선율을 많이 인용했다.

‘대풍류’라고 많이 알려진 관악기 중심의 멋스러운 합주곡인 ‘경기 대풍류’는 서울, 경기지역의 민간 음악인들이 전승해 온 합주곡으로, 염불(느린 염불-반염불), 타령(허튼타령-중허튼타령-자진허튼타령), 굿거리(굿거리, 자진굿거리),

69) 최태현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장(면담 당시),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 김해규 연구위원 면담, 2010. 8.  
70) 최경만 중앙대학교 교수(면담 당시),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 김해규 연구위원 면담, 2010. 8.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는 지영희

당악 등으로 이루어진 곡이다. 현재 국립국악원 등에서 연주하는 대풍류는 1960년대 지영희 명인이 구성해 전한 것이다.<sup>71)</sup>

지영희는 1972년 성금연, 김소희, 김윤덕과 함께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는 영예를 얻었고, 1973년 시나위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에 지정되었다. 하지만 지영희는 당시 국내에서 벌어진 국악계의 갈등 상황과 모든 국악의 뿌리였던 민속음악에 대한 천대 등을 이기지 못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라는 명예를 뒤로 한 채 1974년 부인 성금연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의 길을 택한다. 이민 후에도 오로지 국악 발전에 몰두해 오던 지영희는 하와이대학 강연과 국내에 있는 제자들에게 악보와 연주 테이프를 보내는 일을 해왔다. 지영희와 성금연의 폭넓고 해박한 음악지식과 뛰어난 연주 실력,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하와이 이민으로 순식간에 사라진 것은 우리 국악계의 큰 손실이었다.

하와이 이민시절에도 지영희는 국악의 장래를 염려하여 고국에 있는 제자들

과 지인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기 위해 힘을 쏟아 부었다. 이때 장구로 사라져가는 진세 외 16장단을 녹음해 제자들에게 건네줘 사물놀이 창시자인 김덕수, 최종실 등이 그 녹음테이프를 듣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희는 제자들에게 전수할 목적으로 장단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곁들여 진세장단과 올림채장단 등을 녹음하며 그가 알고 기억하는 것을 모두 쏟아냈다. 하와이에 이주해 제자들을 위해 녹음이라도 남기고 죽어야 된다는 심정으로 녹음에 임해 지금 그가 락이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의 활동과 제자 육성에 끈을 놓지 않았던 지영희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뒤로한 채 1980년 2월 2일 73세의 나이로 이국 땅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했다.

해금산조와 피리 시나위의 명인 지영희는 한국음악의 예인(藝人) 중에 예인으로 연주, 교육, 지휘, 춤, 영화음악, 악기개량, 국악관현악단 결성, 국악 현대화 등 민속음악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겨 현대 국악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다.

지영희의 위대성은 전통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키면서 우리 국악을 현대화 했다는 것이다. 서양의 오선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성을 일찌감치 알아 몸소 배운 후 가르쳤으며, 이제는 우리 국악을 학문화하고 이론화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 스스로 실천해 나간 국악계의 혁명가였다.<sup>72)</sup>

71) 박성복, 「평택의 전통 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72) 박성복, 「평택의 전통 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면담 당시),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 김해규 연구위원 면담, 2010. 8.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지영희

자신의 음악세계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자칫 궂판을 맴돌 뻔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 끝에 해금산조와 피리 시나위 명인으로, 한국음악 중흥의 도화선이 된 국악관현악단 창단의 주역으로 현재와 같이 한국음악을 꽂피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영희만의 안목지(眼目知)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73)</sup>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임봄은 민족음악의 아버지인 악성 지영희가 우리 국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업적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전승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그의 위대했던 삶을 추모시로 노래했다.

#### 민족음악의 아버지 지영희를 기리며

임봄<sup>74)</sup>/시인 · 문학평론가

그것은 평택 포승 앞바다에서 탄생한 것  
 천대받던 지문일가(池門一家)의 세습무(世襲巫)와  
 바다로 나간 장정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피리와 해금 호적소리 가득한 궂판으로부터

즉흥적인 가락이 온몸으로 스민 경기시나위  
 해금과 피리를 독주악기로 만들며  
 서양음악의 개방에 맞서려 했던

73) 박성복, 「평택의 전통 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74) 임봄 시인 · 문학평론가는 경기도 평택 출생, 2009년 『애지』로 시 등단, 2013년 『시와 사상』으로 평론 등단, 시집 『백색어사전』이 있다.

젊은 음악인의 피맺힌 고뇌와 절규의 가락  
경기민요인양 경쾌하고 익살스럽게 파고드는  
섬세한 굴곡의 해금산조와  
태평소와 장구가락을 자유로이 휘젓는 연주는  
끝내 우리의 것을 지키려던 그의 굳은 신념

채보, 작곡, 음반, 방송, 영화음악까지  
역사에 길이 남을 그의 투혼은  
국악학교를 세워 가르쳤던 우리민족의 열파  
제자들에게 전수한 교육으로 살아남아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원대한 꿈을 아는 자 누구인가  
평생을 천대받는 화랭이(花郎)의 운명처럼  
낯선 하와이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국악을 현대화 한 민족음악의 아버지  
국악을 학문화 한 실천의 혁명가  
살아있는 자유로운 푸른 영혼으로  
우리의 것을 지켜낸 위대한 음악가

꺼지지 않을 등불  
그의 이름은  
지, 영, 희!



성금연(1923~1986년)

## (4) 성금연(成錦鳶)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 성금연(1923~1986년)은 해금시나위 명인 지영희(池瑛熙)의 부인이자 음악적 동반자로 1923년 4월 10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전라남도 담양 또는 전라북도 순창 출생으로도 알려져 있는 성금연의 본명은 성육남(成六男)이며, 호는 '춘소'이다.

13살의 나이인 1935년 조명수(曹明洙)에게 가야금산조와 병창, 양금, 판소리를 배웠고, 그 다음해인 1936년 안기옥(安基玉)에게 가야금산조를

배웠다. 또 신쾌동에게 거문고산조, 최막동에게 가야금풍류와 산조를 각각 사사 받는 등 당대 최고의 명인들에게 교육 받았는데 이로 인해 그는 국악의 토양을 튼튼히 다져나갔다.

성금연은 어린 나이인 1938년 상경하여 지영희와 결혼하고 함께 음악활동을 했으며, 1938년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에 들어가 정정렬(丁貞烈)에게 판소리 춘향가를 전수 받았다. 일제강점기 가야금산조, 산조, 창극조 방송을 위해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 출연했다. 1939년 5월 13일 부민관에서 열린 조선소리경창대회에 출연해 가야금을 공연하였다.

1939년에는 최옥삼(崔玉三)에게 가야금과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남편 지영희(池瑛熙)의 친구인 박상근(朴相根)에게는 잠시 가야금산조의 중중모리를 배웠다. 그렇지만 그의 산조는 안기옥의 가야금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방 후 1947년 12월에 창단된 조선음악회(朝鮮音樂會)에서 지영희, 김광식, 김광채, 이충선 등과 방송활동을 전개했다. 1947년 전속조선음악회(專屬朝鮮音樂會) 민속악 분야의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문교부 편수국의 장사훈과 서울중앙방송국의 이혜구, 이계원, 이덕근, 송영호의 도움으로 방송활동을 전개했다.

1949년 여성국극동호회(女性國劇同好會) 회원으로 가입해 박녹주, 김소희, 박귀희 등과 함께 창극에 종사했으며 이때 임춘앵국극단(林春鶯國劇團)에서 연주와 연기도 직접 했다.

1948년 킹스타 오아시스에서 산조를 취입했고 그해 1948년 음악연구소를 세웠다. 1953년 고전음악무용연구소를 세웠다. 1958년 10월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가야금으로 1등상을 수상했고, 서울방송국 전속으로 활동하였다.

국악 후계세대 육성이라는 끈 꿈을 안고 국악예술학교(國樂藝術學校)<sup>75)</sup> 설립에 공헌했으며, 기악과 주임교사로 활약하는 등 개교 이후 12년간 교사로 재직했고 서라벌예술대학<sup>76)</sup> 강사도 역임했다.

1966년에는 남편 지영희가 만든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하여 제1악장으로 연주활동을 이어갔다. 이 시기 그의 창작곡인 공후[箜] 합주곡 ‘신라의 넋’이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 의해 연주되기도 했다.

성금연의 활발한 연주활동은 가야금산조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으며, 이로 인해 1968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의 산조부문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sup>77)</sup>

성금연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산조는 장구반주에 맞추어 다른 악기를 독주형태로 연주하는 것을 말하며, 4~6개의 악장을 구분하여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 순서로 연주한다.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가야금산조라 하고, 직접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가야금병창이라 한다.<sup>78)</sup>

산조는 조선 후기 사회 변혁기에 생성된 음악으로 이 음악을 만들고 즐겼던 계층인 민중의 사회의식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산조가 반영하고 있는 의식은 새로운 세계로의 지향과 개방성, 역동성이라 할 수 있다.

75) 현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됐다.

76) 1972년 중앙대학교와 통합됐다.

77)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승자 정보」, 『문화재청 누리집』, 2016.

78)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해설」, 『문화재청 누리집』, 2016.



다스름/진양조/중물이/느린 중중물이/중중물이/자진물이/휘물이/단물이

성금연 가야금산조 연주 음반

다른 악기의 산조에 비해 가야금산조는 가야금의 악기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러 명인들이 다양한 음악유파를 형성할 수 있었다. 명인 반열에 오른 성금연도 ‘성금연류가야금산조(成錦鳶流伽倻琴散調)’<sup>79)</sup>라는 유파를 만들어 냈다.

1973년 신세계코드사가 제작한 LP음반 3매의 〈한국민요특선집〉을 이은주와 묵계월이 취입할 때 가야금을 맡은 그녀는 해금 지영희, 피리 이충선, 대금 허상복, 아쟁 서공철, 장구 이정업과 함께 반주를 맡았다.

1968년 12월 2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伽倻琴散調 및 併唱)의 산조부문 예능보유자로 김윤덕(金允德)과 함께 지정됐으나, 1975년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해 5월 30일 예능보유자에서 해제됐다. 예능보유자 지정 당시 문화재청에 등록된 성금연의 등재 이름은 본명인 성육남(成六男)이었다. 1977년 6월 24일 민속악회 시나위의 지영희·성금연 초청연주회 때 출연하였

모든 산조는 느린 장단으로 시작하여 차츰 빠른 장단으로 바뀌는데, 이는 듣는 사람을 서서히 긴장시키며 흥겨움을 끌어올리게 한다. 가야금산조는 4~6개의 장단으로 짜이는데, 진양조는 아주 느리고 서정적이며 중모리는 안정적이다. 중증모리는 흥취를 돋우며, 자진모리는 밝고 경쾌하다. 휘모리는 흥분과 급박감이 있다.

79) 가야금산조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기악독주곡. 진양조, 중모리, 중증모리, 엇모리, 굿거리, 늦은자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세산조시) 등의 장단 중 산조에 따라 3~6개의 장단 구성에 의한 악장으로 구분되며, 반드시 장구반주가 따른다.

다. 1991년 6월 28일 KBS국악관현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 때 그녀의 창작곡 ‘흥(興)’이 연주되었다.

그는 안기옥 가야금산조와 박상근(朴相根) 가야금산조를 토대로 새로 ‘성금연류가야금산조(成錦鳶流伽倻琴散調)’를 만들어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 산조는 명쾌하고 감칠맛 있는 특성 때문에 다른 가야금산조 명인들이 만들어낸 류(流)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가장 많이 연주되었던 가야금산조 중의 하나이며 현재까지도 많은 국악인들에 의해 연주되고 있다.<sup>80)</sup>

1970년대에 들어서 성금연은 우리 음악에 관련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된다. 1970년 일본에서 열린 EXPO70에 한국민속예술단 단장 자격으로 참가했으며, 1971년 남편인 지영희와 함께 세운 ‘한국민속연구원’의 이사 겸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미국아시아학회 초청으로 미주 순회공연을 갖게 되는데 지영희, 김소희, 김윤덕 등과 함께 참여한 이 공연 가운데 카네기홀 연주는 성금연이 연주가로 경험한 가장 절정의 무대였다. 이 시기 그의 음악 속에는 강한 자신감, 도도함, 당당함이 살아 숨 쉬고 있었으며, 성금연의 음악여정(音樂旅程)에 있어서 뒤 돌아볼 틈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작곡에도 재질이 있어 ‘추상(追想)’, ‘새가락별곡’ 등 여러 가야금 독주곡

80)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사, 2012.



일본 ABC홀 공연 후 성금연(오른쪽)과 딸 자성자



성금연의 마지막 공연(딸 지미자·지성자·지순자와 성금연, 1986년 산울림소극장)

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그의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는 진양조 · 중모리 · 늦은중모리 · 중중모리 · 자진모리 · 휘모리 · 단모리로 구성됐고, 제자로는 딸인 지성자(池成子), 지미자(池美子), 지순자(池順子), 지윤자(池潤子), 지명자(池明子)와 이재숙(李在淑), 황병주(黃炳周)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수많은 가야금산조의 명인이 배출되었다.<sup>81)</sup>

그가 만든 작품들은 기존의 가야금곡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의 열두 줄로 된 전통가야금에서 벗어나 15현가야금을 사용해서 즉흥성이 강조된 무용음악적인 작품인 ‘춘몽(春夢)’을 발표하는가 하면, 산조의 장단 진행을 따르지 않고 농악장단을 가야금 속으로 옮겨와 ‘꽃의 향기’를 내놓았다.

또 15현 가야금을 통해 평조적인 가락을 살리고 특히 고음의 매력을 십분 살린 곡 ‘흥(興)’과 경기 무속장단을 가야금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의지로 ‘새가락별곡’이라는 결작도 내놓았다.

81) 박성복, 「평택의 전통 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성금연은 1975년 하와이로 이민 간 후 남편 지영희와 함께 몇 차례의 국내 초청공연,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국악 연구, 지영희의 전통음악 정리에 매진해오다 1986년 7월 28일 63세의 나이로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했다.

#### (5) 방돌근(方芻根)

경기시나위 대금명인 방용현의 손자인 방돌근은 1941년 2월 18일(음력)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방인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그가 태어난 경기시나위 동령제의 출발지 이충동(二忠洞)은 조광조와 오달제가 태어나 유년기를 자란 곳이다. 또 ‘평택 동령마을성터[平澤 東嶺城址]’의 흔적과 함께 치소(治所)와 읍성(邑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여 년 전부터 이충택지개발사업과 이충례포츠공원 조성으로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체육공원이 들어선 이충동 동령마을은 마을 안 논에 있는 공동우물에서 매년 정월 초정일(初丁日)에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용왕제(龍王祭)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각 가정에 터주, 제석, 성주, 업 등을 모시고 집안에 일이 있을 때나 정월과 7월, 10월 상달이 되면 집안에 있는 가신(家神)에게 치성을 드리는 전통을 올곧이 간직한 역사적 토양을 가진 마을이다. 이러한 전통이 있는 곳에서 태어난 방돌근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전통 신앙에 자연히 젖어 있었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다.

동령마을 방씨 집안의 남자들은 대부분 명이 짧았다. 옛날에는 자손이 귀한 집에서 자손을 천하게 키워야 장수를 하고 번성한다고 하여 이름을 천하게 짓거나



방돌근(1941~2001년)



이충동 동령마을 용왕제

교 때인 1959년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수원으로 다녔다. 수원에서는 경기시나위 남양제의 대가로 경기재인청 출신의 장유순 밑에서 피리 시나위를 익혔다. 장유순의 가문은 화성시 남양읍을 비롯한 인근에서 명성을 떨치던 세습무가였다.

장유순은 아침마다 방돌근을 찾아와 그가 갖고 있던 재주를 다 물려주었다. 장유순에게 남양제 시나위를 물려받은 방돌근은 1960년 경기재인청 도대방<sup>82)</sup>의 가문으로 오산시를 근거지로 활동한 이씨 세습무가의 마지막 화랑이 이용우에게서 그 어렵다고 하는 경기무악 장단과 도당굿 장단을 전수받았다. 당시에는 꼭 장단을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알려주는 것이 고작이었던 시절이었다.<sup>83)</sup> 하지만 이용우에게서 장구 장단을 배운 후에 바로 궂판으로 나설 정도로 방돌근의 학습 속도는 매우 빨랐다.

천한 직업을 갖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방돌근을 낳은 후 명이 짧을까봐 걱정한 할머니는 손자에게 험한 이름을 지어줬다. 명이 길어지기를 기원하며 지은 이름이 바로 ‘돌근(戛根)’이었다. 당시에는 궂판에서 음악을 맡아하던 악사들을 보고 ‘산이’라고 하여 매우 천시하는 직업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집안에서 방돌근을 산이의 길을 걷게 한 배경에는 명 짧은 집안에서 그가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

방돌근은 동령마을에서 태어나 당시 동령제 시나위의 창시자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할아버지 방용현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고등학

방돌근은 19세 되던 해인 1961년부터 이용우, 정팔봉, 오필선, 이덕만 등 내로라하는 경기도 세습무가의 화랭이와 함께 경기도 일원의 도당굿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으며, 전국 각처를 다니면서 굽음악을 하기도 했다.<sup>84)</sup>

방돌근이 굽음악을 제대로 배운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현장에서 많은 스승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일을 나간 곳에는 당시 굽음악의 대가들인 정명환, 조만봉, 이덕순, 하대봉, 정달용, 임달봉, 김삼봉 등과 함께 굿판에 들어섰으며 40년이 넘는 세월을 굽음악과 인연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정부가 각 지역의 굽음악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활동 무대였던 수원으로 돌아와 다시 굿판에 섰고, 199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이수자로, 2000년 8월 22일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됐다.<sup>85)</sup>

50대에 들어선 방돌근은 1993년 예술의 전당 ‘명인명무전발표회(名人名舞傳發表會)’에 참여했으며, 1998년 국립국악원과 KBS 한국방송이 공동으로 녹음한 경기도도당굿 CD를 발간했다. 1995년부터는 부산해운대축제, 수원화홍문화제, 용인민속촌, 서울경복궁, 서울놀이마당, 88서울올림픽 성공개최굿한마당 등 100여회 공연에서 경기도도당굿 전통 장단과 신을 부르는 청배 사설을 진행했다.

방돌근은 후배 국악인 양성과 잊혀져가는 굿 재현에서 앞장섰다. 199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과 특강을 비롯해 2000년 3월부터는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국악 강사로 활동했으며, 2000년 2월에는 화성 서해안 풍어굿 재현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굿판에서는 ‘장단 잘 치고 피리 잘 부는 사람’으로 방돌근을 칭했다. 방돌근

82) 조선후기 3道에 있던 재인청 중에서 경기도 화성에 있던 재인청의 수장인 대방(大房)이 각 도(道)를 총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화성재인청의 대방을 도대방(都大房)이라고 불렸다.

83) 하주성, 「경기도 옛소리 기행」, 『경기일보』, 2002. 12. 29.

84) 박성복, 「평택의 전통 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85)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전승자 정보」, 『문화재청 누리집』,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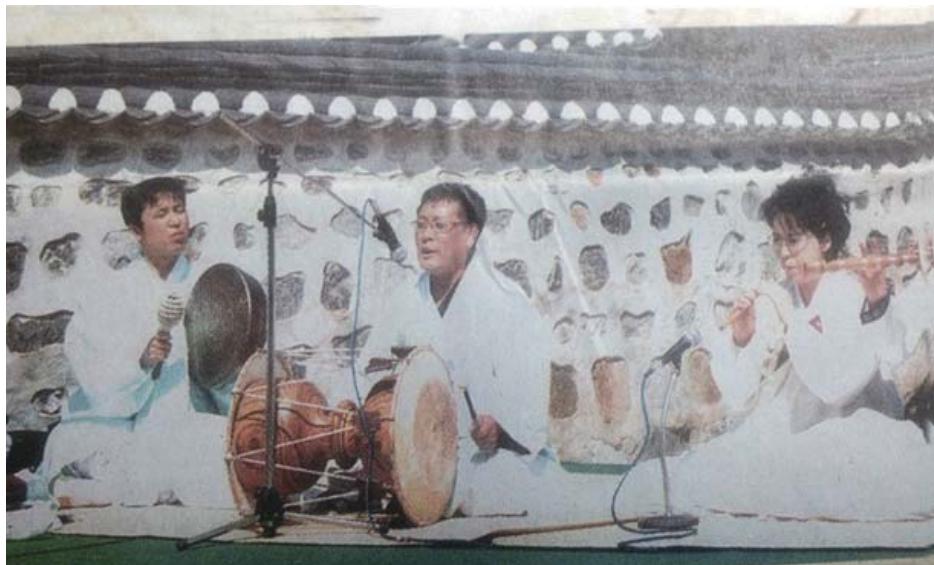
이충동 동령마을 전경

은 그 어렵다는 도당굿 장단을 손가락 안에서 화려하게 구사했다. 그의 피리시나 위를 듣다보면 가벼운 듯 무겁고, 무거운 듯 하면서도 깊게 가라앉지 않는다.<sup>86)</sup>

방돌근은 경기도도당굿 가운데 신격을 청해서 모셔오기 위해 가장 먼저 불리는 소리인 ‘청배(請拜)’에 뛰어났으며, 화랭이들의 소리와 음악을 고스란히 간직해 도당굿의 발굴과 보존, 전승에 평생 공을 들여왔다.

청배(請拜)는 거리의 신격들을 청원해 굿청에서 흠흥<sup>87)</sup>하도록 소리로 모셔드리는 과정이므로 경기도도당굿에서 청배는 매우 중요하며, 그 소리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흔히 청배는 부정청배, 시루청배, 제석청배, 군웅청배 등이 불리고 있다.

200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돼 후진 양성과 연주 활동을 왕성하게 해오던 방돌근은 국립국악고등학교 강사로 활동하며 생전 처음 제자들과 함께 개인발표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2001년 5월 17일 개인 발표회를 4일 앞두고 60세의 나이로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못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방돌근의 문하에서 배운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의 자취를 따라 흔적을 더듬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배(請拜)를 하고 있는 방돌근 |

방돌근이 작고하자 전통음악인들은 “이제 경기도의 음악은 끝났다”라는 말로 아쉬움을 표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세상을 뜨기 일 년 전부터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음악적 기량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을 날마다 집으로 불러들여 그가 가진 모든 역량을 혼신을 다해 전수했다. 전수생들에게 장단을 하나하나 알려줄 때도 그가 아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몇 번이고 반복하는 등 참으로 정이 많았다고 제자들은 기억한다.<sup>88)</sup> 방돌근의 경기 시나위는 김현주, 안재숙, 김현숙, 김홍수에게로 전해졌다. 그는 또 승경숙에게 경기도도당굿 장단과 창법을 지도했으며, 목진호 역시 방돌근에게 이어진 경기도도당굿 장단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경기도도당굿보존회 이수자이다.

경기도도당굿 남부지부장 승경숙은 처음에는 경기도도당굿이 낯설기만 했다고

86) 하주성, 「경기도 옛소리 기행」, 『경기일보』, 2002. 12. 29.

87) 제단(祭壇)에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리면 신명(神明)이 제물(祭物)을 받는 것을 말한다.

88) 하주성, 「경기도 옛소리 기행」, 『경기일보』, 2002. 12. 29.



경기도도당굿 남양제의 명인 방돌근

경기시나위를 구가하던 악사였다.<sup>89)</sup>

경기시나위는 크게 남양제(南陽制), 동령제(東嶺制), 안산제(安山制), 광주제(廣州制)로 나뉜다.

안산제(安山制)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예능보유자였던 지영희가 창안하고 연주했던 제(制)로 현재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충선의 광주제(廣州制) 시나위 역시 산조가 정착되어서 국립국악고등학교로 전승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京畿道都堂굿) 전수교육 조교 방돌근의 할아버지인 방화준의 동령제(東嶺制)는 전승이 끊겨 아쉬움을 더 한다.

현재 경기도에 전승되고 있는 유일한 제(制)는 남양제(南陽制)로 방돌근에 의해 그의 제자들과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전승되고 있다. 남양제는 경기도 화성 남양을 근거지로 집단 거주하며 경기도도당굿을 전승시켜온 세습무가(世襲巫家)인

한다. 경기도의 판소리인 판배개 창으로 불러대는 도당굿의 소리가 따라 하기조차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든 도당굿의 춤사위며 장단, 소리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전수교육 조교인 방돌근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방돌근은 이 시대의 마지막 전악이라고 할 만큼 도당굿의 장단과

89) 하주성, 「경기도도당굿 남부지부장 승경숙을 만나다」, 『e수원뉴스』, 2014. 2. 8.

90) 피리서로 연주하며 목을 뛰기는 소리를 말한다.

91) 송선원 지영희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연구위원 면담, 2016. 11.

남양 장씨들이 창시자로 150년간이나 전승되어온 시나위다. 창시자 장만용으로부터 장점복, 장홍봉으로 전수가 되었다가 조암에 거주하던 문상근에게로, 다시 장유순에게로 전승되어 방돌근에게 전해진다.

방돌근의 피리시나위 가락은 생전에 연주한 가락이 전해지는데 경기도도당굿의 도살풀이 장단인 섭채장단 2소박 6박(6/4박자)으로 시작하여 모리장단의 조금 빠른 3소박 4박(12/8박자) 장단으로 이어지며 점점 빨라지면 조금 빠른 모리장단으로 부르고 계속 음악이 빨라지면서 매우 빠른 발빠드래장단으로 연주되었다.

방돌근 피리시나위의 특징은 지영희 시나위와 선율진행이 비슷하나 가끔씩 목튀김<sup>90)</sup>을 하면서 연주하는 것이며,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김현주에 의하면 일정한 가락으로 짜인 것이 전해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연주한 것을 무업에 종사하는 악사들 일부가 배웠다고 한다.<sup>91)</sup>

#### 4) 평택의 세습무(世襲巫) 가문(家門)

##### (1) 지문일가(池門一家)

지문일가(池門一家)는 예인(藝人)으로 악기연주, 국악교육, 지휘, 영화음악, 무용음악, 악기개량, 국악 현대화 등 우리나라 민속음악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인 지영희(池瑛熙)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속음악계의 큰 계보를 형성해 온 가문이다. 아버지 지용득(池龍得)은 무악(巫樂)을 집안대대로 세습한 피리, 호적, 해금의 명인이며, 어머니 김기덕(金基德) 또한 세습무당인 미지였기 때문에 집안이 자연스럽게 무악(巫樂)을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작은 아버지 지갑득(池甲得)도 경기시나위 연주자였고, 부인도 미지로 활약했다. 지영희의 바로 아래 동생 지천석(池千石)도 피리와 해금의 명인이며, 지영희가 서울로 올라가 재혼해 맞이한 국악인 성금연(成錦鳶)은 가야금산조의 명인이다.



지영희·성금연 가족사진(1972년)

지영희는 자녀들도 대부분 국악 연주자로 활동했는데 10남매의 자녀들 중 정경순(鄭景淳)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지수복(池壽福), 성금연(成錦鳶)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지성자(池成子), 지미자(池美子), 지순자(池順子), 지윤자(池潤子), 지명자(池明子)가 음악인으로 지문일가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sup>92)</sup>

둘째딸 지수복(池壽福)은 지영희, 성금연, 김소희, 박초월, 송순섭에게 사사를 받았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와 지수복판소리연구원장으로 최근까지도 가야금병창 개인 연주회를 가졌다. 지성자(池成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산조 보유자이며 성금연가락보존회장으로 성금련류 가야금산조를 이어가면서 국내 최초 15현가야금 개량과 연주곡을 작곡하는

92) 박성복, 「평택의 전통 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미자(池美子)는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를 계승하면서 국악 활성화를 위해 국악 공연 전문기획사를 운영하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예술학교에 출강했다. 지순자(池順子) 또한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를 계승하면서 지영희민속 연구회장을 맡아 가야금 독주음반을 냈고 성금연 가야금 산조의 맥을 잊고 있다.

지윤자(池潤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과 산조 전수자로 미국에 이민을 간 후 40년간 가야금 연주 활동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가야금 강습을 진행하는 등 해외에 우리 국악을 전파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막내딸 지명자(池明子)는 제6회 신인예술상 국악부문을 수상하며 국악 신예로 이름을 알리는 등 대부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지문일가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영희의 직계 가족 외에도 지영희와 일가인 충주 지씨 가문에는 피리, 해금, 대금, 호적의 명인인 지갑성을 비롯해 지영희에게 해금을 사사한 지용구, 경기민요의 지화자 등 많은 예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생존하는 후손들도 다수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평택의 지문일가(池門一家)를 비롯해 전라도 남원의 송문 일가(宋門一家), 충청도 서산의 심문일가(沈門一家)가 근대 한국 음악계를 이끈 최대 명문가계이다.<sup>93)</sup>

## (2) 방문일가(方門一家)

한 시대 대금 시나위의 최고 권위자였던 방용현의 고향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에는 방용현과 그의 손자 방돌근이 살았던 집터가 근래까지 남아있었지만 최근 도시개발로 사라졌다. 그의 집터는 이충동 동령마을 마을회관 서쪽 바로 옆 구릉에 위치해 있었지만 2016년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

93) 박성복, 「평택의 전통 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용왕제와 대보름 축다리기가 전해 오는 동령마을

만큼 지형이 크게 변했다.

경기시나위 대금 시나위 명인 방용현(方龍鉉)이 태어난 이충동 동령마을은 부락산 끝자락으로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며, 방용현의 아버지도 무악(巫樂)을 세습한 피리, 대금의 명인이었다.

방용현은 어려서부터 고향인 평택을 비롯해 화성, 수원 등지의 굿청에서 대금을 불며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자신만의 연주 장르를 구축해 즉흥적 가락과 기교가 특징인 경기시나위 동령제(東嶺制)를 창시했다. 동령제를 창시한데는 그의 음악적 뿌리였던 동령마을의 세습무악이 기초가 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방용현의 손자로 경기도도당굿 피리 시나위 명인 방돌근(方夏根)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무악(巫樂)에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다. 특히 동령마을은 500여년 전통의 용왕제(龍王祭)와 가신(家神)에게 치성을 드리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방

돌근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를 보고 자랐다.

방돌근은 성장하면서 경기시나위 명인들과 교우하면서 무악(巫樂)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으며 할아버지 방용현의 동령제(東嶺制)와는 다른 남양제(南陽制)를 학습해 방돌근만의 음악세계를 넓혀갔으며, 제자들에게 전수했다.

방돌근은 동령마을에서 출발한 대금 시나위 명인인 할아버지 방용현의 피 속에 흐르는 예술적 혼을 이어받았다. 방용현의 증손녀의 딸도 한영숙류 춤을 전수했다.

평택 이충동 동령마을 방씨 가문은 화성 일원에 퍼져 살던 세습무가 임씨, 문씨, 이씨 가문 등과 서로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세습무가를 존속시켜 왔다.

### 3. 농악(農樂)

#### 1) 사당패(寺黨牌)의 유래와 평택지역 남사당(男寺黨)

남사당(男寺黨)놀이는 조선후기부터 1930년대까지 행했던 놀이로 우두머리인 꼭두쇠를 비롯해 40~60여명의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연예인인 남사당패가 놓어 촌을 돌며,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행한 놀이다. 남사당놀이는 서민사회에서 자연 발생한 민중놀이지만 양반들로부터 박대를 당해 마을에서 공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다.

남사당패는 꼭두쇠를 정점으로 공연을 기획하는 화주, 놀이를 관장하는 뜬쇠, 연희자인 가열, 새내기인 빼리, 나이든 저승패와 등짐꾼 등으로 이루어진다. 남사당놀이는 풍물, 벼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의 여섯 마당으로 구성된다.

‘풍물’은 농악놀이로 공연 시작을 알리면서 구경꾼을 유도하기 위한 놀이이며,



조선풍속 남사당 놀이패(일제강점기 사진엽서)

남사당패가 연행하는 풍물은 평택농악 가락인 웃다리농악을 바탕으로 한다.

‘벼나’는 접시돌리기와 비슷하게 챗바퀴나 대접 등을 막대기나 담뱃대 등으로 돌리는 묘기이다.

‘살판’은 오늘날의 텁블링과 같은 땅재주로,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름’은 줄타기 곡예를 이르는 말로 열음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것만큼 어렵다 하여 남사당패 내에서만 쓰이던 말이었으나 점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덧뵈기’는 탈을 쓰고 하는 일종의 탈놀이이다. 특히 덧뵈기는 경기도 평택과 안성지역이 전국적 조직의 구심이 되어 충청도 회덕과 당진, 경상도 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는 ‘사당골’과 ‘불당골’이라는 명칭의 마을에 산재했던 ‘사당’과 ‘남사당패’들이 연희한 탈놀이의 이름이다.<sup>94)</sup>

인형극을 이르는 ‘덜미’는 인형극에 나오는 중요 등장인물에 따라 꼭두각시놀



남사당 진위패의 본거지였던 진위면 봉남리 전경

음, 박첨지놀음, 흥동지놀음이라고 부른다. 특히 꼭두각시놀음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인형극은 남사당놀이밖에 없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크다.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은 보통 7~8시간가량 소요돼 저녁밥을 먹은 후 시작하면 새벽 넘어까지 연행이 이어진다.

남사당놀이는 서민층에서 발생하여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이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한과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놀이를 통해 비판하며 풀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sup>94)</sup>

조선후기 5대 남사당패의 하나였던 남사당 진위패(男寺黨 振威牌)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94) 심우성, 『남사당패연구』, 동화출판공사, 1974.

95)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해설」, 『문화재청 누리집』, 2016.



사당패의 걸림

조선 고종 4년(1867년)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기념해 건축에 참여했던 석공과 목수 등 기술자들을 불러 위안잔치를 펼쳤는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무렵 ‘진위남사당’ 공연이 시작됐다. 왕의 초청을 받은 일꾼들은 푸진 음식과 흥겨운 음악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고 진위남사당 공연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다.

이날 경복궁 건축 위안공연은 성공적이었고 흥선대원군은 흥을 한껏 돋워 분위기를 최고조로 올린 진위남사당을 불러 ‘진위군대도방권농지기’라는 농기[都大房旗]와 3색 어깨띠를 하사하고 상쇠 김덕일에게 ‘오위장(五衛將)’벼슬을 내렸다.

조선 후기 전국의 사당패 중에서도 평택 진위지방을 중심으로 유세기의 부친이 주도한 ‘진위사당패(振威社黨牌)’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평택지역에 농악도 발달할 수 있었다. 과거 전국 5대 사당패의 하나였던 평택 진위패의 파일난장굿은 그 규모가 인근에서 볼 수 없는 최대였다고 전해진다.

평택농악의 계보를 이야기 하자면 유세기의 부친 유준홍과 유세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세기의 부친 유준홍은 1860년대 이전부터 남사당을 키워왔으며, 그의 아들 유세기는 1984년 당시 91세의 나이에도 전국 5대 놀이패인 진위패를 육성했고 농악과 시조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는 『시조 창법』<sup>96)</sup>이 있고, 작고할 때까지 평택 진위면 봉남리에 거주했다.

96) 유세기가 쓴 『시조창법』은 1957년 발간됐다.

1930년대까지 활동했던 남사당패는 심선옥패와 오명선파, 안성복만이패, 원윤덕패, 이원보패 등이 있다.<sup>9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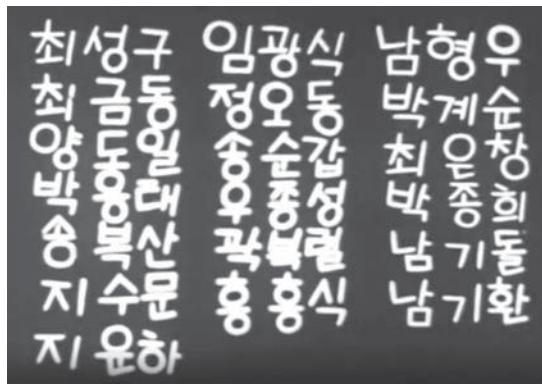
‘심선옥패(沈善玉牌)’는 진위남사당(振威男寺黨)을 이어받은 패거리로 주로 평택과 화성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을 순회하며 활동했다. 주요 연행자는 김문학, 양도일, 송순갑 등이다. 평택농악 예능보유자였던 이돌천은 1945년 26살의 나이에, 평택농악 예능보유자 김용래는 1950년 16살의 나이에 송순갑의 요청으로 이 행중에 참여했다.

‘오명선파(吳明善牌)’는 꼭두각시놀음의 우두머리로 대접이었던 남운용(南雲龍, 남형우)과 호적수(號笛手)였던 정일파가 이 패거리 출신이며, 평택농악 예능보유자였던 최은창도 남운용 행중에서 부쇠로 활동했다.

‘안성복만이패’는 안성 개나리패를 이어받은 패거리로 꼭두쇠 김복만이 이끌어 오면서 주로 경기도 이북지방에서 활동했다. 전근배, 최성구, 박종휘, 정일파, 양도일, 남운용이 이 행중의 일원이었다.

‘원윤덕이패’는 안성복만이패를 이어받은 패거리로 1939년 만주 북간도(北間島)까지 가서 활약했으며, 그곳에서 해산됐다가 광복 후 다시 조직됐다. 단원은 평택출신으로 평택농악 예능보유자였던 최은창과 남사당놀이 예능보유자였던 송창선 그리고 지수문, 송철수 등이었다.

‘이원보패’는 주로 서울 변두리와 경기도에서 활약한 패거리로 평택농악 예능보유자였던 최은창이 1933년 32살의 나이부터 1937년까지 5년간 활동했다. 또



초창기 민속극회 남사당 참가 예인들(기록영화)

97) 심우성, 『남사당패연구』, 동화출판공사, 1974.



진위면 봉남리(1960년대)

평택농악 예능보유자였던 이돌천도 1937년 18살의 나이에 이 행중에 참여했다.

1960년 ‘민속극회 남사당’을 창립할 때 평택출신으로는 송창선, 최은창, 이돌천이 참여했으며, 이후 1970년 김용래가 남사당에 합류했다. 당시 송창선은 호적과 덧뵈기로, 최은창은 장구와 덧뵈기로, 이돌천과 김용래는 범고로 활약했다.

이후 송창선은 1964년 12월 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호적부문 예능보유자가 되면서 남사당의 일원으로 활동을 지속했지만 최은창과 이돌천은 1985년 12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상쇠부문과 상법고부문 예능보유자가 되면서 남사당을 탈퇴했다. 김용래는 2000년 8월 22일 평택농악 상쇠와 무동놀이, 법고부문 예능보유자가 되면서 남사당을 탈퇴한 후 평택농악 전승에 전념했다.

## 2) 남사당 진위패(男寺黨 振威牌) 육성자와 명인

### (1) 유세기(柳世基)

유세기는 1900년 초 전국 5대 놀이패인 남사당 진위패(男寺黨 振威牌)를 육성한 아버지 유준홍(柳俊弘)과 어머니 박납천(朴納天)의 다섯째 아들로 1893년 지금의 진위초등학교 정문 앞인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333번지에서 태어났다. 유세기의 집은 당시 진위군 봉남리 관아 인근 진위객사 앞에 있었다.

유세기의 아버지 유준홍은 진위현 관청의 아전(衙前)이었다. 아전은 이서(吏胥)라고도 불리는데, 크게 경아전(京衙前)과 외아전(外衙前)으로 구분됐다. 유세기의 아버지 유준홍은 외아전이면서 진위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아전을 해온 향리(鄉吏)였다. 외아전인 향

리는 조선 초부터 과거응시 자격이 대폭 제한되었으며, 녹봉도 없었고, 세종조부터는 이들에게 주어오던 외역전(外役田)도 혁파되었다.<sup>98)</sup>

유세기의 아버지 유준홍(柳俊弘)은 관리로 일했지만 녹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솔을 만들어 파는 솔전을 대대적으로 운영했다. 솔을 만드는 솔전을 운영하려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전국에서 농악에 소질 있는 풍물꾼들로 뽑아 종업원으로 등용했다. 풍물꾼들은 평소에는 솔전에서 솔 만드는 일을 하게 했고, 주문이 없는 한가한 겨울철에는 틈틈이 농악을 배우도록 했다.

1867년(조선 고종 4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되자 경복궁 건축에 참여한 인부들의 흥을 북돋아주기 위한 위안공연을 진행했다. 이때 유준홍이 육성한 남사당 진위패는 흥선대원군 앞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대원군으로부터 ‘진위군대도방권농지기’라는 농기[都大房旗]와 3색의 어깨띠를 하사받았다. 또 당시 상쇠를 맡았던 김덕일에게는 ‘오위장(五衛將)’이라는 벼슬이 내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그 당시 남사당 진위패가 웃다리농악을 대표할만한 출중한 실력이 있었고, 전국에서도 유명한 존재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99)</sup>

유세기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전통 풍습을 금지하



솔전에서 일하는 노인(1920년대)

9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99) 평택문화원, 『소사별』 창간호, 1984.



진위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진위면 봉남리 유세기 가옥

는 민족문화 말살정책을 펼기 때문에 남사당패 활동을 위해서는 경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유세기는 이 시기 안성군경찰서에서 경찰서장 바로 아래 직급 간부인 경부(警部)<sup>100)</sup>로 재직 했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남사당놀이를 금지했으며,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허가를 내줘야만 판을 벌일 수 있었다. 시대적으로 풍물과 걸립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안성군경찰서에서만 남사당놀이를 허가해주었는데 여기에는 경부였던 유세기의 영향이 컸다.<sup>101)</sup>

경기도 진위(振威), 충청도 회덕(懷德)과 당진(唐津), 전라도 강진(康津), 황해도 구월산, 경남 남해(南海)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던 사당패들은 휴면상태로 고사 직전에 있었으며, 유세기가 사당패를 허가해준다는 소식을 들은 예인들은 평택과 안성지역으로 집중 이주하게 됐다. 이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 재능을 썩히고 있던 전국의 남사당패들은 평택 진위 봉남리와 안성 청룡사를 본거지로 사당

100) 경부는 일제강점기 경찰 조직에서 순사-순사부장-경부보-경부-경시-경시정-경시장-경시감-경시총감 직급 단계에서 지방 경찰서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경무관인 경시(警視)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 판임 경찰관을 말한다.

101) 박성복, 「평택농악」, 『평택민속지』 상권, 평택문화원, 2009.

패의 중심지가 됐던 것이다.<sup>102)</sup> 진위사람 유세기의 결단으로 인해 평택, 안성, 화성 등지의 농악은 이른바 경기농악의 전형적인 특징인 두레농악과 걸립패농악의 특징을 갖게 됐으며, 이러한 웃다리농악은 경기도와 충청도 전역, 강원도 영서지역 등 매우 넓은 지역으로 분포되어 왔다.<sup>103)</sup>

남사당 진위패로 활동한 인물로는 이운선(李雲仙)이 있는데 이운선은 진위패의 곰뱅이쇠<sup>104)</sup>로 그는 진위패 덧뵈기쇠<sup>105)</sup> 이경화를 가르쳤다. 이경화는 안성 청룡사를 거점으로 당시 조정(朝廷)<sup>106)</sup>까지 출입하던 바우덕이<sup>107)</sup>의 힘을 빌려 안성 개다리패 초보자들에게 덧뵈기를 가르쳤다. 이경화가 덧뵈기를 가르친 사람으로는 평택 출신 최경선, 이천 출신 정성보와 이일용, 안성 출신 이재근과 이복만, 함경도 안변 출신 이성근, 충청남도 당진 출신 김근배와 정일파, 충청남도 대덕 출신 양도일, 충청남도 괴산 출신 남형우, 경기도 출신 최성구, 충청남도 은산 출신 송순갑 등으로 이경화는 그들과 함께 1930년대 중반까지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 이 덧뵈기는 이경화의 후예인 안성 복만이에게 사사한 김근배, 정일파, 양도일, 남형우, 최성구, 송순갑 등과 그들에게 다시 배운 평택 출신 최은창과 송창선,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 출신 지수문, 경상남도 진주 출신 송철수 등에 의해 명맥이 이어져왔다.<sup>108)</sup>

이처럼 남사당 진위패(男寺黨 振威牌)는 안성 바우덕이패에 속한 예인들을 비롯해 다른 행중의 예인들까지 가르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남사당패에 예능을

102) 심우성, 『남사당패연구』, 동화출판공사, 1974.

103) 평택군문화원, 『평택문화』 창간호, 1992.

104) 남사당패에서 우두머리인 꼬두쇠 다음의 부두목으로 곰뱅이쇠는 기획 업무를 수행했다.

105) 남사당패의 일원인 여러 탈꾼 중 우두머리가 덧뵈기쇠로 대체로 취발이 역을 맡은 탈꾼이 덧뵈기쇠를 맡는다.

106) 왕이 나라의 정치를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집행하는 곳.

107) 바우덕이의 본명은 김암덕(金岩德)으로 안성 남사당패의 꼬두쇠였다.

108) 심우성, 『남사당패연구』, 동화출판공사, 1974.



| 유세기가 쓴 『시조창법』

봉(三峰) 정도전(鄭道傳), 홍익한(洪翼漢) 등 평택 관련 인물이 쓴 시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시가 포함되어 있다.

유세기는 이 책에서 과거 시조를 낮게 취급한 적이 있었지만 시조 강습회가 열리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보급 활동이 전개됐음을 소개하고 있다. 해방 후 1950~1970년대 시조가 한창 보급될 당시 평택에서도 마안산 등을 중심으로 몇몇 동우회원들이 산에 올라가 시조를 읊는 일이 잦았다. 이후 시조 보급 사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유세기는 한국농악협회 초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조 강습법을 연구해 중학교

연마시켜주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이 무동놀이 등 사당패의 연희성과 걸립굿 등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것은 남사당 진위패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세기는 시조에 대한 이론이 해박하고 시조를 부르는 예능적 자질이 뛰어나 1957년 등간본으로 『시조창법(時調唱法)』<sup>109)</sup>을 발간했다. 이 책은 시조를 부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시조 입문서이다. 이 책에는 시조를 부르는 원인(原因), 계통(系統), 종류(種類), 시형(時形), 박자(拍子), 장단(長短), 성휘(星彙), 악보(樂譜), 격식(格式), 가사(歌詞), 고시조(古時調) 등을 장장 150페이지에 담았다. 고시조에는 삼

109) 유세기의 『시조창법』은 1957년 문화당 간행. 현재 남아있는 책은 많지 않으며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연구위원 소장.

3학년 정도 수준에서 한 두 시간이면 시조를 부를 수 있도록 표준교육안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세기가 쓴 《시조창법》에 상세하게 담긴 것이다.

해방 후 갑자기 시조가 나타났다. 전에는 특별한 연회석상에서 기생들이 권주가로 한마디 부르는 법이 있고 그 외에는 충청도 방면을 주로 연마한 지방 인사들이 심심풀이로 모여앉아 읊는 일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시조는 사계에서 거의 없어졌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던바 새삼스러이 이를 찾아내어 어느듯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되었다. 시조유취를 본받은 각종 책자가 쏟아져 나오고 연구회 강습소가 생기고 심지어 모모 학교에서는 일부러 가객을 초청 하여 다가 창법을 전습한다 등등의 획기적인 대발전을 보이게 되매 이것은 요컨대 三十六년간의 기반을 비로소 벗어난 우리의 자유 국가로서 즉 내나라 내 민족의 내 것을 존중하고 지지하자는 거국적 자각의 한 토막 상징인 것이었다.

시조는 과연 우리나라 고전문학의 유일한 존재로서 중국의 율시나 일본의 화가나 그 외 어느 나라 시가(詩歌)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자나 군인이나 농부나 학생이나 다 같이 정서를 표현함에 가장 풍류적인 것이다. 필자 어찌 동감뿐 만이리오. 일찍이 소년시절에 한마디 배워둔 관계도 있어 위치 시조짱이나 부르는 편이었으므로 용약자진하여 그러면 나도 다시 좀 더 깨끼어가지고 나의 경영하는 농악협회 사업과 아울러 보급 방면에 한목 보리라하고 여러 가지 참고서를 들추어보며 다시 시조 만에 대한 골자와 근거를 추급하여본 결과 그 중에는 문현과 율리가 자재하여 일견 명료한 악보를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누구나 현대적으로 속히 알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그 즉시 발견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전기 각계각층에서의 향상열은 의외로 진첩을 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보급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므로 필자는 다시 전습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여 실지 시험한 결과 중학 삼년 정도를 표준으로 불과 한, 두 시간 내외이면 누구나 충분히 요령을 파악하여 능히 독창으로 부를 수 있도록

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면 재래의 그 전습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필자 역시 전술한바 당하여 온 경험도 있거니와 어디서나 다만 그 부르는 사람의 성곡 만을 막연히 흥내 내어 따르게 할 뿐으로 위치왈 시조 한장을 제대로 부르자면三年 이상이 걸린다는 비과학적인 구식을 여전히 답습하여 초학자들을 아연케 하므로 결국은 중도에 폐하고 마는 이가 태반이며 모처럼 고조된 시조열이 좌절되고 마는 현상이다. 원래 시조는 그 창법이 영시(咏詩)와 거의 동일한 곡으로 四성에 의한 음계로써 시조 시(詩)의 표현을 음영(吟咏)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요, 보통 가곡(노래)과 같이 명창(名唱)을 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런데 이조말엽(李朝末葉) 이후 위치 조대해음즉폐업(措大解音則廢業)이라하여 일반음악을 천대시하는 동시 일체 교방(敎坊) 방면으로 휩쓸려 나가게 되매 거기에서는 오직 기생(妓生)이나 가객(歌客)들만이 재래의 가곡과 아울러 불러올 뿐이었으므로 그중에는 자연 무식한 건달패들이 잡재하여 자의로 변동 혹은 와전하여 오게 됨을 면치 못하였으며 지금에의 소위 경조(京調)니 영조(嶺調)니 하여 열이면 열이 다 각기 자기의 조를 주장하여 반박을 일삼는 그 알력이 이에서 기인한 것이요. 따라서 이에 대한 아무런 표준도 형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를 착안점으로 하여 다시금 본서로써 위선 일반 초학자에게 가장 속성법인 접경을 제시하는 동시 전기 어디서나 제일 말썽인 듯 한 박자(拍子)와 장단(長短)의 원리원칙을 천명하여 사계 제현의 새로운 참고로 공하여 아울러 보급전도에 다소 공헌을 기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110)

유세기는 만년인 1970년대 후반 평택문화원의 요청으로 명창 이동백, 평택농악 명인 최은창 등과 함께 평택농악단을 창단해 전국적인 공연에 참여하는 등 웃

110)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시조의 보급 현황을 잘 알 수 있어 1957년 문화당에서 간행한 유세기의 『시조창법』 머리말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현재 사용하는 단어와 맞춤법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저자의 글 쓴 의도를 잘 알 수 있도록 했다.

다리농악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sup>111)</sup> 1985년 5월 25일 9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sup>112)</sup>

## (2) 김덕일과 심선옥(沈善玉)

김덕일은 조선후기 5대 남사당패의 하나였던 남사당 진위패(男寺黨 振威牌)의 상쇠로 활동했던 팽과리 명인이다.

김덕일은 조선 고종 4년(1867년) 흥선대원군이 마련한 경복궁 중진 기념 위안잔치에 남사당 진위패의 상쇠로 참여해 왕과 많은 군중 앞에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판굿을 한바탕 펼쳐 왕으로부터 ‘오위장(五衛將)<sup>113)</sup>’이라는 높은 벼슬을 받은 인물이다. 이 때문에 남사당 진위패(男寺黨 振威牌)은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명예를 얻게 됐다.

이날 남사당 진위패(男寺黨 振威牌)는 ‘진위군대도방권농지기’라는 농기[都大房旗]와 3색 어깨띠를 하사받았는데 진위패(振威牌)를 이끈 장본인이 일제강점기 쇠락해져가는 남사당을 일으킨 유세기의 부친 유준홍이다.

심선옥(沈善玉)은 1900년대 초에 활동했던 진위패 남사당을 이어받아 꼭두쇠



사당거사의 공연 장면(기산풍속도)

111) 권순억, “내 고장 사람들-69”, 『경향신문』, 1991. 6. 18.

112) 권순억, “내 고장 사람들-69”, 『경향신문』, 1991. 6. 18. 보도에는 1981년 사망한 것으로 게재됐으나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박성복이 호적등본 등 행정자료를 열람한 결과 1985년 5월 23일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113) 오위장(五衛將)은 조선시대(時代)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딸려 오위의 군사(軍士)를 거느리던 유품인 벼슬로 정3품(正三品)에 해당하는 품계다.

로 활동한 화성재인청 출신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활동지역은 평택과 화성 일원이었다.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을 순회하기도 했으며, 심선옥패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법고의 김문학, 양도일, 송순갑 등이다.

김문학(金文學)은 사물놀이 창시자로 잘 알려진 김덕수(金德洙)의 아버지로 법고, 열두발 상모, 사물 명인으로, 양도일과 꼬마국악쇼단을 만들어 한 시대를 날렸던 인물이다.

양도일(梁道一)은 1960년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남사당패(男社黨牌)를 구성할 때 장구와 벼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덤미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양도일은 1968년 2월 20일 평택 출신 송창선, 그리고 남운용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의 받는 소리와 장구부문의 예능보유자가 됐다.

송순갑(宋淳甲)은 20대 초반부터 27살 때까지 심선옥패에서 연희를 지속하다 1960년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남사당패(男社黨牌)를 구성할 때 법고와 덧뵈기로 활동했으며, 이후 사물놀이 창시자인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등의 제자를 양성했다. 송순갑은 1989년 3월 18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웃다리농악의 보유자로 지정받았다.



송창선(1911~1986년)

### 3) 남사당(男寺黨) 예능보유자

#### (1) 송창선(宋昌善)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호적<sup>114)</sup>의 명인 송창선은 1911년 평택시 서정동에서 태어났으며, 예명은 송복산(宋福山)으로 민속음악계에서는 이름을 송복산으로 부른다. 어려서부터 서정리 마을에서 농악을 익혔고, 30세 때인 1940년에는 호적의 명인 방태진(房

泰珍)에게 배웠다. 송창선은 이미 호적 연주를 하고 있었지만 그 시기 방태진을 만나 호적 재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40년대 중반부터 호적수로 남사당패를 수행하였으며, 안성 복만이패 행수 김복만의 제자인 양도일(梁道一)에게 남사당 덧뵈기를 배워 덧뵈기도 매우 잘하였다.

송창선은 평택시 서정동에서 태어났으나, 이후 성장 과정이나 학습 내력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결혼할 당시 평택과 오산 일대에서 호적을 가장 잘 부는 이로 소문이 나있었다고 한다. 송복산은 해방 직후 남운용 등이 옛 ‘원육덕 패’를 재규합 할 때에 참여하였다.

남사당놀이는 우리 고대민족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집단으로 유랑예인을 일컫는데, 이 남사당놀이가 1900년 이후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멀어지다가 해방이후 남사당의 뜬쇠인 송창선을 비롯해 송순갑, 양도일, 남운용이 남사당 재건공연을 시작하였다.

1960년 민속극회남사당(民俗劇會男社黨)에서 남사당패(男社黨牌)를 재구성했을 때 호적잽이였던 그는 팽파리 최성구·남형우, 장구 최은창·양도일, 범고 김문학·송순갑·지운하·홍홍식, 징 황점석, 북 지문수·박종휘, 호적 정일파와 함께 동참했다. 송창선은 주 특기인 호적 이외에도 남형우, 양도일, 최성구, 이수영, 박계순, 박용태, 최은창, 지수문과 함께 덜미<sup>115)</sup>를 맡았다.

문화재관리국은 1964년 박현봉과 이두현에게 ‘꼭두각시놀음’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꼭두각시놀이를 중심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했다. 이 때가 우리나라에 무형문화재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시기로 당시 이두현(李杜鉉)은 문화재관리국의 조사위촉에 의해 1964년 ‘꼭두각시놀이’, ‘오광대놀이’, ‘양주별산대 놀이’를 정리했다. 꼭두각시놀이를 조사할 때는 호적잽이었던 송창선의 구술을

114) ‘호적’은 국악기 가운데 향악기(鄉樂器)의 하나로 태평소, 날라리, 새납 등으로 불린다.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에서 모두 연주된다.

115) ‘덜미’는 남사당놀이의 여섯째 마당인 ‘꼭두각시놀음’을 말하는데 ‘목덜미를 잡고 논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남사당의 송창선, 양도일, 남형우, 박계순, 조송자(오른쪽부터, 1960년대)

채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기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송창선은 1964년 12월 7일 델미라 불리는 ‘꼭두각시놀음’ 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될 당시 가장

앞서 남운용(南雲龍)과 함께 예능보유자가 됐다. 꼭두각시놀음 가운데에서도 송창선의 지정 종목은 호적이었다.<sup>116)</sup>

‘꼭두각시놀음’은 탈춤과 함께 우리 고전극의 한 종류이면서 색다른 것은 주인공 박첨지의 일대기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박첨지 일가의 파탄과 구원이라는 줄거리를 일관적으로 지니고 있는 ‘꼭두각시놀음’은 삶의 덧없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격조 높은 인형극이다. 반주악기는 풍물에 쓰이는 팽과리, 북, 징, 장구, 호적이고, 장단은 염불, 타령, 굿거리 등이며, 주로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인형의 양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상반신을 흔드는 춤을 춘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꼭두각시놀음’은 남사당놀이(男寺黨놀이) 여섯 마당의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1988년 다섯 마당이 포함된 ‘남사당놀이(男寺黨놀이)’로 문화재 명칭을 광의적(廣義的)으로 변경했다.

남사당패는 꼭두쇠를 정점으로 공연을 기획하는 화주, 놀이를 관장하는 뜬쇠, 연희자인 가열, 새내기인 빼리, 나이든 저승패와 등짐꾼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남

116)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전승자 정보」, 『문화재청 누리집』, 2016.



농악의원모습 「풍물」  
40餘年만에 再現

22日 民俗劇會「男寺黨」公演

마음이 아득한 사람을  
죽의 표적이며 動物樂이 현발표한다. 22일 하우 2시 경복궁 뒤편에  
그치가 인천과 함께  
경복궁 뒤편에  
그야말로 풍물(風樂의 전설)은  
관찰로는 따로 없고 전복

男寺黨은 옛기능자들을모아「풍물」을 再現한다

40여년 만에 재현한 남사당 기사(경향신문, 1968년 6월 19일 보도)

사당놀이는 풍물, 벼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 여섯 마당으로 구성된다.

송창선은 1964년 12월 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sup>117)</sup>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이후 공연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1968년 2월 15일 서울YMCA 강당에서 개최한 민속가면극 광대탈 발표회는 지난 30여 년간 자취를 감췄던 광대탈을 발굴한 공연으로 평택과 안성지역의 궁중 패 사이에서 연희되었던 산대극계(山臺劇系)의 하나인 광대탈을 소재로 한 것이다. 광대탈은 서민들이 양반에 대한 반항과 파계승의 풍자를 보이는 대중오락극으로 다른 탈춤에 비해 연극적 요소가 짙고 당시 사회에서 벼림받은 서민층에 뿌리박은 것이 특징이다.<sup>118)</sup>

117) 1964년 지정 당시 ‘꼭두각시놀음’ 이었으나 1988년 ‘남사당놀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18) 「자취감춘 가면극 광대탈 발굴 스케치」, 『동아일보』, 1968. 2. 8.

1968년 6월 19일에는 남사당의 여섯 마당 가운데 첫 번째 종목인 풍물을 192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춘 지 40여년 만에 재현했다. 이날 경복궁 뒤편에서 개최된 재현 공연은 민족극회 남사당을 만든 심우성의 주도로 평택출신 송창선과 최은창을 비롯해 최성구, 남운용, 송순갑, 정호동, 홍홍식, 지운화, 남기환, 남기돌, 지수문, 김재섭, 양도일, 김문학, 황점석, 곽복열, 임광식, 박계순, 박용태 등 당대 최고의 연희자들이 대거 참여했다.<sup>119)</sup>

1968년 12월 14일에는 무형문화재 발표공연이 드라마센터에서 개최됐다. 우리 전통민속의 재현과 보급을 위해 진행한 이 공연에는 꼭두각시놀음과 함께 양주별산대놀이와 북청사자놀음도 함께 진행했는데 꼭두각시놀음은 송창선과 남운용, 양도일, 박계순 등 9명이 출연했다.<sup>120)</sup>

1969년 7월 23일 카페테아트르에서 진행한 꼭두각시놀이 공연은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 공연의 주요 배역은 대잡이 남용운, 신발이 양도일, 대잡이 보 송창선, 박계순, 최성구 등이었다.<sup>121)</sup>

1970년 6월 16일 민속극회 남사당 주최로 한국일보 소극장에서 열린 꼭두각시놀음 공연에는 예능보유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문화재관리국 후원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무형문화재 제3호 꼭두각시놀음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송찬선과 남형우, 양도일 등 10여명이 각각 대잡이, 산발이, 잽이 등으로 출연했는데 송창선은 이 공연에서 호적을 연주했다<sup>122)</sup>

1978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은 공간사랑에서 꼭두각시놀음 공연을 진행했다. 평일에는 하루 한 차례, 주말에는 하루 두 차례 진행된 이 공연은 사단법인 민속극회 남사당 주최로 평택출신 송창선, 최은창을 비롯해 박용태, 남

119) 「40여년 만에 재현」, 『경향신문』, 1968. 6. 19.

120) 「무형문화재 발표 공연」, 『동아일보』, 1968. 12. 10.

121) 「꼭두각시놀이 공연」, 『경향신문』, 1969. 7. 23.

122) 「꼭두각시놀음 공연」, 『동아일보』, 1970. 6. 13.

123) 「남사당의 꼭두각시놀음 공연」, 『경향신문』, 1978. 10. 11.

124) 「남사당놀이 기능보유자들 참가」, 『경향신문』, 1981. 5. 26.

기환, 강천희, 양도일, 박계순, 신춘성, 김재원, 배순애 등이 출연했다.<sup>123)</sup>

당시 남사당 예능보유자로 활동했던 송창선은 고향인 평택에 기여하기 위해 1980년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기농악 호적수로 참가해 개인연기상을 받았다. 이후 평택농악은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됐다.

1981년에는 정부의 요청으로 ‘국풍81’ 행사에 참여한다. 한국민속극회가 진행한 남사당놀이 공연은 남사당 단원 30여명이 출연해 농악과 땅재주, 탈놀음, 꼬두각시놀음 등을 벌였는데 호적 예능보유자 송창선을 비롯해 풍물과 버나, 덜미의 김재원, 풍물과 덜미의 박계순 등 명인들이 출연해 공연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sup>124)</sup>

송창선은 경기 능계가락을 비롯해 남도 시나위가락 등 각 지방의 호적가락에 능하였으며, 제자로는 김재원(金在元)과 7살에 남사당에 입단하여 송창선에게서 호적을 배운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 같은 사물놀이패의 김용배 등이 있다. 이들은 송창선에게 농악가락에 대한 예능적 지혜를 터득했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전수교육조교였던 남기문도 송창선에게 꼭 두각시놀이를 전수받았다. 남기문은 송창선과 같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남사당의 대가 남운용과 또 다른 보유자 박계순의 차남으로 7살에 남사당에 입단하여 송창선에게 남사당 전반에 대해 익혀 그에게 송창선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남사당 호적 명인 송창선

2000년에 발매한 〈송복산 태평소 독주〉 CD에는 시나위, 굿거리, 둉덕궁이, 타령, 긴가락, 창부타령, 노래가락, 양산도, 태평가, 종로네거리, 풍물 등 송창선이 심혈을 기울여 직접 연주한 곡들이 수록돼 있다.<sup>125)</sup> 송창선은 1974년 심우성(沈雨晟)이 펴낸 《남사당패연구(男社黨牌研究)》을 감수했으며, 이 책은 현재까지 남사당 연구와 관련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송창선은 체구도 매우 작는데 사람이 한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호적을 잘 불었다. 얼마나 재능이 뛰어났으면 호적 2개를 한 입에 물고 쌍 나팔을 자유자재로 불었을 정도로 호적으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당시 송창선처럼 호적을 잘 부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들었으며, 재담도 뛰어나 타인을 요절복통하게 만드는 재주도 가졌다.<sup>126)</sup> 송창선은 1986년 5월 22일 작고했다.

남사당 예능보유자였던 송창선의 형인 송대선도 걸립패에 참여하는 등 형제가 모두 농악 명인의 반열에 올랐던 인물이다.

#### 4) 평택지역 농악의 유래와 전승<sup>127)</sup>

##### (1) 웃다리지역을 대표하는 평택농악

농악은 우리 선조들의 감성과 직감이 낳은 문화유산이다. 우리민족의 심성이 가장 잘 표현된 민중의 음악이요 춤이다. 이러한 농악은 농경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수렵시대에 짐승몰이를 위한 타악기 사용이 그 시원이라는 설이 있다.

125) 박성복, 「평택의 전통 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126) 이민조(남, 81세),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 농요 보유자, 포승읍 방림리 거주, 평택향토사 연구소 박성복 연구위원 면담, 2016. 5. 26.

127) 박성복, 「평택의 전통 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128)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평택농악 영상기록』,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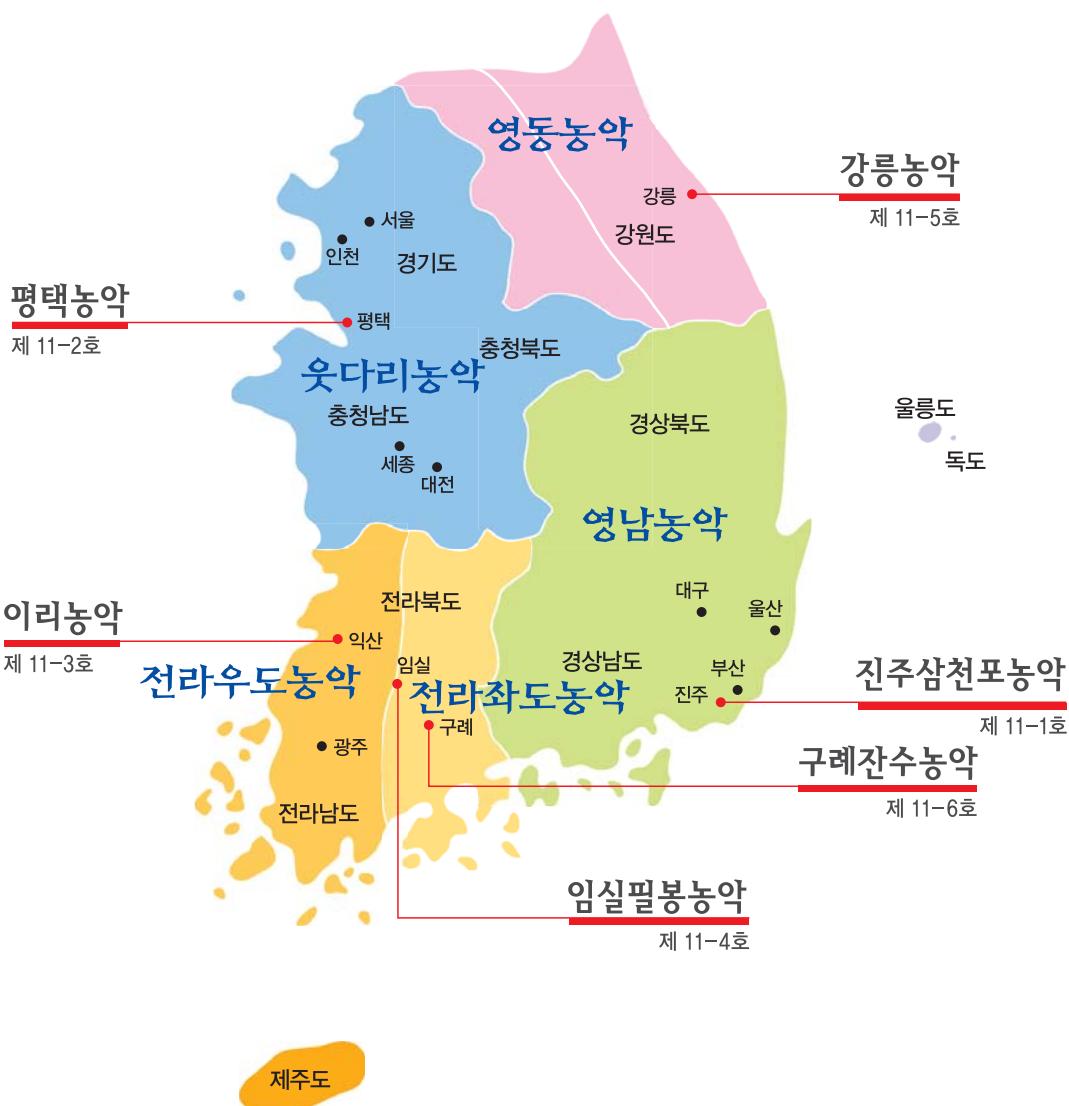
평택농악 판굿 무동놀이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악기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전해진다. 농악은 이러한 행위에서 발전해 마을 농악대가 형성되고 지신밟기와 두레농악으로 발전해왔다. 농악은 지역에 따라 명칭도 조금씩 달라지고 내용과 형식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sup>128)</sup>

농악은 풍물·두레·풍장·굿이라고도 한다. 농악은 농경문화에서 김매기·논매기·모심기 등 힘든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로를 덜며 나아가서는 협동심을 불러일으켰다. 지금은 각종 명절이나 동제(洞祭), 걸립굿, 두레굿과 같은 의식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가락과 악기를 변형한 사물놀이나 타악 퍼포먼스 공연은 세계인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악은 크게 경기·서울·인천·충청권 전역과 강원도 영서지역이 속한 웃다리농악,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동부 산악지역의 호남좌도농악, 전라도 서부 평야지역의 호남우도농악, 경상도 지방의 영남농악, 태백산맥 너머의 영동농악 등으로 나누어진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현재 6곳의 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전국 6대 농악 분포도



농악을 크게 분류하면 충청도 이북의 웃다리농악과 남도지방의 아랫다리농악으로도 구분한다.

평택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같은 동쪽에 산이 집중된 반면 서쪽으로 가면서 평야와 해안에 접한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을 갖고 있다. 근현대 활발히 진행됐던 간척사업과 평택호방조제 축조가 이뤄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쪽 지역은 농업, 서쪽 지역은 어업을 생업으로 했던 동농서어(東農西漁)의 산업 구조를 띠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등 기록에 의하면 평택은 해일과 홍수·가뭄·우박·바람 등의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으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은 물론 농작물과 염분·어전·배 등의 피해가 매우 심했다.

농업과 어업은 기상환경과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평택사람들에게는 기복과 축원의 문화가 발달했으며 평택 동북부지역에서는 풍년 농사를 위한 두레굿과 도당굿·당제·줄다리기가 성행했고, 서부 해안지역에서는 풍어와 해상안전을 위한 풍어제와 도당굿·당제가 민속신앙으로 발달했다.

이처럼 잦은 자연재해를 기원과 축원의 문화로 극복하기 위해 평택에서는 남사당과 농악·민요·도당굿·줄다리기·거북놀이 등 공동체 민속문화가 성행했다.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놀이와 민속신앙은 전통 예인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됐으며 이로 인해 평택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보급 예인들이 많이 배출됐다.<sup>129)</sup>



평택농악 당산굿 고사소리

129) 박성복, 「평택의 전통 예인」,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2011』, 평택문화원, 2011.



평택농악 판굿 동고리

평택농악은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를 중심으로 경기·충청권 전문 연희패의 웃다리농악과 팽성지역 평궁리 두레농악이 결합되어 형성된 농악(農樂)이다. 1970년대 이전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는

걸립패, 사당패 등 상당히 많은 전문 연희패가 활동하였는데, 평택농악은 이들 전문 연희패의 명인들이 중심이 되고, 평궁리 마을의 두레농악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두레농악은 정초나 대보름에 지신밟기를 하거나 농사철에 두레풍물을 치던 놀 이를 말한다. 두레조직은 해방 후에서 1970년대 이전 사이까지만 해도 논농사가 발달했던 농촌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었던 공동노동조직인데 두레농악은 두레노동을 할 때 함께 행해졌던 놀이였다. 일제가 1941년에 발행한 《조선의 향토오락》에도 “제초기간 중에 농민들이 농악을 놀았다”라는 기록과 7월에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호미씻이를 했는데 경기도 타지방과 동일하다<sup>130)</sup>라는 기록이 있어 일제강점기 말까지도 두레노동과 함께 두레농악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sup>131)</sup> 1970년대 이전 평택지방의 대부분 마을에는 두레농악패가 있었는데, 평궁리 두레농악패도 그 중 하나였다.

두레굿과 걸립굿의 대명사로 불리는 평택농악을 지금과 같은 편제로 육성한 최은창(崔殷昌)과 이돌천(李芻川) 명인은 평택농악을 웃다리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으로 키운 장본인으로 그 공로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130) 村山智順, 『朝鮮의 鄉土娛樂』, 조선총독부, 1941.

131) 진위면지편찬위원회, 『진위면지』, 평택시·평택시문화원, 1999.



웃다리 평택농악의 총 본산 팽성읍 평궁리

평택은 질박한 서민의 정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을 겨안을 줄 알고 그들이 터를 잡아 생활하도록 배려할 줄 아는 문화적 토양을 지닌 고장이다.

사당패는 평택의 소사뜰·오성뜰, 진위 장안뜰, 진위 마산뜰, 성환, 둔포뜰, 멀리는 예산, 아산 삽교, 당진 합덕뜰에 이르기 까지 놀이판을 펼쳤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등살에 전국적으로 자취를 감추었음에도 그 명맥을 유지한 것이 바로 ‘평택걸립패’였다. 걸립패는 교량·학교·관공서 등을 건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됐고, 또한 예인들로서는 생계유지의 수단이기도 했다.<sup>132)</sup>

평택농악은 이때부터 두레풍물과 걸립풍물굿을 가장 잘 계승한 웃다리지역 대표 풍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두레농악에서 하던 지신밟기, 두레굿과 더불어 난장굿, 절걸립, 촌걸립 등 걸립패에서 하던 전문연희패적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는 평택 팽성읍 원정리 출신 최은창이 전문 연희패에서 활동했고 초기 구성원들이 서울·경기남부·천안·공주 지역에 흩어진 명인들로 구성돼 전문 연희패적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132) 평택문화원, 『소사별』 창간호, 1984.

즉, 평택농악은 팽성읍 평궁리 마을의 두레농악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평택의 두레농악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경기·충청지방 전문 연희패의 가락과 판제를 계승한 웃다리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평택농악(平澤農樂)’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6.25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정부 시절 대통령 생일을 기념해 열린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였다. 평택농악의 명인 최은창(崔殷昌)은 당시 평택군의 요청으로 농악패를 구성해 ‘평택농악’이라는 이름으로 대회에 나갔다. 평택농악은 지금의 광화문인 중앙청 앞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1958년과 1959년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평택농악의 이름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됐다.

웃다리농악을 대표하는 평택농악의 근거지이며 총 본산이라 할 수 있는 평택시 팽성읍(彭城邑) 평궁리(平宮里)는 평택시가지에서 남서쪽으로 2km쯤 떨어져 있는 평야지대에 자리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옛 부터 지신(地神)밟기와 두레굿 등 여러 농악을 세게 쳤다.

팽성읍 평궁리가 웃다리농악의 총 본산이 된 데는 ‘평택농악(平澤農樂)’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발전시켜 국가무형문화재의 반열에 오르게 한 웃다리농악 명인 최은창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은창의 출생지는 팽성읍 원정리로 평궁리와는 4km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평궁리로 이주해왔다. 예능적 감각이 뛰어나 어려서부터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최은창은 마을 두레패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마을단위에서 벗어나 촌걸립을 하는 전문연희패의 일원으로 절걸립패에 몸담았으며 성장하면서 독립해 직접 절걸립 행중을 꾸려 활동했다.

이후 최은창을 주축으로 한 ‘평택농악패’가 꾸려지고 이들은 절걸립으로 근근이 유지되어오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평택농악 명인 최은창은 고향 평궁리에서 농사일을 하는 한편 간간히 지금의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꼭두각시놀이’를 육성한 ‘민속극회 남사당’ 활동을 해왔다.

마을마다 전해 내려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죄은창은 평궁리에서 다시 평택농악을 부활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대외적 공연활동에 주력하면서 잊혀져가는 고사소리 채록과 복원에 힘썼다.

## (2) 걸립농악과 두레농악의 조화

평택농악은 평야지대를 배경으로 한 두레패와 웃다리지역 전체를 넘나들던 전문연희패의 전통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택농악은 마을 두레패 성격보다는 전문연희패 성격이 강하다. 이는 평택농악 예능보유자였던 죄은창이 주로 전문연희패에서 활동했다는 점과 평택농악의 구성방식 그리고 구성원의 주요 인맥에서도 나타난다.

웃다리 평택농악은 가락의 종류가 많지 않은 반면 겹가락 등을 이용해 변주가 다양하다. 또한 가락이 빠르고 힘이 있으며 맷고 끓음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독특한 가락으로는 칠채와 잣은삼채라 불리는 찍찍이가 있다.

판굿은 굿패들이 여러 가지 놀이와 진풀이를 순서대로 짜서 갖은 기예를 보여 주기 위해 벌이는 풍물놀이다. 웃다리 판굿은 보통 40~50여명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농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호적수가 따르며 그 뒤로 쇠-징-장고-북-법고-무동이 이어진다. 평택농악의 판굿은 진풀이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생동감이 넘



평택농악 판굿 당산벌림



### 평택농악 쌍오무동

친다.<sup>133)</sup> 당산별림 대형과 무동놀이가 가장 큰 특징인데 특히 무동놀이에서 보여주는 던질사위·앞뒤곤두·만경창파돛대사위·동거리와 곡마단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평택농악만의 자랑거리다.

지금은 명맥이 끊어졌지만 우리나라 여느 농악에서도 할 수 없는 평택농악만의 전설이 있다. 무동 네 명이 한 줄로 올라서서 4층탑을 쌓는 ‘회초리 사무동’과 곡마단 앞뒤로 두 명의 무동이 더 올라서는 ‘칠무동(七舞童)<sup>134)</sup>’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2013년 5월 12일 한국소리터 평택농악마을에서 진행한 ‘평택농악 정기발표공연’에서 ‘쌍오무동(雙五舞童) 곡마단’을 세계 최초로 선보여<sup>135)</sup> 관람객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선사했다. 평택농악은 기예와 역동성 면에서는 어떤 농악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재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133) 국립문화재연구소, 『평택농악』, 1996.

134) 최은창 평택농악보존회장,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박성복 면담, 2001.

135) 박성복, 「평택농악 ‘쌍오무동’ 농악 역사 새로 쓰다」, 『평택시사신문』, 2013. 5. 15.

136) 두레굿은 동기례라고도 부른다.

137) 국립문화재연구소, 『평택농악』, 1996.

평택농악은 정초에 ‘지신밟기’, 여름철에 ‘동기례’<sup>136)</sup>라고 불리는 ‘두레굿’, 겨울철에 ‘걸립굿’에 농악을 크게 쳤고, 초파일에 ‘등대굿’, 단오날과 백중날에는 ‘난장굿’을 쳤다.

지신밟기는 정초에 마을 풍물패가 모여 집집마다 돌면서 풍물을 치고 지신을 밟아주며 고사를 해주고 쌀과 돈을 추렴하는 세시풍속으로 당집에 가서 당굿을, 마을의 큰 우물에 가서 샘굿을 치고, 집집마다 집돌이를 한다. 집굿은 먼저 대문에서 문굿을, 집안 우물에서 샘굿을, 부엌에서 조왕굿을, 마당에서 마당굿을 친다.

두레굿은 두렛일을 할 때 협동심을 북돋우고 힘든 노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하는 역할로 모내기에서 시작해 세별 김매기가 끝나는 날까지 행해졌다. 음력 7월 중순 세별 김매기가 끝나는 백중날은 백중놀이 또는 호미씻이라고 해 마을 공터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풍물을 치며 푸지게 놀았다. 평택농악 두레굿은 1984년 최은창이 주도해 평택농악보존회에서 처음으로 복원한 후 매년 평택군민의 날 때 백중놀이의 하나로 재연한 바 있다.

걸립굿은 쇠꾼들이 돈과 쌀을 걷기위해 지신밟기와 같이 집돌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걸립패에는 걸립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걸립패’와 ‘절걸립패’가 가장 흔하다.

‘총걸립’은 마을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특별한 경비를 모아야 될 목적이 있을 때, 걸립을 통해 다리를 놓거나 관공서 같은 공공건물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 학교를 세우는 일도 했다.

‘절걸립’은 사찰을 수리하거나 중수하는 등 절에서 쓸 비용 마련을 위해 절과 연희패 간에 계약을 맺고 행하는 것으로 ‘연희’보다는 ‘고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평택농악 최은창과 같은 이름난 고사꾼들을 필요로 했다.

현재 태고사에는 태고사와 중흥사를 걸립하기 위해 1960년대와 1980년, 1985년 정부 삼부요인을 비롯해 각 부의 장관들이 작성해준 권선문이 남아있으며<sup>137)</sup> 이때 평택농악 명인 최은창이 고사꾼으로 참여했다.

‘난장굿’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날 외에 임시로 특별히 열리는 장날에 벌어지



평택농악 판굿

는 것을 말한다. 평택지역에서는 주로 명절을 맞아 난장을 했으니 ‘파일난장’ ‘백중난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파일난장을 칠 때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놀이판 한 쪽에 높다랗게 등대를 세워놓고 굿을 놀아 이를 ‘등대굿’이라 부르기도 했다. 과거 전국 5대 사당패의 하나였던 평택 남사당 진위패의 파일난장굿은 그 규모가 인근에서 볼 수 없는 최대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판굿’은 굿패들이 여러 가지 놀이와 진풀이를 순서대로 짜서 갖은 기예와 재주를 보여주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지신밟기나 걸립을 하면서 집집마다 마당씻기로 하던 농악놀이가 확대된 것인데 본격적으로 판굿이 발달한 것은 전문연희패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sup>138)</sup> 평택농악도 일반 관객을 위주로 한 공연에서 가장 보편

138) 국립문화재연구소, 『평택농악』, 1996.

적으로 행하는 것이 판굿이다.

평택농악 판굿은 인사굿–돌림법고–당산벌립1–오방진–당산벌립2–사통백이–합동 좌우치기–가새발림–쩍쩍이춤(연풍대)–돌림법고–개인놀이(따법고·장고놀이·상쇠놀이)–버나놀이–무동놀이–열두발 상모놀이(채상놀이)–인사굿 순으로 진행된다.

평택농악 판굿은 빠르고 힘 있는 가락에 맞추어 진풀이도 생동감이 넘치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양하게 펼쳐지는 무동놀이는 평택농악 판굿의 백미다. 맞동리로 시작하는 무동놀이는 던질사위·삼무동·만경창파 둑대사위·앞뒤곤두가 행해지고 마지막으로 오무동의 동거리와 곡마단으로 이어지면서 구경꾼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긴장감 넘치는 연희가 펼쳐진다.

평택농악은 걸립을 주로 했던 전문연희패의 성격상 ‘고사소리’ 즉 ‘비나리’가 매우 발달해있다. 평택농악 예능보유자였던 최은창은 그 시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비나리꾼으로 인정받았다. 지신밟기나 걸립을 할 때, 화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기를 비는 사설이 여러 군데 들어간다. 이중 짧고 간단한 것을 ‘지신풀이’라고 하며, 마지막 대청마루에 차려놓은 고사상 앞에서 하는 소리를 보통 ‘고사소리’ 또는 ‘비나리’라고 한다.

모내기로 시작해 세별 김매기로 끝나는 두레굿을 행할 때나 절·학교·관공서·교량 등 걸립이 있을 때 미리 수소문해 구성원을 모아 판을 벌였던 평택농악이 지금같이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 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다. 정부와 평택군의 지원으로 1990년 5월 팽성읍 평궁리에 ‘평택농악전수회관’을 건립하기 했지만 단원들은 농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워 농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요일이나 국경일에만 공연에 참여해야 했다. 그래도 한해 20~30여 차례 초청공연을 가거나 평택백중놀이·파일난장굿·단오제 등 평택군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평택농악의 정통성 보존에 힘썼다.



전국대회 출전에 앞서 평택군청 광장에서 출정공연(1980년)

(3)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평택농악이 현재와 같은 편제를 갖춘 것은 1980년대 초부터다. 당시 상쇠 최은창(崔殷昌)과 수법고 이돌천(李豆川) 등 명인들은 평택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살면서 농악을 쳐왔다. 1980년에

는 평택군과 평택문화원에서 최은창을 중심으로 평택·안성·천안·서울 등지에서 활동해온 전문연희패 출신들과 평택지역에서 이름이 나 있던 사람, 그리고 평궁리 마을사람들로 편성된 ‘평택농악팀’을 만들어 그해 제주도에서 열린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기농악’이라는 농기를 내걸고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공연했다.

평택에서 활동해오던 최은창·방오봉·이민조 등과 서울과 천안·안성 등에 거주했던 송창선·이돌천·유준·김육동·김기복 등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을 위해 구성된 평택농악의 원년 구성원들이다.

그러나 공연 수준이 다른 시·도 대표팀에 비해 월등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최 측에서 대상을 주지 않고 예정에 없던 상을 급조해 ‘특별상’을 줬으며, 이에 평택 농악 단원들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제주도 일주 관광을 시켜주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 했다.<sup>139)</sup> 이때 호적수 였던 송창선은 뛰어난 개인기를 발휘해 개인연기상을 수상했다.

이를 계기로 1985년 12월 1일 상쇠 최은창과 수법고 이돌천이 평택농악의 최

139) 최은창 평택농악보존회장,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박성복 면담, 2001.

140)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평택농악 예능보유자 인증서에는 1984년 12월 1일로 기록돼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141) 김용래 평택농악보존회장,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박성복 면담, 2003.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평택농악 단원들

고봉인 예능보유자가 됐으며<sup>140)</sup>, 이듬해인 198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의 보유단체로 평택농악보존회가 지정받게 됐다. 평택농악이 명실 공히 전통적인 웃다리농악의 가락과 판체를 이어온 것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이다.

평택농악은 경기·서울·인천·충청권 전역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표하는 웃다리농악으로 전체 인구의 60%인 3100만 명을 대표하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악으로 1985년 12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된 평택농악은 현재 원형 보존은 물론 올곧이 전승되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농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우두머리인 상쇠의 필요에 의해서 인근 시·군에서 농악 한 자락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급조한 농악패를 만들어 두레굿이나 걸립굿을 펼치곤 했다. 때문에 농악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팔려간다”<sup>141)</sup>는 말이 전해 내려와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다. 평소에는 각자 마을 두레패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공연을 주선한 농악패의 일원으로 연희해왔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평택농악을 거쳐 간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팽성읍 평궁리 평택농악전수회관과 동안들

평택농악의 유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평택지방은 백리 소사벌을 배경으로 자연히 농업이 발달했고, 두레에 의한 마을단위 풍물도 발달했다. 한편, 웃다리지역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풍물패가 형성돼 나중에는 풍물 자체를 업으로 삼는 직업적인 유랑 연희패로 변하게 됐다.

이런 배경에서 형성된 평택농악은 따라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최은창이 평생 거주해 온 평궁리, 넓게 잡아 평택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던 마을 두레패 성격의 농악이다. 또 하나는 최은창이 성인이 된 이후 넓은 지역을 유랑하면서 활동하던 전문연희패 성격의 농악이다. 평택농악이 두레패 성격에만 머물렀다면 웃다리지역을 포괄하는 농악으로서의 대표성을 갖지 못 했을 것이며, 전문연희패의 성격만 가지고 있었다면 농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두레농악의 대동적 신명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수많은 공연에 초청받은 평택농악보존회는 단원들이 공연에 참여해 받은 출연료를 매회 조금씩 모으는 등 보존회 자체의 힘으로 평궁리에 평택농악의 터전이 될 토지를 구입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다 정부



한국소리터와 평택농악마을

와 평택군의 지원으로 1990년 5월 평택시 평궁2길 15(팽성읍 평궁리 242-1호)에 ‘평택농악전수회관’을 건립했다. 2007년 7월 다시 평택농악의 정신적 지주(支柱)였던 최은창의 호를 딴 ‘예운관(藝雲館)’을 신축해 꾸준한 전통보존과 강습·공연활동을 통해 평택농악의 맥을 잇기 위해 힘써왔다.

평택농악이 평택은 물론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역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원도 미흡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04년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의회, 행정, 시민이 참여한 ‘평택농악발전연구회’를 조직한 후 《평택농악의 전통 보존 및 발전적 계승 방안》<sup>142)</sup>에 대한 연구 활동을 2년여에 걸쳐 진행했다.

연구 과제는 평택농악의 정체성, 평택농악 현황 및 SWOT 분석, 평택농악 지원조례 제정, 평택농악마을 조성, 평택농악 축제개발, 효율적 홍보, 인적 인프라

142) 평택농악발전연구회, 『평택농악의 전통 보존 및 발전적 계승 방안』, 2005.

アジア友好交流フェスティバル  
ア ジ ア 民 俗 芸 能 祭  
—かながわとアジアのふれあいステージ—



일본 가나가와현 초청 순회공연(1992년 10월)

구축, 평택농악 중장기 육성 방안으로 정해 현황 조사와 문제점 분석 · 사례 조사 등을 거쳐 발전적 방안을 만들어 나갔다.

이 프로젝트는 민 · 관 · 정 거버넌스로 지역사회의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와 발전 방안 모색 ·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평택지역 첫 사례이며 자치단체에서 이를 채택해 행정에 반영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2005년 9월 29일에는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로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평택농악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CI 제정과 평택농악을 비롯한 국가무형문화재 6대 농악이 한자리에 모여 판굿을 펼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축제’<sup>143)</sup> 개최, 2006년도부터 ‘상임단원 제도’ 시행, 2011년 11월 11일 평택호관광단지에 한국소리터와 평택농악마을 준공 등 대부분의 연구성과들이 현실에서 적용되었다.

143)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축제’는 2006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10월 평택에서 개최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초청공연(2005년)

#### (4) 평택농악의 세계적 도약

높고 날카로운 음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소리를 내 관중을 압도하는 팽과리, 두 손을 움직여 만들어내는 다양한 변주(變奏)로 어깨춤이 절로 나게 하는 장구, 박자를 힘 있게 짚어가며 힘찬 기상을 보여주는 북, 은은한 소리의 포용력을 지닌 징, 우리나라 관악기 중 가장 높은 소리로 하늘 높이 가락을 울리는 태평소, 다섯 악기로 표현해내는 드러냄과 감춤의 조화는 자연스레 어깨춤을 연출해내는 우리 농악기만의 매력이다. 평택농악은 악기 소리 특유의 매력과 함께 무동놀이·벼나놀이·악기별 개인놀이 등 농악꾼들의 연희로 관중을 사로잡는다. 이 같은 웃다리농악 특유의 역동성과 연희성을 바탕으로 평택농악은 국내 공연은 물론 해외 초청공연에서 수많은 세계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평택농악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초청공연을 위해 첫 비행기에 오른 것은 1992년 일본 가나가와현 순회공연이었다. 당시 최은창 예능보유자를 비롯한 20여명의 단원이 참가한 첫 해외공연은 평택농악 판굿을 중심으로 이뤄져 일본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정통성을 선보였다. 평택농악은 이후 1999년 리투아니아 초청공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초청공연(2006년)

과 2001년 일본 사까이국제민속예능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10여 년 동안 세 차례의 해외공연을 하는데 그쳤다.

평택농악의 본격적인 해외 초청공연은 2004년 민·관·정 거버넌스로 활동한 ‘평택농악발전연구회’의 연구보고서 발표 이후 해외공연 예산이 세워지고 웃다리 농악 전통 보존에 근간을 두면서 창조적 계승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연물을 선보여 세계 각국에서 초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해외공연은 2005년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5년 터키 테키르다으시와 미국 LA, 일본 아오모리시,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07년 대만 타이난시와 중국 대련, 몽골 울란바토르, 터키 테키르다으시, 2008년 일본 아오모리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2009년 대만 이란시와 독일 베를린, 터키 테키르다으시, 중국 상하이, 2010년 호주 시드니, 2011년 대만과 중국 상하이, 2012년 말레이시아와 대만, 태국 방콕, 2013년 태국 방콕과 대만, 중국 일조, 중국 후안성 허페이, 2014년 대만 타이난 등 한해 3~5차례의 해외 초청공연으로 2005년부터 10년간 30여 차례의 해외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평택농악은 중국·일본·대만·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매년 축제에 공연단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해외 초청공연 관례상 항공료를 부담해야 하는 예산 문제로 인해 초청을 정중히 사양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세계 각국의 교포사회에서 한인축제를 개최하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민족혼과 흥, 그리고 흥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평택농악을 초청대상 1순위로 삼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초청 문의가 늘어가고 있다.

200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원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의 날 축제’에 초청된 평택농악은 세 차례의 무대공연과 한 차례의 거리 퍼레이드에서 모두 관람객들을 압도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인축제로는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 행사에서 평택농악은 올림픽가(街)를 행진하는 ‘코리언 퍼레이드’에서 서울·부산 등 다른 지역 초청공연팀을 압도하면서 축제를 절정에 이르게 해 행사 관계자와 관람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2005년 ‘제43회 체리축제’에 초청받아 해변 도시 테키르다으시를 방문한 평택농악은 이 기간 15만 명의 관광객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개최 첫날 약 1km거리의 시가행진에는 헝가리·불가리아·루마니아 등 8개국에서 참석한 내빈과 공연 단원들이 각국의 전통공연을 맘껏 뽐냈다. 이날 평택농악은 행진 진행 중 네 곳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공연 때마다 관중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 뜨거운 박수와 열광의 도가니가 연출되기도 했다.

2006년 12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에 초청된 평택농악은 11일간 열아홉 차례의 공연에서 현지인들을 감동시키며 3만 5000여명의 구름관객이 몰리는 인기를 누렸다.

특히 공동 주최국인 한국과 캄보디아를 비롯해 공연에 참가한 30여 개국, 50여 공연단 중 공연 횟수 대비 관람객 동원력이 가장 우수한 공연으로 평가받았다.

문화가 공존하는 형제의 나라 터키인들도 평택농악에 흡뻑 매료되어가고 있다. 평택농악은 2005년부터 2~3년에 한차례씩 터키 테키르다으시 초청공연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09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140여 개국이 참가하는 다문화 카니발 ‘카느발 데아 쿨루언 축제’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한 평택농악은 50만 명의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km 퍼레이드 공연의 출발부터 도착지점까지 쉴 새 없이 박수 세례를 받았다.

특히 무동놀이 오무동과 버나돌리기 공연 때는 관람객들이 ‘코레아’를 연호하는 등 축제에서 최고 인기 공연단으로 호평을 받았다. 퍼레이드 직전에는 세계 각국 공연단 중 유일하게 독일 RBB방송국 특설 세트에서 한 시간 동안 특별 공연을 펼쳤다. 생방송으로 독일 전역에 방송돼 현지인들이 한국과 평택에 대한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와 함께 TV와 신문 등 독일 언론에도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처럼 평택농악은 매년 100여회内外의 국내 공연과 함께 4~5차례 해외 초청공연을 펼치고 있다. 대만 세계타악페스티벌·터키 체리축제·중국 상해아트페스티벌·해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일본 마쓰리축제·독일 카느발데아쿨투언·호주 시드니 선상공연 등 수많은 해외 유명 축제와 초청공연을 통해 평택은 물론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다.

#### (5)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우리나라 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2011년 3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제출을 시작으로, 2011년 3월에 2014년도 심사 우선순위 종목으로 선정, 2013년 6월에 2014년도 인류무형유산 심사 우선순위 유네스코 제출<sup>144)</sup>, 2014년 2월에 ‘농악’ 수정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144) 박성복, 「‘농악’ 명칭으로 유네스코 신청」, 『평택시사신문』, 2013. 10. 2.



평택농악 버나놀이

2014년 10월 심사보조기구 최종 평과 결과 등재권고에 따라 온라인 공개 등의 절차가 진행돼 2014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역사적인 과정이 이어졌다.

농악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등재권고 사유는 “활력적이고 창의적인 농악은 일 년 내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많은 행사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자와 참여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산이며 농악의 등재는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성을 높이고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있다”고 명시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관습·표상·표현·지식과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사물·공예품·문화공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는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실행과 의식·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적 공예 기술 등이 해당된다.

등재기준은 등재신청을 하는 국가가 공동체·집단·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표출·표현·지식·기술로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사물·유물·문화 공간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다양성을 보여 주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것,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구체화되어 있을 것, 공동체·단체·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참여가 있을 것, 해당 유산은 등재신청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무형유산을 위해 만든 분류목록(inventory)에 포함되어 있을 것 등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2014년 11월 24~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제9차 무형유산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청한 ‘농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첫 등재된 이후 판소리-강릉단오제-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가곡-대목장-매사냥-줄타기-택견-한산모시짜기-아리랑-김장문화에 이어 국내에서는 17번째로, 국제적으로는 88개국 297번째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재청이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처음 제출한 농악은 ‘평택농악’을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6곳<sup>145)</sup>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등 26곳, 전체 32곳의 농악이 동시에 등재 신청됐다.

특히 평택농악은 경기·서울·인천·충청권 전역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표하는 웃다리농악으로 전체 인구의 60%인 3100만 명을 아울러 우리나라 농악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sup>146)</sup>

145)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6대 농악은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제11-2호 평택농악, 제11-3호 이리농악, 제11-4호 임실필봉농악, 제11-5호 강릉농악, 제11-6호 구례잔수농악이다.

146) 박성복, 「한국인의 혼 세계인의 혼 평택농악-1」, 『평택시사신문』, 2014. 9. 24.



평택농악 판굿 자반뒤집기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12월 3일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에서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 대상 종목으로 ‘풍물놀이’(평택농악 · 진주삼천포농악 · 이리농악 · 강릉농악 · 임실필봉농악 · 구례잔수농악), 나전칠장, 줄타기 놀이 등을 선정했다. 이때 ‘농악’을 ‘풍물놀이’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유사종목을 통합해 등재 신청 종목으로 선정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됐다.

이후 2011년 1월 14일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에서 ‘풍물놀이’를 2012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 대상 종목으로 결정하고 3월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국이 ‘아리랑’과 ‘김장’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리 정부는 대표목록 등재 우선순위를 조정해 결국 ‘풍물놀이’가 밀려나게 된다.



평택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축하공연(2014년)

‘아리랑’과 ‘김장문화’가 차례로 등재되고 2013년 3월 8일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에서 ‘풍물놀이’를 2014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단독 등재 심사종목으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2012년 등재키로 한 ‘풍물놀이’는 두해를 넘겨 등재하게 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농악’은 명칭 지정에 있어서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부 학계에서 ‘풍물놀이’라는 명칭이 ‘농악’을 포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사물놀이’와 함께 근래에 만들어진 명칭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농악’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불린 명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명칭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에서는 2013년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1980년대 이전에는 ‘풍물놀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악기’라는 의미로 ‘풍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1978년에 앉은반으로 공연하는 ‘사물놀이’가 탄생하고 이후 약 10년 지나서 사물놀이가 선반으로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명칭이 ‘판굿’또는 ‘풍물놀이’라는 것이다.

반면 농악은 20세기 이전부터 사용됐고 1966년 처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농악’으로 명칭이 지정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풍물’, ‘풍장’, ‘매구’ 등의 용어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처음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에 명기된 종목 명칭인 ‘풍물놀이’는 2014년 2월 최종적으로 ‘농악’으로 변경해 유네스코에 수정등재 신청서가 제출됐다.

영문 명칭도 당초 ‘Pungmulnori; farmers’ music and dance’에서 ‘Nongak, Community Band Music, Dance, and Rituals in the Republic of Korea’로 제 이름을 찾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에 대해 ‘등재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최종 확정했다.

웃다리농악의 대표성을 띤 평택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우리나라 농악 가운데 가장 역동성과 연희성이 뛰어난 농악으로 국내무대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정통성 있는 농악으로 더욱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세계인에게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평택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최은창(1914~2002년)

## 5) 평택농악 예능보유자

## (1) 최은창(崔殷昌)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예능보유자로 지금의 평택농악이 있기까지 큰 업적인 남긴 최은창 명인은 1914년 4월 18일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아버지 최상순과 어머니 황간난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출생 직후 평택농악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평궁리로 이주해 살아왔다.

최은창은 13살에 팽성읍 객사리 부용강습소<sup>147)</sup>에 들어가서 3년을 공부했고, 평궁리 서당에서 2년 동안 한학을 공부한 것이 전부였다. 어린 시절부터 특출나게 귀가 밝았던 그는 스스로 예능적 기질을 키워나갔다. 여느 아이들이 소꿉장난이나 잔일거리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두레풍물을 보고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무엇이든 손에 잡히면 두드려 집안의 그릇이 남아나지 않았고, 그것도 모자라 진흙으로 꽁과리를 만들어 두드리기도 했다.

최은창은 마을 등기래패<sup>148)</sup> 상쇠에게서 꽁과리를 배워 16살에는 마을 어른들의 권유로 평궁리 두래패에서 상쇠로 꽁과리를 쳤는데 근방에서 젊은 쇠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20살 되던 해에는 안성의 서상현의 권유로 걸립패를 이끌던 이원보 행중에 들어가 장구와 끝쇠를 쳤다. 이원보는 충청남도 부여 사람으로 일찍부터 풍물에 뛰어난 재주를 보여 풍물을 직업으로 삼아 전국을 떠돌아다니던 전문 연희꾼으로 주로 안성 서상현의 집에 머물며 '서상현행중'의 상쇠를 쳤다.

147) 현 부용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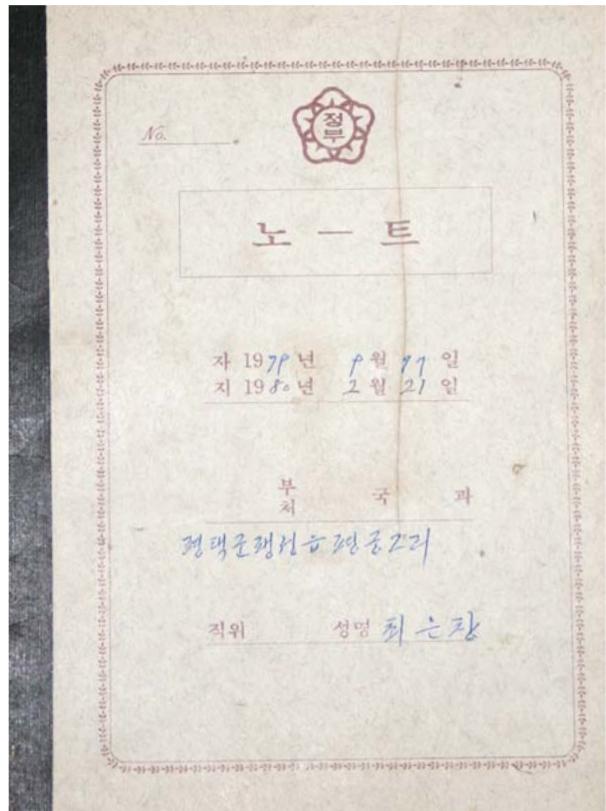
148) 두래패

149) 홍사열, 「최은창을 통해 본 ‘평택농악’의 전승과 상쇠의 역할」, 안동대학교대학원 민속학과, 2006.

1945년 32살의 최은창은 걸립에 나서기 위해 당시 거금인 3만환을 들여 말죽거리 장안사의 주지 임사남에게 고사소리를 배웠다. 가사를 필사해 고사소리를 연습하고 걸립에 나섰는데, 최은창은 이때부터 독자적인 걸립패를 갖추고 고사소리를 연마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걸립을 하고 있던 그에게 약수암 중수를 위한 걸립을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늘 고사소리의 부족함을 느끼던 최은창은 묘연암 유길동 스님과 유랑하던 탁발승 김인환으로부터 고사소리를 전수받고 자신의 고사소리를 보완, 발전시켜 약수암 걸립에 나섰다.

당시 보통 걸립패 이름은 그 패에서 유명한 상쇠의 이름을 붙여 행중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는데 최은창 걸립패의 경우 화주는 윤노장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모으고 걸립 공간을 만들고 연행을 하는 등 실질적인 화주는 최은창이었다. 그가 패 내에서 가장 뛰어난 잽이었기 때문에 ‘최은창 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 최은창 행중은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약 20년간 유랑걸립을 하였는데, 특히 절걸립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sup>149)</sup>

성인이 되면서 마을단위를 벗어나 촌걸립을 하는 전문연희패에 가담하게 되고, 절걸립패에도 몸을 담았다가 나중에는 독립하여 직접 절걸립 행중을 꾸려서 전국적인 무대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러면서 장고잽이로, 비나리꾼으로, 쇠꾼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날리게 시작했다.



최은창의 고사소리 육필 원고

나중에 최은창은 남운용 행중에 잠깐 몸담기도 했는데, 이원보 행중이나 남운용 행중은 모두 절걸립 성격의 연희패였다.

그러나 생업을 버린 것은 아니어서, 1년 중 농사철에는 팽성읍 평궁리에 들어와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가을걷이가 끝난 뒤에는 걸립패로 나서는 생활을 반복했다. 강제공출과 징용, 징병 등으로 걸립활동이 중단된 일제강점기 말이 지나고 해방이 되면서 걸립활동은 다시 활발해졌다.

1945년 8·15해방 이후 웃다리풍물은 남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남사당 후예들과 이원보·송순갑 중심의 걸립패 출신들이 명맥을 이어왔다.

남사당은 남운형을 비롯해 조근영·송창선·김동현 등이 활동해 왔고 그 뒤를 김재원, 이수영, 남기환, 남기문, 송철수, 정일파, 양도일 등이 이어왔다. 걸립패는 이원보, 송순갑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최은창, 이돌천, 최성구, 이덕영, 전사섭, 김복섭, 박산옥, 최상근, 민창렬, 김문학, 김용래, 이성호, 임광식, 이복용, 김덕수 등이 뿌리를 전승해 왔다.

최은창, 이돌천, 김용래, 이성호 등 평택농악 명인들이 영향을 받은 걸립패의 최고 상쇠는 이원보였다. 중요한 걸립이나 규모 있는 대회에서는 이원보가 쇠를 잡았으며 장고잽이로는 평택농악의 최은창, 그리고 송순갑, 전사섭, 김복섭, 민창렬, 최상근 등이 이름을 떨쳤고, 법고잽이로는 평택농악의 이돌천과 김용래, 그리고 박산옥 등이 활동했다. 고사꾼으로는 평택농악 최은창, 그리고 이덕영, 김복섭 등이 유명했고 이중백, 차기준 등도 이름을 올렸으며 호적으로는 정일파를 알아줬다.

1955년 남운룡악단(南雲龍樂團)에 가담해서는 장구를 치다가 나중에는 부쇠를 쳤다. 그러다가 1960년 남운룡 등이 주도한 ‘민속극회 남사당’이 발족되면서는 장구를 쳤다.

최은창은 평택군의 요청으로 1958년과 1959년 ‘이승만대통령생신기념전국농악대회’에 ‘평택농악’기(旗)를 내세워 출전해 2년 연속 우승기를 차지했다. 평택농악은 30여명의 단원이 참여해 이원보가 상쇠를, 송순갑·최은창이 장고를, 이

돌천 · 박산옥이 법고를, 김용래 등이 무동을, 이복용 · 김덕수가 사미를 맡았다.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도 유년기 평택농악에 몸담았던 것이다.

48세 때에 절걸립패 상쇠로 나선 최은창은 북한산 태고사와 인천 연화사 등 수많은 절 중수에 절걸립패를 이끌고 시주를 견었다.<sup>150)</sup> 최은창은 평궁리 두레패를 중심으로 평택 일대에서 걸립을 하였다. 이 때 걸립패의 인원은 28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소방서 걸립이나 절걸립도 하게 되었다. 절걸립은 서울 약수암, 적조암, 인천 연화사, 북한산 태고사 등에서 하였는데, 이 가운데 태고사에서는 12년 동안이나 걸립을 하였다.

이후 최은창은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활동했다. 남사당에서는 남운형을 비롯해 최성구 · 양도일 · 송창선 · 지수문 · 송갑순 · 정일파 등 당대의 명인들과 함께 활동하며 가락 치는 솜씨에 깊이를 더하게 됐다. 이중 송창선(宋昌善)은 평택시 서정동 출신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꼭두각시놀이 호적 예능보유자이다.

최은창은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으로 걸립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걸립을 그만두고 농사에 전념했다.

이후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활동하던 최은창은 1980년 평택군과 평택문화원의 요청으로 평택 팽성읍 평궁리 사람들과 평택 · 안성 · 천안 · 서울 등지에서 불러온 전문연희패 출신들로 농악단을 꾸려 경기도를 대표해 ‘경기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했다.

150) 국립문화재연구소, 『평택농악』, 1996.





최은창의 자택에 마련한 평택농악보존회 사무실

대회에서 최은창이 연행한 판제의 기본은 경기·충청지역에서 주로 연행했던 남사당 풍물판제인 웃다리판제를 바탕으로 했으며, 판의 흥을 돋우는 상쇠놀음, 상모놀음, 무동놀음 등을 적절히 배치하며 평택만의 판을 완성해 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평택농악은 그해 9월 비전동 평택군청 광장에서 시연회를 갖고 10월 20일 공식적으로 결성한 후 10월 29~31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특별상을 받았다.

이 대회에 출전한 단원들은 최은창을 비롯해서 상법고 이돌천, 부쇠 김기복, 법고의 이민조와 김육동 등 모두 32명으로 치배들은 최은창과 절걸립을 함께하거나 두령쇠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었으며, 농기를 비롯한 기수와 잡색은 이주상 평택문화원장을 비롯한 평택문화원 임원들이 맡았다. 연습은 최은창을 총감독으로 해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최은창은 이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1985년 12월 1일 평택농악



평택농악 상쇠 최은창(오른쪽)

상쇠부문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을 이끌게 되며, 평생을 풍물꾼으로 또 20여년 가까이 평택농악보존회 회장을 맡아 평택농악을 체계화시키는데 공헌해오다 2002년 5월 31일 작고했다.<sup>151)</sup>

최은창은 1997년 한국고음반연구회에서 녹음한 <고사소리>에 8분 27초 분량의 고사반소리를 녹음했고, 이후 평택의 농요 가운데 논매기 소리인 ‘오하, 올러를 가세’와 ‘여기두 하난데’를 녹음했다. 1997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중요무형문화재 평택농악 영상기록> 등 많은 녹음과 영상 기록물을 남겼다.<sup>152)</sup>

151) 박성복, 「웃다리 평택농악」,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평택문화원, 2008.

152) 이소라, 『올러가세 류의 논매기소리 고찰』, 한국민요학회, 2014.

최은창은 주로 임사남, 유길동, 김일환 등 스님들에게 고사덕담과 절고사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불교적인 형식이 많이 가미되어 있으며, 가사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소리는 매우 넓은 음역대로 노래하며, 특히 높은 고음역대를 자유롭게 사용했고 음을 떨어주거나 밀어 올리는 ‘요성’과 ‘추성’ 등의 소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구성진 소리가 강점이다. 최은창은 당대 최고의 고사소리꾼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의 사물놀이 공연 레퍼토리의 하나인 비나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sup>153)</sup>

최은창은 고사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이 고사소리를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자신의 소리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안정과 위안을 받았으리라 생각하였다.<sup>154)</sup> 고사소리에 대한 최은창의 애정은 평택농악에서 고사소리 전통을 세우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최은창과 이돌천은 같은 시대의 인물로 평택농악에서 함께 고사소리를 불렀으며 이성호가 뒤를 이어 고사소리를 불렀다. 최은창과 이돌천에서 이성호로 이어지는 평택농악의 고사소리 전통은 이성호의 작고 후 조한숙, 황영길, 진두인 등 몇몇 평택농악 전수조교와 이수자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시인 김윤배는 최은창이 생존했을 때 필담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를 한편의 시로 기록해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웃다리풍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자신의 70년 풍물인생을 함축적으로 묘사했다.

153) 문상보 평택농악 이수자, 평택향토사연구소 박성복 연구위원 면담, 2016. 12.

154) 서연호, 『한국 전승연희의 현장연구』, 집문당, 1997.

155) 김윤배 시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출생, 1986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시집 『떠돌이의 노래』『강 깊은 당신 편지』『굴욕은 아름답다』『따뜻한 말 속에 욕망이 숨어 있다』등이 있으며,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면서 시를 쓰고 있다.

## 최은창 옹

김윤배155)/시인

평택농악보존회 낡은 기왓장 너머로 평야가 붉게 물든다  
최은창 옹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다

평택농악은 우도나 좌도와도 다르고 웃다리풍물이기는 하되  
웃다리풍물과도 다르지 그 너름에 취해 한 평생을 보냈구먼  
나는 듣지를 못하이 듣지 못하니 말하지 못 하구 실어증? 그래  
나는 말을 잊어버렸어 늙고 병들면 추해지는 게 인생이지  
나는 팔도에 알려진 뜬쇠였지 이제는 저승패로 자리보전하고 있지만  
여덟 살에 남사당패에 몸담아 칠십 년을 쇠만 두드렸어  
최은창의 흘려 치는 쇳소리는 처녀들 풋가슴 두근거리게 했지  
여자? 숀한 여자들이 쇳소리를 거쳐갔지 쇳소리에 정한을 품고  
쇳소리에 몸을 풀었지 달맞이꽃 지천이던 진주 남강,  
새벽 강 안개를 밟다 삶을 내준 처녀는  
가슴에서 강물소리 끌고 가는 팽과리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내 봉두난발 끌어안고 울었지 그런 날이면 내 쇳소리도  
숨죽여 울었어 새벽강물에 몸을 던지는  
달맞이꽃 비명을 듣기는 들었던 것이야

필담은 여기서 끝났다  
최은창 옹의 몸으로 붉고 큰 해가 지고 있었다.



이돌천(1919~1994년)

## (2) 이돌천(李豆川)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예능보유자였던 이돌천 명인은 1919년 5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8번지에서 아버지 이용성과 어머니 평택 임씨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적지 않은 농사를 지으며 남사당패를 돌보던 아버지는 이돌천이 9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재가해 생계가 막막해진 그는 12살의 나이에 풍물꾼 변홍섭<sup>156)</sup>의 집에서 생활했다.

1931년 12살 때 농사일을 하다가 풍물 소리에 흔이 빠져 유랑하는 남사당을 따라 충청남도 예산 신례원까지 따라가서 무동과 농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산 신례원에 거주하던 나비상<sup>157)</sup>의 일인자 박치삼과 김종필에게 쇠와 법고를 배웠다. 박치삼과 김종필과 함께 법고잽이로 유랑생활을 하다가 1937년 18살 때부터 걸립패인 박운선 행중에 들어가 남운용(南雲龍)<sup>158)</sup> 등과 함께 걸립을 다녔고, 남사당의 상쇠인 이원보 패에도 가담하였다.<sup>159)</sup>

16세 때에는 마을 상쇠에게서 쇠를 배웠으며, 천안 쌍용동농악대에서도 풍물을 배워 평택과 천안 인근지역 걸립패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17살에는 충청북도 출신의 박지삼에게 법고를 배웠고, 18살에는 남운용(南雲龍)에게 법고를 배워 남운룡농악단의 법고수로 활약했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경부터 천안시가 주최하고 천안소방서가 주관해 음력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충남 방적공장 자리와 춘동 대천내 다리 아래에 모

156)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1대 총무

157) 상모에 여러 겹으로 만든 종이를 단 것을 말한다.

158) 남형우(南亨祐)라고도 부른다.

159) 조한숙, 「이돌천의 선고사에 한하여」, 『웃다리(평택·천안)풍물 고사소리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평택농악 역대 예능보유자 최은창, 이돌천, 김용래(왼쪽부터) |

래사장을 만들어 전국씨름대회와 농악경연 대회가 열리는 큰 난장이 있었다.

농악대회는 쌍용동 방축골농악대 상쇠인 이돌천과 인태경, 변상남, 김종한, 조병국, 오우섭, 김윤환 등이 주를 이루고, 남사당 등 유랑집단의 남운용, 이원보, 최성구, 방영태, 김재원 등을 불러들여 1등을 도맡아 하였다. 주로 신방동농악대, 오룡동농악대 등이 참가하였으나 다른 농악대와는 겨룰 수 없을 정도로 잘 했다고 한다.

1954년 35살 때에는 평택농악 최은창과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최은창이 충청남도 예산소방서 걸립을 할 때 이돌천이 무동으로 참여해 최은창과 인연을 맺은 이돌천은 ‘최은창걸립패’에 들어가 평택 인근지역 걸립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1956년에는 송탄소방서 걸립에도 참여했다.

최성구에게도 쇠가락을 배운 이돌천은 남운용이 꼭두쇠가 되고나서 본격적으로 상쇠 역할을 학습했다. 그 이전에는 이돌천의 집에서는 최은창, 남운용, 이원보, 최성구, 김기복 등이 몇 개월씩 묵으며 농악을 함께 했다. 이후 유랑집단 남사당이 구성된 1960년 서울남사당인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송창선, 최은창, 김용래, 최성구, 남형우, 양도일, 송순갑, 임광식 등과 함께 활동했다. 남사당패로

활동하면서 쇠와 범고, 고사소리 등을 배웠으며, 이왈수<sup>160)</sup>에게도 많은 문서와 고사소리를 배웠다.

1980년 평택농악 명인 최은창으로부터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요청을 받고 평택농악단에 합류했다. 이때의 구성원들은 평택 평궁리 사람을 중심으로 평택에서 이름난 풍물꾼들과 천안과 안성 등지에 거주한 웃다리풍물 명인들을 불러 모아서 조직됐다. 제주도에서 열린 대회에 경기도대표로 출전한 ‘경기농악’은 프로 이상의 전문성을 갖춰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개최지인 제주도에 내어주고 대회 주최 측은 즉석에서 예정에도 없던 특별상을 만들어 시상했다. 이를 계기로 이돌천은 최은창과 함께 1985년 12월 1일 국가무형문화제11-2호 평택농악 상법고부문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이돌천은 당시 우리나라 농악 보유단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범고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아 지정 의미가 매우 컸다.<sup>161)</sup>

이돌천은 평택농악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면서도 고향인 천안시에 농악대를 구성하는 것이 한결같은 소원이어서 1980년 초부터 농악단 설립에 노력하다가 1987년 ‘천안시립흥타령농악단’을 창단해 활동했다. 천안시립흥타령농악단은 이돌천의 아낌없는 지도아래 1989년 제1회 KBS사장기배 충남농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 천안지역 학생들을 가르쳐 전주대사습놀이 경연 대회 등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게 하는 등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을 혼신의 노력으로 이끌어 성장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돌천이다.

이돌천은 평택농악 예능보유자 지정 이후 10여 년간 공연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써오다가 1994년 12월 5일 작고했다.

160) 이덕영이라고도 부른다.

161) 최은창 평택농악보존회장(면담 당시),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박성복 면담, 2001.

### (3) 김용래(金容來)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의 유일한 예능보유자인 김용래는 1939년 6월 6일 충청남도 천안시 남동구 쌍용동 299번지에서 아버지 김남준과 어머니 김금순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농악이 너무 좋아 12살 때 천안의 시골 장터에서 벌어지는 난장을 몰래 들어가 보곤 했던 김용래는 13살 때에는 용곡마을로 이주한 후 이웃마을 인척의 권유로 용곡마을 두레패 사미로 웃다리농악에 입문했다. 집안의 4대 독자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농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1953년 14살 겨울부터는 전문적인 걸립패에 들어가 무동으로 활동했는데 첫 걸립이 안성시 공도면의 소방장비 마련을 위한 소방서 걸립이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5살 때에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경찰 유가족 돋기 걸립을 진행했는데 이곳에서 걸립을 마칠 때쯤 평택농악 명인으로 당시 서울 남사당에서 활동하던 최은창이 찾아와 무동과 법고를 잘하니 행중에 참여해 달라는 설득에 넘어가 1954년 최은창과 첫 인연을 맺고 평택을 비롯한 인근지역 풍물꾼들과 함께 걸립을 다니기 시작했다.

16살부터 대전 송순갑 행중에서 2년간을 대전과 공주지역을 돌아다니며 두레굿, 난장굿, 걸립굿을 했고, 또 안성 남운형 행중에서 무동으로 활동했다. 김용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모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스승이 바로 평택농악의 명인으로 같은 천안에 거주하던 이돌천이며, 쇠가락은 평택농악 명인 최은창이 사사했다.

이 시기에는 난장이나 걸립을 하던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 꼭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라도 지역과 웃다리 지역을 넘나들며 그 지역의 명인들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한참 활동하던 시기에 정읍의 전사습, 논산의 김용근, 충북의 민창열을 만나



김용래(1939~)

함께 난장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웃다리풍물은 상모의 물채가 나비상 물채였다. 이 때 금산의 최상근이 긴 물채를 가져왔는데 난생처음 긴 물채를 구경한 김용래는 그 물채를 빌려와 밤새도록 풀고 다시 조립해 제작 방법을 터득하였다. 이를 계기로 웃다리지역에서도 물채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풍물판제의 화려함과 상모놀음의 다양성, 난이도의 향상 등 웃다리농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김용래였다.

1956년 17살에는 남사당과 송탄소방서 걸립을, 18살에는 경상남북도를 비롯해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도청 소재지 순회공연을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아래 전국적인 전문 연희패들이 남사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 이때 풍물뿐만 아니라 안비취, 목계월 등 소리꾼들과 봉산탈춤, 은율탈춤, 안동하회탈춤도 참여해 전국 순회공연을 진행했으며, 전국 순회공연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인천공연을 마쳤다.

자유당 말기인 1969년 8월 20일 서울 뚝섬에서 개최된 국산품박람회 공연을 위해 흘어졌던 뜬쇠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행사장 인근에 거처를 잡고 40일을 대기했으나 결국 공연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 기간 장구의 김동현이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김용래는 그가 사용했던 상모를 인계받았다. 동료의 갑작스런 죽음에 슬픔은 컸지만 그의 상모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연습을 했다. 김용래는 상모를 곧잘 돌렸으나 자신의 상모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공연에서는 무동놀이의 밑동만 하다가 가끔씩 다른 사람의 상모를 빌려서 공연에 참여했다.<sup>162)</sup>

이 시기 김용래의 상모 기술과 밑동 능력은 전국적으로 알아줬는데 남사당과 웃다리지역 풍물패에서 공연과 걸립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수도 없이 받곤 했다. 당시 김용래는 일반 풍물꾼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난이도 높은 기술을 선보였으며, 힘과 균형감각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무동놀이 밑동도 거뜬히 해냈다.

162) 김정아, 「웃다리풍물 교육과정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국악학과, 2011.

1959년 20살 때에는 충청북도 대표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상모잡이 개인상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많은 대회에서 단체상과 개인상을 훅쓸면서 김용래는 명실공이 모두가 인정하는 상모잡이로 성장하게 됐다.

김용래는 군 제대 후 26살 되던 때 다시 유랑생활을 시작했으며, 그해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날이 갈수록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자 결국 풍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애지중지 아끼던 상모를 모두 불태운 후 한동안 농사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뼈 속까지 스며있는 그의 예술적 본능은 견갑을 수 없었다. 건강이 안 좋아져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됐고, 풍물소리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부인을 설득해 결국 다시 유랑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김용래는 고사소리도 학습했다. 그의 고사소리 스승은 평택농악 명인 최은창과 이돌천, 그리고 평택시 안중읍에 거주한 이덕영이다. 이덕영은 김용래보다 20여살 위로 근동(近洞)에서 고사소리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김용래는 파



곡마단 오무동 밀동으로 명성을 날린 김용래(가운데)



평택농악 수법고 김용래(왼쪽 앞)

일난장굿이나 걸립패에서 죄은창, 이돌천의 받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sup>163)</sup>

용인 한국민속촌이 개관하던 1974년 남사당에 참여해 몇 개월 동안 한국민속촌 농악단원으로 활약했다.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활동하던 김용래는 1982년 평택농악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평택농악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85년 평택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받는데 공헌을 하였다. 2002년 김용래는 고향인 천안에서 스승을 따라 평택농악의 본 고장인 평택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1990년에 남사당에서 공연제의가 들어와 해외 21개국 순회를 하고 돌아왔다. 이때만 해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때인지라 각 단체에

163) 김용래 평택농악보존회장,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박성복 면담, 2003.

소속되어 있는 연희자들도 타 단체 공연이 있으면 서로들 공연을 다니곤 했었다. 김용래는 특히 전국에서 불러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 냈다.

김용래는 전수교육조교를 거친 후 2000년 8월 22일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의 상쇠, 무동놀이, 법고부문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 당시 평택농악은 최은창이 보존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2002년 5월 31일 최은창의 운명으로 그때부터 그가 평택농악보존회 회장으로 활동 하고 있다. 김용래는 수많은 국내외 공연을 통해 평택농악의 세계화와 평택농악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써왔다.

김용래는 웃다리농악의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법고잽이로서의 명성을 날렸으며, 현재 평택농악 판굿의 앞차기 등 여러 기술을 도입하였고, 사라진 무동놀이를 복원하는데도 앞장서 평택농악이 지금과 같은 원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펴낸이 서예 예인



서각장 보유자 이규남과 그의 작품



### III. 평택의 장인 匠人

1. 서각장(書刻匠)

### III. 평택의 장인 匠人

#### 1. 서각장(書刻匠)<sup>164)</sup>

##### 1) 서각장인(書刻匠人)



이규남(1950~)

##### (1) 이규남(李圭男)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0호 서각장(書刻匠) 이규남은 1950년 4월 19일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용화리에서 아버지 이영휘와 어머니 박재순의 5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6·25한국전쟁이 발발해 전쟁 중에 충청남도 논산시 구정면 신교리 303번지로 거주지를 옮겨 초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이주했다.

이규남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강화도 전등사에 갔다가 그곳에 보관돼 있던 팔만대장경판과 탁본을 보고 대단한 감동을 받았다. 그 때의 느낌은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정도로 감동을 넘어 감전된 느낌이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목판에 새겨진 조각과 훌륭한 필체는 놀라움과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164) 박성복, 「서각장」,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 평택문화원, 2008.



이규남의 서각 작업

이규남은 목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남다른 손재주로 나무에 그림도 그리고 남의 이름을 새겨 넣어 선물하곤 했다. 나무에 새기는 작업이 어느 정도의 감각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어렵잖이나마 알고 있던 그였기에 팔만대장 경판의 수준 높은 각자(刻字) 기술과 필체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느낌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맴돌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마음 한 편에 오래도록 서각(書刻)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 당장 서각(書刻)에 뛰어들 수는 없었다.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잡아 10여 년간 원양어선에서 선원 생활을 했으며, 그 후 20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평택시에서 공직을 마감했다.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긴 목각판을 서각(書刻) 또는 각자(刻字)라고 하고, 그 기술을 가진 장인(匠人)을 서각장(書刻匠) 또는 각자장(刻字匠)이라 한다. 한지에 인쇄하는 인출(印出)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목판(木版)이라 하여 글자를 반대로 새겨 인출방식에 따라 인쇄하는 과정도 각자라 하며, 각자를 하는 장인을 각자장(刻字匠) 또는 각수(刻手)라 한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서각문화가 발달하였다. 동양에서 서각문화의 선구는 중국으로 은대(殷代)의 갑골문(甲骨文), 주대(周代)의 각종 금문(金文), 진대(秦代) 이후의 석각(石刻), 당대(唐代) 이후부터는 종이의 사용이 일반화 되었으나 ‘문자 의 새김’인 각자는 모필로 쓰는 것 보다 먼저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으로 알려진 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 다라니경’과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목각판인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는 등 사찰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기술이 전해져 훈민정음 원본을 비롯한 많은 목판 인쇄물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금속활자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목판 서각은 퇴화하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맥(脈)이 쇠퇴하고, 현대에 이르러 사진술과 인쇄물의 발달로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통기술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서각은 서각(書刻), 각자(刻字), 목판(木版) 외에도 겨울에 새긴 문자, 화폐에 새긴 문자, 도자기에 새기거나 찍은 문자, 옥기, 석경(石經), 봉니문자(封泥文字), 벽돌 기와에 남긴 문자 등 그 종류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러한 서각들은 탁본(拓本)이나 인쇄를 하기 위한 새김이 아니지만 분명히 후대의 조판인쇄(雕版印刷)의 각자 방법과 기술상 연결되는 것은 확실하며 그 선구라 할 수 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0호 서각장 기능보유자 이규남의 서각은 새김질 기법에



이규남의 진위궐패(전패) 복제



목재를 선별하는 서각장 이규남

따라 입체감이 달리 표현되고 다양한 운치를 드러낸다.

양각(陽刻) 기법은 글자나 그림을 이루는 선(線)의 바깥 면을 파내어 글자나 그림의 형태가 위로 나오게 새기는 기법이다. 양각 기법은 글자나 그림의 외부 선을 새김질 해 외곽 부분을 먼저 파고 그 외의 나머지 바닥을 새김질해 판다.

음각(陰刻) 기법은 글자의 획이나 그림의 선을 파내어 글자와 그림이 아래로 들어가게 표현한 것이다. 음각 기법은 먼저 획 주변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파내고 이어 획 전체를 새김질해 마무리한다. 양각 기법은 선명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음각 기법은 담백함을 자아낸다. 음양각(陰陽刻)은 음각과 양각의 중간 형태로 획이나 그림 선의 중심은 양각으로 하고 선의 외부는 음각으로 새긴 것이다. 글이나 그림의 주변부를 칼로 새김질해 정리한 뒤 획(또는 선)의 중심부분을 다듬고 끌을 사용해 마무리 새김질한다. 음평각(陰平刻)은 글자의 폭이 넓을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음각으로 파낸 글자나 그림의 면을 다시 평평하게 새김질한 것이다.

이규남의 호는 나무 목(木), 시내 계(溪), ‘나무가 시내를 이룬다’는 뜻으로 그의 호 목계(木溪)는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얻은 것이다. 목계는 충주시 부근 마을 지명이기도 한데 1968년 경 인근 송신소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그 곳은 물이 맑고 청정한 마을이었다.

직장생활 중에도 서각의 꿈을 접은 것은 아니어서 야간엔 공예학원에 가서 목공예 작업을 배웠는데 일반 조각도로는 팔만대장경을 비슷하게라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혼자 문패도 파고 흉내만 내고 있다가 1984년 드디어 국가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인(刻字匠人) 철재(鐵齋) 오옥진(吳玉鎮, 1935~2014년)을 만나게 된다. 서울에서 3대째 서각을 하고 있던 오옥진을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어렵게 찾아간 이규남에게 그는 퇴짜를 놓았다. 한편으론 야속하면서도 그대로 그만 둘 수가 없어 두 번, 세 번 다시 찾아가 네 번째 방문에서 오옥진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받는다.

목판에 글이나 그림을 새겨 넣는 서각은 일 자체가 힘들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인데 제대로 배울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이규남의 스승 오옥진은 시험해 봤던 것이었다. 그 후 그가 원하던 서각을 3년 동안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으며, 2014년 스승 오옥진이 작고할 때까지 자주 교류하고 자문을 구했다. 이규남은 한글서예는 여성에게, 한문은 무불(無不) 선주석(宣柱石), 사군자는 백산 유기곤 (柳基坤), 전각은 공재(空齊) 진영근(陳永根)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규남은 서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서예를 하고 있다. 특히 예서, 전서, 여러 가지 필법에 대한 예능을 직접 익혔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서고(書稿)<sup>165)</sup>의 아이디어도 얻고, 옛 선인의 그림이나 글을 사용할 때 그 필의(筆意)<sup>166)</sup>를 느끼는 능력을 배양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좋은 각자 작품이라면 세 가지가 좋아야 한다. 새겨질 글과 나무, 그리고 서각 기법이다. 책을 많이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글귀를 적어놓고 밑그림을 준비해 두는 것은 이규남의 오래된 습관이다.

이규남이 주로 쓰는 나무는 오래 된 느티나무나 돌배나무, 대추나무로 나무가 견고하면서 결이 좋은 나무를 구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된다. 이규남은 구하기 힘든 대추나무를 얻게 되면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아 잠을 설치곤 한다.

평택시 비전동 524-13번지 이규남의 집 앞마당에는 늘 큰 목재들로 가득하다. 나무의 수액을 빼내고 3년 동안 비를 맞지 않게 그늘에서 자연건조를 시키는데 뒤틀리지 않은 나무를 사용해야 목판에 글자 새기기가 쉽고 완성된 작품이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다.

대작(大作)의 경우 완성하기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작업기간이 걸리는데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비전동 비전9길 72-86 목계서각공방(木溪書刻工房) 작업실에서 며칠씩 밤을 새곤 한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 식사 때가 되어도 시간이 없어 밥을 거르기 일쑤고 대개는 빵과 우유를 옆에 사다 놓고 작업을

165) 서고(書稿)는 목판에 새길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166) 필의(筆意)는 글을 쓰는 의미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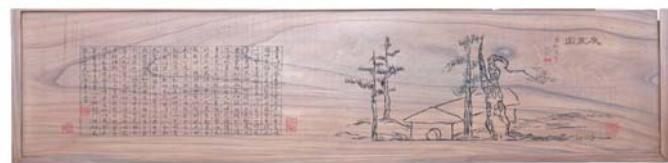
진행한다. 서각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전시회에서 작품이 팔리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이제껏 서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서각에 대한 진한 애정 때문이다.

이규남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월급봉투를 받으면 당장 집에 쌀이 없어도 나무를 사는 데 돈을 쓰는 일이 많아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지만 다행히 아내가 이런 그의 성격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어서 편하게 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지금은 20년 공직 생활로 얻은 퇴직연금과 2004년 1월 5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0호 서각장(書刻匠)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면서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 할 수 있게 됐다.

대개 각자, 서각이라고 하면 글씨가 주가 되는 작품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규남의 작품은 그러한 평범함에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글자보다는 문양과 그림을 넣은 작품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문양은 현대적인 것보다는 와당문이나 고분 벽화의 전통적인 문양에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미해서 만든다. 최근에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와 관련된 그림이나 글을 나무에 새기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목판에 단지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글의 내용이 살아 감동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서각장 이규남의 뜻이자 영원한 목표이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팔만대장경을 보며 느꼈던 당시의 감동을 그의 작품을 통해 발현하고 있다.

서각장 이규남의 작품세계







# 색인

## ㄱ

- 가새발림 169  
가야금병창 125, 136, 137  
가야금산조 37, 105, 107, 112, 124, 125, 126, 127, 128, 135, 136, 137  
각자 203, 204, 208, 209  
강릉농악 181  
강신제 34, 46, 51  
강신무 90, 92  
갯가소리 41, 82, 84  
거리부정 92  
걸립농악 65, 71, 165  
걸립패 29, 40, 90, 162, 167, 184, 185, 186, 187, 192, 195, 198  
겹가락 165  
경기 능계가락 39, 157  
경기 대풍류 37, 119  
경기 무악 109  
경기 서도 소리 37  
경기농악 40, 77, 147, 157, 170, 187  
경기도도당굿 38, 89, 91, 92, 96, 97, 100, 101, 102, 103, 107, 108, 109, 110, 131, 132, 133, 134, 135, 138  
경기민요조 46

- 경기서도민요 111  
경기시나위 38, 89, 94, 97, 98, 100, 101, 102, 103, 108, 111, 113, 114, 122, 129, 130, 134, 135, 138, 139  
경기재인청 101, 130  
경드름 46  
경제소리 92  
고기 되는 소리 84  
고동상성 46, 48, 51  
고사굿 35  
곡마단 166, 169  
곰뱅이쇠 147  
광무좌단장 107  
광주제 38, 96, 97, 98, 102, 103, 134  
광한루악부 51  
구례잔수농악 181  
군웅굿 92, 108  
군웅청배 132  
굿거리 91, 100, 109, 110, 119, 154  
권선문 167  
귀곡성 51  
그물 다는 소리 84  
그물 뽑는 소리 84  
긴 물채 196  
긴 상여소리 88

- 긴 염불 107  
길군악 109  
김광식 98, 105, 107, 124  
김광채 98, 124  
김덕수 101, 118, 121, 152, 157, 186, 187, 189  
김덕일 39, 142, 145, 151  
김복만 143, 153  
김부억쇠 38, 108, 109  
김소희 118, 120, 125, 127, 136  
김용래 35, 40, 71, 143, 144, 186, 187, 195, 196, 197, 198, 199  
꼭두각시놀이 28, 29, 153, 156, 164, 187  
꼭두쇠 139, 143, 151, 154, 193

## ㄴ

- 나비상 192, 196  
남기문 118, 157, 186  
남기환 156, 186  
남도시나위 100, 102  
남사당 34, 39, 40, 41, 77, 139, 142, 144, 151, 152, 153, 156, 157, 158, 164, 186, 187, 188, 192, 193,

195, 196, 198  
남사당 진위폐 39, 141, 144, 145, 147, 148, 151, 168  
남사당폐연구 158  
남양제 38, 96, 97, 100, 101, 102, 103, 130, 134, 139  
남운용 39, 143, 152, 153, 154, 156, 157, 186, 192, 193  
남형우 143, 147, 153, 193  
너름새 35, 56, 58  
논매는 소리 41, 65, 75, 77, 78, 79

## 달공질 71

당굿 167  
당산벌림 166, 169  
당제 93, 94, 161  
당진포 80  
닻 감는 소리 67, 84  
닻 내리는 소리 84  
대금 시나위 37, 38, 97, 100, 101, 104, 107, 137, 138, 139  
대금산조 100, 102, 105, 107, 117, 119  
더듬 46, 47, 48, 51, 52  
더듬치기 100, 113, 114  
던질사위 166, 169  
덜미 139, 141, 152, 153, 154, 155, 157  
덧뵈기 139, 140, 144, 147, 152, 153, 155  
도당굿 89, 91, 93, 94, 101, 130, 131, 134, 161  
도살풀이 90, 109, 117, 135

돌옮기는 소리 84  
돌립법고 169  
동강산제 51, 52  
동거리 166, 169  
동령제 38, 96, 97, 98, 101, 102, 103, 107, 111, 129, 130, 134, 138, 139  
돛다는 소리 69  
등대굿 167, 168  
파볍고 169  
뜬쇠 139, 153, 154, 191, 196

## 류길선 82

마당굿 167  
만경창파 뜻대사위 169  
민물매기 소리 85  
맞돌리 169  
메기는 소리 41, 68, 75, 84, 88  
모내기 소리 41, 64, 85  
모홍갑 34, 44, 45, 46, 47, 48, 49, 50, 51, 52  
목부김 100, 101, 113, 114  
무동놀이 39, 40, 144, 148, 166, 169, 175, 178, 196, 199  
무용 장고 12재 111  
문굿 167  
미지 135  
민속극희 남사당 40, 144, 152, 156, 164, 186, 187, 193, 198  
민속악희 시나위 126

바디질 소리 82  
바우덕이 147  
박용철 35, 41, 67, 71, 73, 84, 85, 86, 88  
박첨지 154  
박현봉 118, 153  
반설음 91  
발뻬드래장단 135,  
발인 소리 86  
방개타령 85  
방돌근 96, 100, 101, 103, 107, 109,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7, 138, 139  
방문일가 36, 37  
방아타령 72, 106  
방용현 36, 37, 38, 97, 98,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11, 129, 130, 137, 138, 139  
방인군 100, 107, 129  
방화준 103, 104, 134  
배치기 68  
백중놀이 76, 167  
뺏고사 노래 71  
보허자 106  
본산대놀이 29  
본향굿 92  
봉장취 가락 102  
부정굿 92  
부정놀이 91  
부정청배 132  
비나리 169, 185, 190



**사당패** 39, 139, 142, 146, 148, 162, 163, 168  
**사미** 187, 195  
**사통백이** 169  
**산대놀이** 31  
**산조** 94, 98, 102, 105, 117, 118, 124, 125, 126, 128, 134, 136  
**살풀이** 65, 117  
**삼공잽이** 91  
**삼현** 102  
**삼현육각** 37, 89  
**상두꾼** 84  
**상여 소리** 41, 71, 78, 85, 88  
**상여 어르는 소리** 86  
**새김질 기법** 204  
**샘굿** 167  
**서각** 203, 204, 207, 208, 209  
**서낭제** 82, 93, 94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107, 116, 125, 135  
**서해안 풍어굿** 131  
**선소리꾼** 66, 85, 86, 88  
**성금연** 37, 102, 107, 112, 120, 124, 125, 126, 127, 128, 135, 136, 137  
**성육남** 124, 126  
**성황제** 89, 93  
**세별매기** 66  
**세습무** 36, 89, 90, 97, 100, 103, 106, 110, 122, 135  
**손님굿** 108  
**솟대쟁이패** 29  
**솟대타기** 27

**송갑순** 187  
**송만갑** 35, 54, 55, 56, 62, 108  
**송복산** 152, 153, 158  
**송순갑** 143, 147, 152, 153, 156, 186, 193, 195  
**송창선** 39, 143, 144, 147,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70, 186, 187, 193  
**송홍록** 44, 45, 48, 49, 50, 51  
**수십 재는 소리** 84  
**수십가** 106  
**수원부선세혁파성책** 80  
**수행고수** 49  
**승어 막살이** 67  
**시나위** 36, 37, 38, 94, 95, 96, 97, 98, 100, 101, 102, 104, 105, 107, 108, 109, 114, 117, 120, 121, 122, 126, 130, 134, 135, 137, 138, 139, 158  
**시루청배** 132  
**시조창법** 148, 149  
**신쾌동** 124  
**심문일가** 137  
**쌍군옹춤** 92  
**쌍오무동 곡마단** 166

◎

**아랫다리농악** 161  
**아매 수해 올리는 소리** 84  
**아전** 39, 145  
**안강망** 81, 82  
**안산제** 38, 96, 97, 100, 101, 102, 103, 113, 134  
**안택 노래** 70

**앉은굿** 90  
**앞뒤곤두** 166  
**애 어르는 소리** 72  
**애벌매기 소리** 85  
**어름** 139, 140, 152, 155  
**어업요** 35, 41, 65, 67, 68, 69, 73, 80, 84, 88  
**어전명창** 47  
**어허혀라 달공** 65  
**얼카댕어리** 65, 78  
**얼카텡이** 77, 85  
**여기두 하난데** 189  
**연광정** 48  
**연동회** 28  
**염계달** 34, 44, 48, 50  
**영동농악** 159  
**영산재** 180  
**예운관** 173  
**오광대** 28  
**오명선패** 143  
**오무동** 169, 178  
**오방진** 169  
**오위장** 39, 142, 145, 151  
**오하, 올리를 가세** 189  
**용왕제** 71, 104, 129, 138  
**웃다리농악** 34, 35, 140, 145, 147, 152, 159, 161, 164, 171, 180, 183, 195, 196, 199  
**원윤덕패** 14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178, 179, 180, 181, 182, 183, 199  
**유세기** 38, 39, 40, 142,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유준홍** 38, 39, 142, 144, 145, 151  
**율제** 97, 100, 101, 102, 113  
**이규남** 202, 203, 204, 207, 208, 209  
**이날치** 53, 54  
**이돌천** 35, 40, 77, 143, 144, 162, 170, 186, 188, 190, 192, 193, 194, 195, 197, 198  
**이동백** 35, 39, 52, 53, 54, 55, 56, 58, 59, 61, 62, 105, 108, 150  
**이리농악** 181  
**이민조** 35, 41, 67, 71, 73, 74, 75, 76, 77, 78, 84, 88, 170, 188  
**이별가** 46, 48, 49, 52, 53  
**이어린년** 53  
**이원보** 77, 184, 186, 192  
**이종구** 35, 41, 69, 73, 80, 82, 84, 88  
**이혀라 지장호** 65  
**잉어질** 100, 113, 114
- 자진 상여소리** 88  
**장끼타령** 47  
**장례요** 35, 41, 64, 65, 71, 73, 84, 85, 88  
**장영근** 102  
**장유순** 96, 101, 130, 137  
**장판교 대목** 46  
**잦은삼채** 165  
**재벌매기 소리** 85  
**적벽가** 34, 35, 44, 46, 47, 48, 51, 55, 136  
**절걸립** 40, 71, 163, 164, 167, 185, 186, 187, 188  
**집시돌리기** 140  
**젓대** 104  
**젓대시나위** 105, 107  
**정악대금** 104  
**정악악사** 102  
**제석굿** 92  
**제석청배** 92, 132  
**조선의 향토오락** 162  
**조왕굿** 167  
**조향련** 100, 111  
**주녀기** 44, 49, 50, 51, 52  
**줄 사리는 소리** 84  
**줄풍류** 102  
**중고제** 32, 33, 35, 52, 53, 54, 61, 62  
**중모리** 117, 126, 128  
**중요무형문화재 평택농악 영상기**  
**록** 189  
**지감득** 135  
**지감성** 109, 110, 137  
**지경 다지는 소리** 41  
**지문일가** 36, 37, 110, 122, 135, 136, 137  
**지영희** 34, 36, 37, 38, 96, 97, 98, 100, 101, 102, 103, 105, 107,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4, 125, 126, 127, 129, 134, 135, 136, 137  
**지용득** 109, 135  
**지천만** 109  
**지한식** 110  
**진쇠 장단** 91  
**진양조** 117, 124, 128  
**진위군대도방권농지기** 39, 142, 145, 151  
**진위남사당** 39, 142  
**진주삼천포농악** 181  
**집굿** 89, 167  
**찍찍이** 165
- 창우집단** 52  
**채상놀이** 169  
**청배 사설** 131  
**초라니패** 90  
**촌걸립** 40, 71, 163, 164, 167, 185  
**최은창** 35, 40, 67, 71, 77, 88, 143, 144, 147, 150, 153, 156, 163, 164, 165, 167, 169, 170, 172, 173, 175,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3, 194, 195, 197, 198, 199  
**출항 닻감는 소리** 84  
**칠무동** 166
- 큰 배 노 젓는 소리** 84
- 태평가** 158  
**터辨别** 92

ㅍ

- 파일난장 168  
평양감사 환영연도 48  
평택걸립페 163  
**평택농악** 35, 38, 39, 40, 41, 67, 71, 77, 88, 140, 142, 143, 144, 157, 158,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80, 181, 183, 184,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7, 198, 199  
**평택민요** 35, 41, 66, 67, 69, 71, 73, 78, 79, 80, 84, 85, 88  
**평택호 풍어제** 94  
풍류대금 111  
풍류시나위 37  
풍어제 93, 94, 161  
피리 삼현육각 37  
피리 시나위 36, 102, 121, 122, 130, 138

ㅎ

- 한성준 101, 111, 112, 117  
합동 좌우치기 169  
해금산조 36, 37, 100, 105, 113, 114, 117, 119, 121, 122  
허튼가락 94  
허튼타령 91, 109, 119  
혁치기 100, 113, 114  
호남우도농악 159  
호남좌도농악 159  
**호미씻이** 162, 167

평택인물지 4

## 평택의 전통예인

발행일	2016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은호(평택문화원장)
기획	황수근, 최실비
글, 사진	박성복
발행처	평택문화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화	031-655-2002
팩시밀리	031-654-8807
인쇄	미지
저작권자	2016 평택문화원
ISBN	978-89-93983-40-1

※ 이 책의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통의  
예술 예인

傳統藝人

# 오래전부터 국보급 藝人들을 수없이 배출한 곳, 平澤

한반도의 허리, 경기도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평택은 오래 전부터 국보급 예인들을 수없이 많이 배출했던 곳이다. 평택은 동고서저(東高西低) 지역으로 동쪽에서부터 중심부까지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했다. 서쪽으로는 바닷가에 접해 있어 고기잡이를 위한 풍년, 풍어, 무사안녕 등 기원(祈願)과 기복(祈福)의 문화가 발달했으며 이 때문에 굿음악이 흥했다.

이 같은 지리적 여건을 배경으로 평택에서는 소리와 기악, 춤, 풍물 등 많은 예인들이 배출됐다. 모홍갑, 지영희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통 예술인들을 배출한 고장이 평택이며, 남사당과 웃다리농악, 경기도도당굿을 주도해온 전통예술의 본류로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준 고장이 바로 평택이다. 이처럼 소리와 기악, 전통 연희 등 다양한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약해온 ‘평택의 전통예인들’은 오늘의 평택을 있게 한 장본인이며 그들을 통해 평택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택은 질박한 서민의 정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을 껴안을 줄 알았고, 그들이 터를 잡아 생활하도록 배려할 줄 아는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는 고장이다. 이러한 토양은 지금 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평택의 전통예술이 뿌리내리고 번성하는 자양분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평택인물지④

평택의  
전통예술인  
傳統藝人

평택인물지④

평택의  
전통예술인  
傳統藝人



平澤文化의 中心 –  
**평택문화원**



平澤文化의 中心 –  
**평택문화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655.2002 FAX 031.654.8807  
[www.ptmunhwa.or.kr](http://www.ptmunhwa.or.kr)